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최종보고서

2019. 12.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제 출 문

국무조정실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안 성 호

연구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 윤수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은주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연임 (SEAD Institute)

연구참여자 : 이은종 (한국행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유미현 (한국행정연구원 행정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평가목적	1
1. 평가목적	1
2. 평가범위	3
제2절 평가방법론	4
제3절 평가개요	14
1. 단계별 평가 수행절차	14
제2장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및 한국 국가협력전략 분석	20
제1절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분석	20
1. 베트남 경제 현황	20
2. 베트남 사회발전 현황	23
3.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26
4. 베트남 수원체계 변화	31
제2절 한국-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목표체계도 분석	35
1. CPS 2016-2020 목표 체계도	35
2. CPS 2016-2020 결과틀(result framework)	37
3. CPS 성과프레임워크 재구성 및 평가대상 사업 연계	39
제3절 2016-2018 한국 베트남 ODA 지원현황	40
1. 베트남 ODA 지원 개요	40
2. 4대 중점분야 및 각 분야별 지원현황	42
3. 유무상 비율 및 원조수단별 비율	47
4. 시행기관별 지원현황	51
제4절 타 공여기관 지원 현황	54

1. 베트남 ODA 지원현황	54
2. 일본	56
3. 세계은행	58
4. 독일	62
제5절 소결	64
제3장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68
제1절 공공행정 분야	68
1. 사업계획의 적절성	68
2. 사업수행의 적정성	81
3. 사업결과의 타당성	85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94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97
제2절 교육(직업훈련) 분야	99
1.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	99
2. 사업수행의 적정성	115
3. 사업결과의 타당성	121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132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138
제3절 물관리/보건위생 분야	144
1. 사업계획의 적절성	144
2. 사업수행의 적정성	152
3. 사업결과의 타당성	159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165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167
제4절 교통 분야	170
1. 사업계획의 적절성	170
2. 사업수행의 적정성	177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181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185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	188
제5절 민관협력	191
1. 사업계획의 적절성 -----	191
2. 사업수행의 적절성 -----	196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201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208
5. 소결 및 시사점 -----	210
제 6절 소결: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결과정보	213
1. 공공행정 분야 -----	213
2. 교육/직업훈련 분야 -----	214
3. 물관리 보건위생 분야 -----	217
4. 교통 분야 -----	219
5. 민관협력 -----	220
제4장 베트남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222
제1절 전략 · 계획 관련 개선방안	222
1.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3기 전략방향 및 중점분야 제언 -----	222
2. 국가협력전략의 목표체계성, 예측가능성 개선 방안 -----	224
3. 국가협력전략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고도화 방안 -----	225
4. 사업계획 개선방안 -----	227
제2절 사업운영 및 시행기관의 역량 관련 개선방안	228
1. 단계별 사업 연계하여 프로그램 원조와 유사하도록 실시 -----	228
2. 유무상연계사업 연계방안 및 융합성과도출 노력 필요 -----	228
3. 한국의 원조사업 모델(포괄적 사업요소) 장점 극대화 개선방안 -----	229
제3절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개선방안	230
1. 성과지표(산출[목표달성도] 및 결과[효과·영향] 지표 포함)의 체계적 구성 필요 ---	230

2.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231
3.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필요-----	233
제5장 결론: 정책제언	235
제1절 정책제언 요약	235
제2절 국별평가 개선방안	240
1. 평가목표 명확화-----	240
2. 평가절차 표준화-----	244
3. 평가결과 환류 체계화-----	250
참고문헌	254
부록 1. CPS 4대 중점분야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 분류(mapping)	257
부록 2. 현지조사 질문지	261

제1장 서론

제1절 평가목적

1. 평가목적

□ 베트남 ODA 종합평가 개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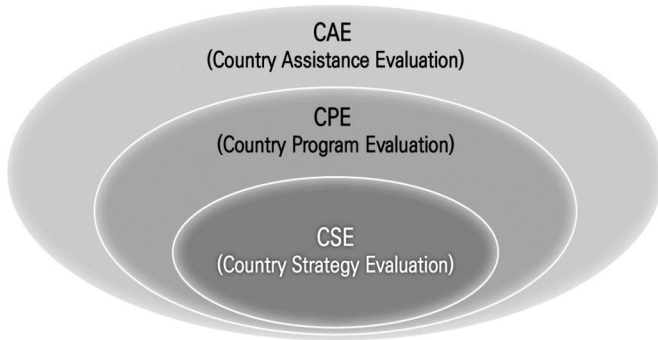
- 본 연구는 베트남 ODA 종합평가를 국별프로그램평가(Country Program Evaluation)로 정의함
 - 국제기구들은 전략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내에 수행된 개발원조 활동 및 정책 대화(Policy Dialogue) 등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국별평가로 정의함(UNDP, 2016;¹⁾ ADB, 2018²⁾)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별평가(Country Program Evaluation)란, 특정 국가에 대한 원조 전략의 통합평가, 혹은 그 국가 내에서 수행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함(국무조정실, 2012)
 - 본 연구는 ODA 종합평가를 위해서 국별프로그램평가(CPE)로 정의함. 이는 해당 국가 전략 하에 시행된 중장기 국별 프로그램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의미함.

1) UNDP. (2016).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untry programme evaluations use in UNDP. Independent Evaluation Office. UNDP

2) ADB. (2018). Annual Evaluation Review. The Quality of Project Design and Preparation for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Independent Evaluation. ADB

- 우리나라 ODA 추진체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시행기관들이 유무상 원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본 평가는 베트남 국별전략의 중점분야에 따라 여러 시행기관들이 실시한 사업 중 일부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함.

〈그림 1-1〉 평가범주에 따른 국별평가 종류 및 관계



*출처: 김은주·이환성(2019:23)

□ 베트남 ODA 종합평가 목적

- 신남방정책으로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한국이 가장 많은 규모의 원조를 지원한 베트남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한 정책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
- 그 동안 실시되었던 베트남 ODA 사업에 대해 종합평가를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우수사례 및 미흡사례 발굴을 통해 시사점 도출

- 본 평가의 목적은 국가전략에 따라 원조 프로그램이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등 평가기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궁극적으로는 차기 CPS와 국별 프로그램 성과프레임워크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
 - 국별평가의 일반적인 목적은 수원국의 개발원조환경과 수요 맥락에 비추어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이하 CPS)과 국별 프로그램 내용 자체의 적절성 및 일관성을 검토
 - CPS의 이행 기간 동안 해당 나라에서 시행된 원조 프로그램의 성과달성 정도를 측정하여 다양한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차기 CPS와 국별 프로그램의 성과목표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평가범위

- 본 평가는 다음을 연구범위로 설정함
 - 수원국 일반 현황 및 對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분석
 - 베트남 ODA 사업에 대한 평가 프레임워크 설정
 - 베트남 ODA 사업 및 시행기관의 역량에 대한 평가 실시
 - 베트남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 제언
- 평가의 시간적 범위: 베트남 ODA 종합평가는 2기 국가협력전략(2016-2020)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6-2018년까지로 설정함
 - 2015년 1기 국가협력전략(2011-2015) 종료 시 평가소위에서 베트남 CPS 종료평가를 실시한 바 있어, 그 이후 기간을 평가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
 - 1기 국가협력전략의 주요 사업 중 2기 국가협력전략에 성과가 나타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으로 포함시켜 개발효과성을 살펴봄

○ 연구수행절차

〈그림 1-2〉 연구 수행절차



*출처: 저자작성

제2절 평가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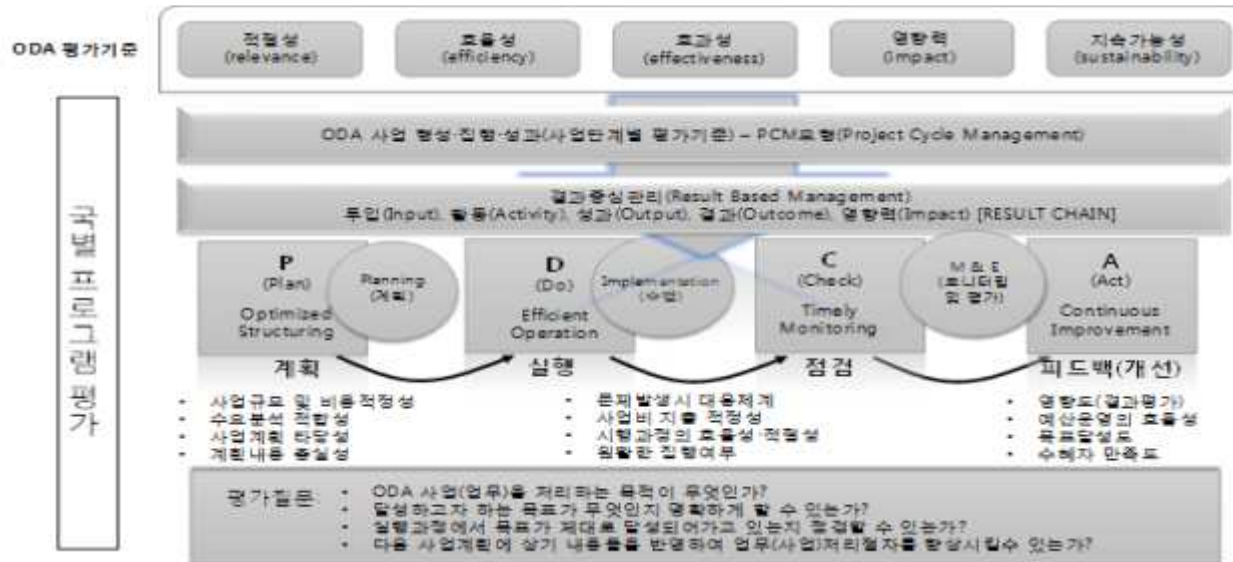
□ 베트남 국가 일반현황 및 국별협력전략 분석

- 문헌연구 및 베트남 전문가에 대한 국내인터뷰, 현지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베트남 정치, 경제, 사회 주요 지표를 분석하고, 특히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 2016-2020)의 핵심사항을 분석
- 베트남에 대한 지원규모가 큰 주요 공여국(일본, 세계은행, 독일)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전략적 포지셔닝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봄.

□ 베트남 ODA 사업평가를 위한 방법 및 기준·등급

○ 평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기획, 이행, 결과, 환류 등 단계별로 평가

〈그림 1-4〉 평가 프레임워크



○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모형

- 상기 평가 프레임워크의 논리에 기반해 종합평가 모형을 크게 ODA사업과 ODA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역량으로 구분하여 ODA 사업단계별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구성
- 사업계획의 적절성 차원에서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을 평가지표로 설정
- 사업수행의 적절성 차원에서 '사업수행의 충실성' 및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를 평가지표로 설정
- 사업결과의 타당성 차원에서 '사업 효과성 및 영향력' 및 '사업 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을 평가지표로 설정
- 기관수행체계의 적합성 차원에서 '기관 사업 수행추진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을 평가지표로 설정

〈그림 1-4〉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모형



○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평가등급

- 4등급 평가등급과 PI보드(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상호 연계한 평가결과 신호체계 구성
- 4등급 평가등급은 우수(91점~100점), 양호(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70점 이하)으로 구성. 즉 종합평가 결과점수(100점 만점)가 91점~100점은 우수 등급, 81점~90점은 양호 등급, 71점~80점은 보통 등급, 70점 이하는 미흡 등급으로 설정
- PI보드는 정부 사업에 대한 분기별 평가결과를 신호등처럼 ‘빨강(미흡)·주황(보통)·초록(우수)’의 3색으로 표시한 일종의 상황판임. 이는 미국 예산관리국(OMB)의 재정사업 상시점검제도인 ‘성과 대시보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산집행 대비 실질적인 성과달성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매일경제, 2013.09.12)
- 이를 준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등급을 4단계 평가등급으로 보다 정교화 하였으며, 우수 등급을 녹색, 양호 등급을 노랑, 보통 등급을 주황, 미흡 등급을 빨강으로 표시

〈표 1-1〉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평가등급(신호체계)

	우수(녹색)	양호(노랑)	보통(주황)	미흡(빨강)
				
평가점수	91점~100점	81점~90점	71점~80점	70점 이하

□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평정표 도출

〈표 1-2〉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평정표

평가기준(4)		평가지표(6)	배점	평정 점수
ODA 사업	사업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20	
		① 국별 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5	
		②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5	
		③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5	
		④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5	
	사업 수행의 적정성 (25)	사업수행의 충실성	22	
		①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일정준수, 예산집행, 산출물 달성도 종합판단)	15	
		②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 (리스크 관리)	7	
		사업 성과 달성의 난이도	3	
		① 사업의 난이도	3	
	사업 결과의 타당성 (35)	사업 효과성 및 영향력	25	
		① 계획 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정도 (성과(outcome) 달성도,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 향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사업만족도, 사업영향력 등 종합판단)	20	
		②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	5	
		사업 효과 측정 · 도출 과정의 합리성	10	
① 사업 효과 측정 · 도출을 위한 정량적 · 정성적 평가 방법론 적용 정도		5		
② 사업 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alue for Money)		5		
ODA 기관 역량	기관 수행 체계의 적합성 (20)	기관 사업수행 추진체계 및 업무자원의 적합성	20	
		① 사업수행 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13	
		②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국내기관 · 유무상사업 과 및 타 사업과의 연계 · 협조체제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수원국과 협력/민관협력 등)	7	
계			100	

□ 베트남 ODA 종합평가 평정기준³⁾ 및 세부평가내용 도출

○ 사업계획의 적절성

- **국별 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차원에서 ‘베트남 국가발전계획, 분야별 발전전략, 대 베트남 CPS 등이 사업계획에 반영된 정도’를 평정기준(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차원에서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체계적인 정도’,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의 내용이 충실하게 제시·설명된 수준’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활동·산출물·예산 등을 구성한 정도’,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체계적으로 제시된 수준’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일정을 수립한 정도’, ‘일정의 구체성 및 체계성 정도’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표 1-3〉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정기준

사업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① 국별 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국가발전계획, 분야별 발전전략, 대 베트남 CPS 등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었는가? - 우수 5점, 보통 4~3점, 미흡 2~1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②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 목표에 따라 세부사업의 내용이 충실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었는가? - 우수 5점, 보통 4~3점, 미흡 2~1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③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3) 본 베트남 ODA 사업에서는 각 평정기준(세부평가내용)을 종합고려하여 크게 3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 등을 구성하였는가? - 사업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는가? - 우수 5점, 보통 4~3점, 미흡 2~1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p>④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일정을 수립하였는가? - 사업일정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가? - 우수 5점, 보통 4~3점, 미흡 2~1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 사업수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성과 목표달성도[Output]) 차원에서 ‘계획대비 일정 준수 정도’, ‘계획대비 예산의 적정 집행 정도’, 계획대비 산출물 달성 수준’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 차원에서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해 사업리스크를 파악한 노력 정도’, ‘집행계획 변경/이해관계자 조정 등을 통해 파악된 리스크 대응 적절 수준’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수준**은 ‘사업의 난이도와 달성정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표 1-4〉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사업수행의 적정성 평정기준

사업 수행의 적정성 (25)	<p>사업수행의 충실성</p>
	<p>①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성과 목표달성도)/Outpu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일정을 준수하였는가? - 계획대비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가? - 계획대비 산출물을 모두 달성하였는가? - 우수 15~12점, 보통 11~8점, 미흡 7~5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p>②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가? - 집행계획 변경/이해관계자 조정 등을 통해 파악된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였는가? - 우수 7~6점, 보통 5~4점, 미흡 3~2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①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 (3점) 난이도 상(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달성도 상 - (2점) 난이도 하(DEEP, 기술협력-역량강화, 소규모 프로젝트)/달성도 상 - (2점) 난이도 상(프로젝트 사업)/달성도 하 - (1점) 난이도 하(자문, 연수, KSP)/달성도 하 - 우수 3점, 보통 2점, 미흡 1점

○ 사업결과의 타당성

- 계획 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정도(Outcome) 차원에서 '계획대비 성과(Outcome) 달성 정도', '수원국 국민편의 증진 기여 수준', '수원국 파트너기관, 수원총괄기관 등의 만족 수준', '수원국 사회·경제·환경 등에 미친 긍정적·부정적 효과', '상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제시 및 도출근거의 구체적 제시 수준'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 차원에서 '예산 투입 등 사업종료 이후 수원국이 인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도', '사업 혜택의 중장기적 지속가능 기대 정도'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 효과 측정·도출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정도 차원에서 '사업성과(Outcome) 측정지표 설정의 적절 정도', '산출이 아닌 성과(Outcome) 차원의 측정을 위한 내용 기술 수준', '성과(Outcome) 측정을 위해 평가방법론 등을 적용해 성과도출의 논거를 제시한 수준'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 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alue for Money, 비용 대비 효과, 비용 대비 편익 등) 차원에서 '비용 대비 효과/편익이 큰 사업 정도', '투입예산 대비 산출물 적절 도출 수준', '정해진 비용 대비 최상 결과 달성 정도'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표 1-5〉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사업결과의 타당성 평정기준

사업 결과의 타당성 (35)	사업 효과성 및 영향력
	① 계획 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정도/Outcome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 향후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사업만족도, 사업영향력 등 종합 판단) - 계획대비 성과(outcome) 달성하였는가? -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는가? - 수원국 파트너기관, 수원총괄기관 등이 만족하는가? - 수원국 사회, 경제, 환경 등에 직간접적으로 미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가? - 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제시가 있는가? 도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우수 20~17점, 보통 16~13점, 미흡 12~10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②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 - 사업 종료 이후 수원국이 인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예산투입 등)? - 사업의 혜택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우수 5점, 보통 4~3점, 미흡 2~1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사업 효과 측정 · 도출 과정의 합리성
	① 사업 효과 측정 · 도출을 위한 정량적 · 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정도 - 사업성과(outcome) 측정을 위해 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산출지표와 구분) - 산출이 아닌 성과(outcome) 차원의 측정을 위한 내용이 기술되었는가? - 성과(outcome) 측정을 위해 평가방법론(예.비용편익분석) 등을 적용하여 성과도출 의 논거를 제시하였는가? - 우수 20~17점, 보통 16~13점, 미흡 12~10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② 사업 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alue for Money ⁴), 비용 대비 효과, 비용 대비 편익 등) - 비용 대비 효과/편익이 큰 사업인가? - 투입예산에 비해 산출물이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 정해진 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를 달성했는가? - 우수 5점, 보통 4~3점, 미흡 2~1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4) 참고: DFID VfM 4E 접근법 (Economy)투입요소들이 적절한 가격에 책정되었는지, (Efficiency)비용-편익 관점에서 투입예산에 비해 적절하게 산출물이 도출되었는지, (Effectiveness) 산출물이 성과/영향력으로 전환된 정도, (Equity) 성과가 평등하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 기관수행체계의 적합성

- **사업수행 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차원에서 ‘시행업체/시행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조직의 구축 정도’, ‘시행업체/시행기관의 관련 사업 추진 전문인력 구비 정도’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국내기관·유무상사업 및 타 사업과의 연계·협조체제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수원국과 협력/민관협력 등)** 차원에서 ‘국내 사업수행기관, 수원국 파트너기관과의 연계·협조체제 구축 정도’, ‘시행기관(KOICA/EDCF/부처)의 사업관리 및 필요시 조정업무 수행 정도’, ‘유무상사업 연계,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개발효과성 달성 노력 정도’를 세부평가내용으로 설정

〈표 1-6〉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기관수행체계의 적합성 평정기준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20)	기관 사업수행 추진체제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
	① 사업수행 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 시행업체/시행기관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는가? - 시행업체/시행기관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가? - 우수 13~10점, 보통 9~6점, 미흡 5~3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②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국내기관·유무상사업 및 타 사업과의 연계·협조 체제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수원국과 협력/민관협력 등) - 국내 사업수행기관, 수원국 파트너기관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는가? - 시행기관(KOICA/EDCF/부처)은 사업관리 및 필요 시 조정업무를 잘 하였는가? - 유무상사업 연계, 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효과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는가? - 우수 7~6점, 보통 5~4점, 미흡 3~2점 (소수점 평정 가능/0.5점 단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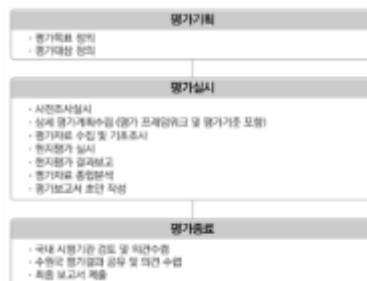
제3절 평가개요

1. 단계별 평가 수행절차

□ 본 연구는 베트남 ODA 사업 평가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평가기획, 평가 실시, 평가종료 등으로 구분하여 수행함

- 첫째, 평가기획 단계에서 먼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평가목표와 대상을 정의함
- 둘째, 평가실시 단계에서 국내에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상세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프레임워크와 평가기준을 합의함. 또한 문서자료 수집을 통해 기초조사를 실시함
- 또한 평가실시 단계에서 현지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 현지평가를 실시함
- 셋째, 평가종료 단계에서는 국내 시행기관 및 이해관계자들의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완성함⁵⁾

〈그림 1-5〉 단계별 평가 수행절차(안)



*출처: 김은주·이환성(2019:368)

5) 평가결과 보고서 초안에 대해 부처, 시행기관의 의견제기 절차를 수립하여 공지하고 2주간의 기간을 줌. 의견제기를 위한 양식과 제기절차 등을 공지하여 의견을 수렴함.

□ 평가기간: 2019.5.~2019.11 (총 7개월)

□ 평가대상 사업 선정기준

- 본 평가는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로서 평가대상 기간 내 모든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평가기간과 예산 등의 한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평가함

- 1차적으로 베트남 2기 국별협력전략의 중점분야인 공공행정, 교육, 물 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분야 및 민관협력방식 사업 중에서 대표사업을 선정함.
 - 평가의 시간적 범위가 2016년~2018년인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 내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평가대상사업을 선정
 - 1단계로 2016~2018년 전체 사업을 2기 국별협력전략의 4대 중점 분야별로 각 분야의 주요 지원방향에 맞춰 분류함(부록 1 참조).
 - 2단계로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에 비춰 적절성(relevance)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을 선정함. 또한 원조수단(유상 및 무상원조 방식), 시행기관(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별 대표적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함⁶⁾.
 - 3단계로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시행기관의 자료협조가 용이한 사업을 최종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6) 본 평가는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이지만 연구범위의 한계로 인해 전수조사가 아니라 대표사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함. 베트남에서 2016~2018년 3개년간 ODA 사업을 시행한 기관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만 24개에 달하지만 적절성,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수출입은행(EDCF),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세 개 기관의 사업 중 대표사업을 선정함.

〈표 1-7〉 베트남 ODA 종합평가 대상 사업 선정기준

- ① 중점분야별 대표 사업
- ② 협력국 국가발전전략에 비취 적절성(relevance) 높은 사업
- ③ 원조수단(유상 및 무상원조 방식), 시행기관(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별 대표적 사업

*출처:김은주·이환성(2019:347) 참고하여 본 평가범위에 맞게 재작성

- 1기 국별협력전략 기간에 실시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2016~2018년 기간 동안 사업이 종료되어 성과가 가시화된 사업도 평가대상으로 포함
- 민관협력 방식의 ODA는 베트남 2기 국별협력전략에서 주요한 이행방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별도의 주제(thematic)로 선정하여 평가대상에 포함
- 베트남 ODA 종합평가 평가대상사업
 - 위와 같은 단계별 과정을 거쳐 총 14개의 사업을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함

〈표 1-8〉 베트남 ODA 종합평가 대상 사업

No.	중점분야	주제	구분	사업명	시행기관
1	공공행정	공공행정/사법행정	무상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13-'17/954만불)	KOICA
	공공행정	공공행정/사법행정	무상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08-'12/300만불)	KOICA
2	공공행정	공공행정/전자정부	무상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13-'15/350만불)	KOICA
3	교육	직업훈련(TVET)	유상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EDCF
4	교육	직업훈련(TVET)	무상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지원사업('14-'17/600만불)	KOICA

No.	중점분야	주제	구분	사업명	시행기관
	교육	직업훈련 (TVET)	무상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2차지원사업 ('07-'08 230만불)	KOICA
	교육	직업훈련 (TVET)	무상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1차지원사업 ('97-'01/500만불)	KOICA
5	교육	직업훈련 (TVET)	무상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10-14/1,000만불)	KOICA
6	물관리보 건위생	상하수도	무상	베트남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09-'12/450만불)	KOICA
7	물관리보 건위생	상하수도	유상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09-'16/)	EDCF
8	물관리보 건위생	기초보건 위생	무상	베트남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연계사업	KOFIH
9	물관리보 건위생	전문병원 설립	유상	베트남 투안티엔hue 종합병원 건립사업 ('07-	EDCF
10	교통	철도	무상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15-'17/500만불)	KOICA
11	교통	도로	유상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7, 10구간) ('09-	EDCF
12	교통	교통	유상	호치민-쑹퐁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10-'16/)	EDCF
13	PPP	농업/민관 협력	PPP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14-'17/총 2,332백만원/KOICA 1,146백만원)	KOICA
14	PPP	보건/혁신	PPP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2016)	KOICA

□ 현지조사 개요

- 일시: 2019.8.25.~9.1
- 현지조사 절차를 평가주관기관인 국무조정실과 사전에 협의하여 수원 총괄기관, 베트남 현지 주재 시행기관, 수원기관 및 관련 부처 등 방문

○ 현지조사 대상사업

- 14개 평가대상사업 중 중점분야별로 대표사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함.
- 유상 및 무상원조가 개별 시행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로 2개씩 사업을 선정함.

〈표 1-9〉 베트남 ODA 종합평가 현지조사 대상 사업

No.	중점분야	주제	구분	사업명	시행기관
1	공공행정	공공행정/ 사법행정	무상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13-'17/954만불)	KOICA
2	교육	TVET	유상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EDCF
3	물관리 보건위생	상하수도	유상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EDCF
4	교통	철도	무상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15-'17/500만불)	KOICA

○ 현지조사 방법

- 이해관계자 면담을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를 사전에 전달하고 인터뷰를 진행함. 방문 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질문을 추가하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요청함 (상세 질문지 부록 참조)
- 인터뷰 외에도 수혜자그룹 FGI(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수혜 학생 대상 인터뷰),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하노이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설문조사) 실시.

○ 현지조사 상세일정 및 방문기관

- 현지조사는 베트남 대사관 및 현지 시행기관(KOICA, EDCF)과 협의 하에 일정을 결정하고, 현지 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수원기관 방

문 일정 및 면담의제 등을 조율함

〈표 1-10〉 베트남 ODA 종합평가 현지조사 일정 및 방문기관

날 짜	방문기관
8.26.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총괄기관(MPI, Foreign Economic Relations Dept.)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KOICA 베트남 현지사무소
8.27.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베트남 사무소 ■ 현지조사 1 (KOICA)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수원기관: 최고인민법원 산하 법원아카데미 사업지 방문 *수혜자 그룹 FGI 인터뷰
8.28.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2-1 (EDCF) 5개지역 한베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수원기관: 하노이 한베직업기술대학 방문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 요청 ■ 현지조사 2-2실시기관/PMU 노동보훈사회부, 직업훈련청 면담
8.29.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3 (KOICA)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수원기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도시 철도국(MAUR)
8.30.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조사 4-1 (EDCF)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지 ■ 현지조사 4-2 (실시기관: 룡안성 인민위원회)

제2장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및 한국 국가협력전략 분석

제1절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분석

1. 베트남 경제 현황

- (거시경제) GDP 성장률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대로 꾸준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1인당 GDP 역시 2010년 하위 중소득국(lower-middle income countries)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2,460 달러를 기록함.
 - 평가대상 기간(2016-2018)동안 GDP 성장률은 평균 6.4%, 1인당 GDP는 평균 2,315\$를 기록함.
 - 2020년에는 고중소득국(UMIC)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음(KOICA, 2017).

- (산업구조) 베트남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베트남 산업구조는 1차 산업 14.57%, 2차 산업 34.28%, 3차 산업 41.17% 로 구성됨. 베트남은 전통적인 1차 산업, 농업국이었으나 최근에 제조업, 서비스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음(베트남 통계청).⁷⁾

7)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76 (최종 검색일: 2019.7.25.)

〈표 2-1〉 베트남 주요 경제 지표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GDP 성장률(%)	5.98	6.68	6.21	6.7	6.3
1인당 GDP(달러)	2,051	2,109	2,215	2,301	2,460
소비자물가상승률(%)	4.1	0.6	2.7	4.9	4.8
산업생산증가율(%)	7.6	9.8	7.3	7.5	6.5
실업률(%)	3.40	3.37	3.23	3.18	2.2
동-달러 환율(VND)	21,246	21,890	22,790	23,208	24,258
무역수지(억, 달러)	24	-36	18	29	68
수출액(억, 달러)	1,502	1,620	1,766	2,140	2,435
수입액(억, 달러)	1,478	1,656	1,748	2,111	2,367
FDI 투자금액(백만 달러)	20,230	24,115	22,378	30,700	25,573
FDI 투자건수(건)	2,182	3,038	3,862	3,975	4,215

*출처 : 국제금융기구(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 통계총국(GSO)
 (https://www.adb.org/data/statistics,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80)

○ (외국인 직접투자) 〈표 2-1〉에서 베트남 내 FDI의 투자 건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음을 보여줌.

- 2018년 기준 베트남 국내 기업군은 수출액 30%인 719억 달러, FDI 기업군은 국내 기업군의 2배 이상인 70%인 1,715억 달러를 차지.
- 특히 제조업 기반의 FDI 기업의 수출 확대로 전자, 섬유 등의 노동 집약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함.
-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함.

○ (인구 특성) 2017년 기준 베트남 내 만 15세 이상 노동가능인구는 5,480만 명이며 2016년 대비 378만 5천 명이 증가

- 이 중 남성 노동인구는 51.9%이며 여성 노동인구는 48.1%로 남녀 비율 간 큰 격차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반면에 도시 내 노동인구는 32.2%이며 농촌 내 노동인구는 67.8%으로 베트남 내 노동인구가 도시보다 농촌에 2배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General Statistics Office, 2017)⁸⁾.

○ (한-베 교역 현황) 2018년 기준,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486억 2900만 달러, 수입액은 21.4% 증가한 196억 320만 달러로 총 682억 60만 달러의 교역 규모임

- 베트남은 한국의 3위 수출국이자 7위 수입국임. 2018년 기준, 290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에 무역 흑자를 주고 있는 대상국가임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호치민한국지상사협의회, 2019).

〈표 2-2〉 한국-베트남 교역 동향

(단위 : US \$ 100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출(한→베)	22,352 (6.0)	22,771 (24.2)	32,630 (17.5)	47,749 (46.3)	48,629 (1.8)
수입(베→한)	7,990 (11.4)	9,805 (22.7)	12,495 (27.4)	16,176 (29.5)	19,632 (21.4)
무역수지	14,362	17,966	20,135	31,573	28,997
교역규모	30,342	32,576	45,125	63,925	68,260

*출처 : 2018년 베트남 및 한-베 수출입 동향

○ (수출현황) 2018년 기준 다른 수출품목에 비해 반도체(22.5%),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18.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8)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83

(최종검색일: 2019.7.25.)

- 이는 한국 전자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면서 전자제품 생산을 위한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 점차 베트남으로 휴대폰 생산거점이 이동하면서 2017년 대비 2018년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이 감소

2. 베트남 사회발전 현황

- (주요 사회발전 지수) 베트남의 기대수명, 평균 교육 기간,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함.
 - 반면에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는 미비한 성장을 보이고 있음
 - 사회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또한 2010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2016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음. 이를 통해 베트남 내의 절대 빈곤율은 감소하였으나 취약지역, 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 베트남 주요 사회지표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
기대수명(세)	74.3	75.1	76.1	76.3	76.5
평균 교육기간(년)	6.4	7.5	8.0	8.1	8.2
인간발전지수(HDI)	0.616	0.654	0.684	0.689	0.694
지니계수	35.6	39.3	35.6	34.8	35.3
1인당 국민총소득(GNI) (2011년 PPP\$ 기준)	3,348	4,241	5,263	5,589	5,859

*출처 : UNDP (<http://hdr.undp.org/en/data>)

- (빈곤율) 베트남 국가 전체 내의 빈곤율을 2012년 11.1%에서 2016년 5.8%로 감소하였으며 도시와 농촌 지역 내의 빈곤율 모두 감소함.

〈표 2-4〉 베트남 빈곤율(%)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베트남 국가 전체 내	11.1	9.8	8.4	7.0	5.8
도시 지역 내	4.3	3.7	3.0	2.5	2.0
농촌 지역 내	14.1	12.7	10.8	9.2	7.5

*출처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 2017(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83)

- (교육) 베트남은 보편적 초등교육을 달성하였으며 여아와 남아 간의 초등학교 등록률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음. 오히려 중등교육의 보편화, 질적 개선 등을 위해 노력 중임.

〈표 2-5〉 베트남 주요 교육 지표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학교 등록률(%)	106.831	107.384	109.207	108.715	109.97	107.918
초등학교 여학생 등록률(%)	106.994	105.932	108.472	108.266	110.125	108.19
초등학교 남학생 등록률(%)	106.677	108.745	109.893	109.131	109.828	107.669

*출처 : World 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NAHC?end=2012&locations=VN&start=2012&view=chart>)

- (보건) 베트남 정부는 보건 인프라 개선 및 보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진행하여 보건분야에서 성과를 보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아 사망수는 꾸준히 감소하였음 2016년까지의 모성 사망률 또한 꾸준히 감소.
 -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베트남 내 기초 식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과 기본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의 비율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

- 이를 통해 베트남 내의 전반적인 보건 분야의 개선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취약 지역의 보건 불평등 문제를 지니고 있음.

〈표 2-6〉 베트남 주요 건강 지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아 사망수 (명)	27910	27675	27271	26736	26124
모성 사망률 (1000명 당)	67.9	67.2	66.4	65.7	-
기초 식수 서비스 이용 가능인구 비율(%)	89.1	89.9	91.2	-	-
기본 위생시설 접근가능인구 비율(%)	75.1	76.7	78.2	-	-

출처 :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NAHC?end=2012&locations=VN&start=2012&view=chart>)

- (양성평등) 양성평등을 위한 국가전략 2011-2020 (National Strategy on Gender Equality 2011-2020)을 수립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줌.
 - 위에서 살펴본 베트남 주요 교육 지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아와 남아의 초등학교 등록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음
 - 교육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11년 기준 24.4%에서 2018년 기준 26.7%로 상승(World bank)⁹⁾.
 - 다만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업, 낮은 임금, 승진 기회 등과 같은 성차별 문제와 가정 내 폭력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KOICA, 2017).

9)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NAHC?end=2012&locations=VN&start=2012&view=chart> (최종검색일 : 2019.7.25.)

3.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1) 베트남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 베트남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은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3,200 달러 달성과 현대화된 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함.
 - SEDS 2011-2020의 주요 목표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
- (전략 주요 내용)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경제 개혁을 이뤘고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의 질,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취약함을 문제점으로 지적받았음.
- 이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생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발전의 방향을 추구하며 경제 및 정치를 재편하고자 함. 더 나아가 베트남 경제발전에 있어서 국가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물질,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Vietnam Government).
- 베트남 정부는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고자 경제, 정치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며 개발의 효율성,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자 함. 이를 기반으로 베트남은 국제 사회에 통합하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동시에 독립성 또한 유지하고자 함.
- SEDS는 위와 같은 다양한 목표들을 <표 2-6>과 같이 경제, 사회문화, 환경적 목표로 구분하여 설명하며 이는 5개년 단위 사회경제개발계획

(SEDP)에서 보다 구체화됨. 대부분의 목표를 수치화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으며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 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표 2-6〉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의 3가지 목표

경제적 목표	사회문화적 목표	환경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보호, 녹색경제개발 강조 •산업의 질적 개선, 경쟁력 강화 •제조업, 서비스업 구조조정 •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거시경제 안정화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산업, 농업, 서비스 경제구조 구축 •연평균 GDP 성장률 7-8% 달성 •1인당 평균 GDP 3,000달러 달성 •사회주의 시장경제 규제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개발지수(HDI) 세계 중상위 그룹 도달 •인구 증가율 1.1% 안정화 •기대수명 75세 보장 •10,000명당 9명 의사, 26개 병원 침대 보장 •지역사회 안보, 복지 보장 •빈곤 인구 2-3% 감소 •2010년 대비 국민 실질소득 3.5배 증가 •지역, 인구 집단 간 소득 격차 감소 •현대화, 산업화를 위한 진보된 교육, 과학 기술 강조 •모든 이들을 위한 의료보험 보장 •훈련된 노동자 70%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 보호 구역 비율 45%로 상향 조정 •깨끗한 물 접근 인구비율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80% 이상 제조 시설 환경 기준 충족 •오염 지역 환경 복구 •자연재해 등 위험요소 제한 •기후변화 (특히 해수면 상승) 효과적 대처 지원

* 출처 :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eriod Of 2011-2020 내용 재정리

- SEDS는 개발의 방향성을 크게 12가지로 제시함. 이를 정리하면 <표 2-7>과 같음. SEDS는 이러한 발전의 지향들은 시장, 정부의 역할 재정립, 행정 개혁, 부패와 낭비 철폐, 정부의 지도력 강화 등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Vietnam Government).

<표 2-7> SEDS 개발 방향성

1	사회주의 시장경제제도 개선, 거시경제 안정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2	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의 질적 개선, 경쟁력 강화
3	농업의 현대화, 지속가능성 우선적 고려
4	높은 수준의 서비스 산업 구축
5	교통과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6	도시와 농촌 간 균형있는 발전
7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포괄적 발전 추구
8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
9	교육, 훈련을 통한 고급 인력 육성
10	과학과 기술발전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 개선
12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 보장, 국제사회 내 베트남의 통합과 독립성 확보

*출처 :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eriod Of 2011-2020 내용 재정리

- <표 2-8>은 베트남 SEDS에 제시되어 있는 개발 방향성 12가지를 우리나라의 2기 베트남 국별협력전략의 4대 중점지원분야인 공공행정, 교육, 물 관리 및 보건 위생, 교통 분야에 일치하는 항목들을 연결시켜 정리하였음.
 - SEDS 개발 방향성 1, 2, 7, 12는 공공행정 분야에
 - 9, 10은 교육 분야에
 - 8, 11은 물 관리 및 보건 위생 분야에
 - 그리고 5는 교통 분야와 연결.

〈표 2-8〉 베트남의 SEDS 개발 방향과 우리나라의 4대 중점지원분야

베트남 2기 국가협력전략 4대 분야	SEDS 12대 개발방향성	주요내용
공공행정 분야	SEDS 개발 방향성 1	사회주의시장경제제 제도 개선, 거시경제안정화, 자원의 효율적 이용
	SEDS 개발 방향성 2	산업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산업의 질적개선, 경쟁력 강화
	SEDS 개발 방향성 7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포괄적 발전 추구
	SEDS 개발 방향성 12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 보장, 국제사회내 베트남의 통합과 독립성 확보
교육 분야	SEDS 개발 방향성 9	교육, 훈련을 통한 고급 인력 육성
	SEDS 개발 방향성 10	과학과 기술발전
물 관리 및 보건 위생 분야	SEDS 개발 방향성 8	보건 의료 시스템 개선
	SEDS 개발 방향성 1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호, 개선
교통 분야	SEDS 개발 방향성 5	교통과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2) 베트남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 베트남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빈곤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 2011-2020년의 하부 계획인 사회경제개발계획 (SEDP) 2016-2020을 수립함.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에 따르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 소득 3,200-3,500 달러와 연평균 6.5%-7%의 경제 성장을 달성을 목표로 현대화된 산업국가로 도약하고자 함(관계부처합동, 2016).

○ SEDP 2016-2020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6).

- 거시경제 안정화 및 경제 성장률 제고, 경제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변화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안전, 복지, 삶의 질 개선, 자연 재해 등의 기후변화 대처 및 환경보호 등
- 그 밖에 국가안전 보장, 외교업무 및 국제통합 활동 강화, 국가 보호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국제사회에서의 국제적 지위 향상 및 선진 공업국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설정함

○ 위와 같은 다양한 목표들은 크게 경제, 사회, 환경적 목표로 구분할 수 있음(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6).

- 경제적 목표로는 5년 내 1인당 국민 소득이 3,200-3,500달러, 연 평균 성장률 6.5-7% 달성, 국가 재정 적자 4% 미만 등
- 사회적 목표로는 도시 내 실업률 4% 미만, 베트남 국민의 80% 이상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하는 등의 목표를 설정함.
- 환경적 목표로는 2020년까지 유해 폐기물의 85%, 의료 폐기물의 95% 이상이 처리되도록 하고자 하며 정수된 물에 대한 접근 인구 비율이 도시에서는 95%, 농촌에서는 90%까지 달성하고자 함

〈표 2-9〉 SEDP의 3가지 목표

경제적 목표	사회문화적 목표	환경적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연평균 6.5-7% 성장 • 1인당 GDP 약 3,200-3,500 달러 달성 • 산업, 서비스 부문 차지 비율 85% 확보 • 사회투자 부문: GDP의 약 32-34% 확보 • 국가예산 적자: GDP 4% 미만 유지 • 총요소생산성(TFP): 경제성장의 30-35%에 기여 • 사회노동생산성: 매년 약 5% 씩 증가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연평균 1-1.5% 감소 • 도시화 비율 38-40%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종사 인구 40% 유지 • 훈련된 노동자 65-70% 확보 (이 중 공인된 노동자 25%) • 도시 내 실업률 4% 미만 유지 • 80% 이상 인구의 의료보험 보장 • 빈곤한 가구의 비율 연평균 1.0-1.5%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한 물 접근 가능한 인구 비율 (도시 95%, 농촌 90%) 달성 • 유해 폐기물의 85% 이상, 의료 폐기물 95% 이상 처리 • 삼림 보호 구역 42%로 보존

*출처 :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내용 재정리

4. 베트남 수원체계 변화

○ (수원체계 변화)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를 중심으로 원조가 계획 및 조정되며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에서는 원조 예산 배분과 채무 관리를 담당. 중앙은행은 다자채무를, 외무부는 ODA 창구 역할로 수원체계가 구성됨(관계부처 합동, 2016).

- 따라서 기존의 수원총괄부처인 기획투자부와 더불어 재무부의 승인을 거쳐야만 원조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원조 관련 법제도 변화) 2016년부터 베트남은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서 ODA 관련 법령을 정비함. 공공투자법을 제정하여 중기재정계획

(Midterm Public Investment Plan)을 수립하고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시작함.

- 원조사업이 중기재정계획 내의 대상사업이 되어야만 추진할 수 있음

○ (베트남 ODA 승인절차 변화) 2016년 이후 ODA 프로젝트 제안서에 대해 총리 승인을 거쳐야만 하고, ODA 사업으로 승인된 이후에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투자계획에 대해 총리 승인을 거쳐야만 함.

- 이로 인해 유상원조의 경우 특히 프로젝트 승인 및 집행 절차가 복잡해짐. 2016년 이후 신규승인된 유상원조 프로젝트는 극소수에 불과함¹⁰⁾.

〈그림 2-1〉 베트남 유상원조 ODA 승인절차



○ 2016-2020년 ODA 및 우대차관 운영 방안(Decision No.251/QD-TTg)에서 ODA 자금을 무상원조, ODA 차관, 우대 차관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원조의 형태에 따라 우선적으로 운용되는 사업의 조건들을 명시함.

10)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인터뷰 2019.8.26.

〈표 2-10〉 원조 형태별 우선 운용사업 내용

구분	우선 운용사업
무상원조(증여)	- 정책 수립, 체제발전, 인력강화 지원 프로그램
	-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ODA 차관	- 국가인프라 구축 사업(교통·전기·수자원·통신 등) 중 우선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있으나, 직접적 자금상환 가능성이 없는 사업
	- 경제·사회적 이익을 주된 목표로 하며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사업
	- 민영화 방식 또는 민간 사업자를 통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종에 대해서는 ODA 차관 도입을 제한
우대차관	- 자금상환 가능성이 있는 사업
	- 민관협력사업(PPP) 포함, 민간부문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젝트

* 출처: 베트남 국가개발계획, KOTRA

- 또한 ODA 사업의 조건부 차관이나 수주자 지정 차관을 도입하기로 함. 천재지변, 총리 결정 사업, 해외 공여자의 재화 및 설비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기술이나 가격 면에서 월등함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차관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
- 차입금 분배 및 지원 방식도 변경함으로써 국가 재정지출 부담을 감소시키고 ODA 자금 사용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차입금의 용자방식 지원을 확대하기로 함.
- 베트남 정부의 2016~2020 ODA 정책에 따르면 연평균 6.5%~7% 경제성장을 위해서 총 4,8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에 395억 달러(8.2%)가 ODA를 통해 충당할 계획임. 총 필요재원 중 75%는 국내 재원으로 25%는 해외투자 재원으로 충당 예정

- (유상 및 무상원조 지원 분야) 전체 원조 중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율을 보면 81%가 유상원조이고 무상원조가 19%임(EDCF, 2019)¹¹⁾
- 베트남 정부는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 분야를 지정하였음. 무상원조는 정책 및 제도개선, 인적자원 개발, 보건, 환경보호, 산악지대 및 소외지역 주거환경 개선, 과학기술 혁신, PPP 프로젝트를 위한 준비 등에 우선 지원하도록 함.
- 유상원조는 인프라(도로, 항만, 공항, 전기), 도시개발(수자원, 상하수도), 농촌개발, 환경, 보건,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에 우선 지원하도록 함¹²⁾.

11) 2013~2017년 지출액 기준으로 유상원조는 16,150 million 달러, 무상원조는 3,880 million 달러임(EDCF, 2019 현지조사 수집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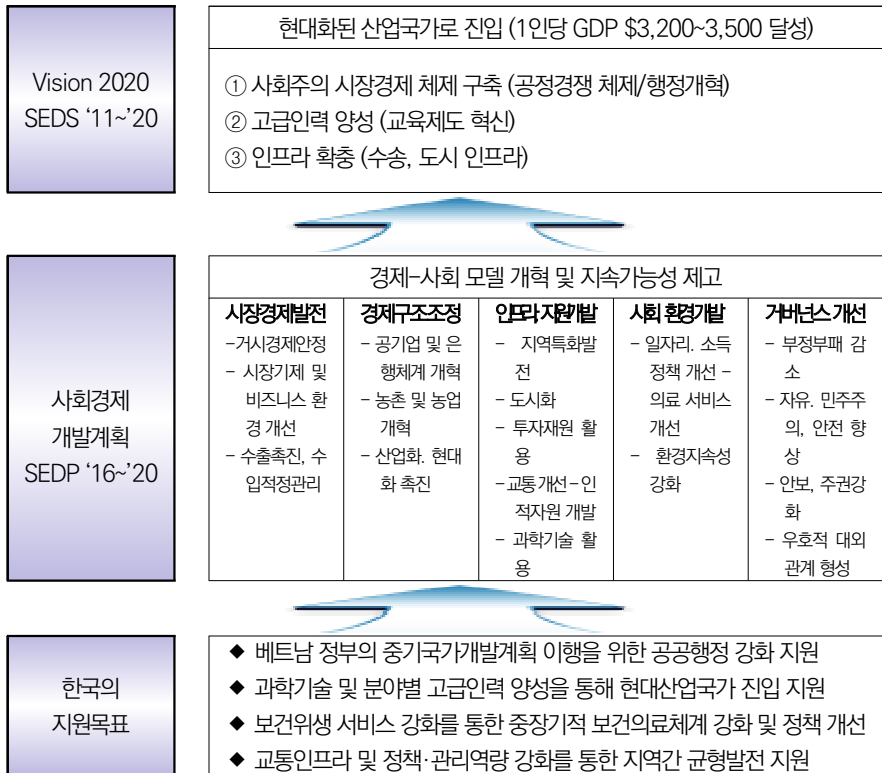
12) 현지조사 수집자료 EXIM Bank(2019)

제2절 한국-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목표체계도 분석

1. CPS 2016-2020 목표 체계도

- 우리나라의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르면, 베트남 사회경제개발전략(SEDS, 2011-2020)과 하부 계획인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SEDP, 2016-2020)에 따라 베트남의 현대 산업 국가로의 진입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림 2-2〉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2016-2020 목표체계도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공공 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환경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 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 기관 설립
	물관리 및 보건 위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보건위생 증진 지원 ▪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전문병원설립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지원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 및 관리역량강화 ▪ 철도(메트로 포함) 분야 협력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 우리나라의 베트남 중점협력분야는 크게 4가지로 교통, 공공행정, 물 관리 및 보건 위생 그리고 교육에 집중하여 목표를 설정함
- 교통의 경우 철도, 항만, 내륙수로 등 종합적인 국토 개발을 위한 교통 정책과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고속도로를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공공행정의 경우 베트남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경제, 사회 모델을 개혁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
 - 물 관리, 보건 위생에 있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물, 질병 관리 역량을 강화하며 폐기물 시설을 확충하거나 전문 병원을 설립하는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현대 산업 국가에 적합한 고급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또한 지원하고자 함.

2. CPS 2016-2020 결과틀(result framework)

○ 2기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틀이 포함됨.

〈표 2-11〉 베트남 CPS 결과틀(result framework)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전략(2011~2020) / 베트남 경제사회개발계획(2016~2020) : 현대화된 산업국가 진입 달성 / 경제-사회 모델 개혁 및 지속가능성 제고				
CPS 목표 : 분야별 목표				
중점 분야	분야별 목표	분야별 제약요인	분야별 성과	평가 지표
교통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개선 및 향상을 통한 연결성 향상 ○ 다양한 교통 인프라 시설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인프라 이용 및 의존도가 도로에 편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환경 개선 및 교통인프라 구축 	<p>CPS 적합성 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 달성에 적절히 발굴되었는지 여부</p> <p>사업 정상 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p>
공공행정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의 중기 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강화 ○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시스템지원 및 비즈니스환경 개선 ○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특수한 구조와 상황에 맞게 재해석 및 적용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환경 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세부전략 및 계획 수립 - 관련인력양성 - 모범사업사례 창출 및 전파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 및 질병관리 역량 강화 ○ 안정적인 취수원 및 상수도 시설의 보급을 통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열악한 물 관리 인프라 - 지역간 및 보건위생인프라 수준이 편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이슈를 포함한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 기초 보건위생서비스 접근성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위생체계 강화와 정책 개선		항상 -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
교육 분야	○ 다양한 산업화 고급 인력 육성 ○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의 사회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계획경제 체제에 따른 민간부문(기업 및 전문가)의 기술선도 역량 미약 - 국외정(공기업-민간기업간)의 미흡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인해 특정 기술 및 기술자에 대한 집중투자 환경 부재 - 명확하지 않은 공산당 및 정부부처 간 업무분장으로 인한 통일된 고급인적자원 육성전략 부재 - 관련 법률 제정 필요 - 관련 시행부처의 전문성 미흡 - 취약계층의 학습역량 제한으로 인한 취업연계 성과 달성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양성 시설 구축 - 인력교육 콘텐츠 및 자료화 - 고급인력 기대역량 달성도 - 취약계층에 제공된 교육 기회 - 교육 후 취업, 학업 지속 등 교육 성과 활용

3. CPS 성과프레임워크 재구성 및 평가대상 사업 연계

VIETNAM Country Programme Evaluation Logic Model / Framework for Goal of CPS							
Ultimate Outcome (Impact)	베트남 사회경제발전전략(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2011-2020 - CPS 최상위 목표 일치해야 함						
[VIETNAM SEDS 2011-2020] Modernized Industrial county by 2020							
Intermediate Outcome	베트남 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 SEDP 2016-2020 - CPS 분야별 목표와 일치해야 함						
[베트남 CPS 목표 1] 베트남 정부의 중기국가개발계획 이행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지원	[베트남 CPS 목표 2] 과학기술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을 통해 현대산업국가 진입 지원		[베트남 CPS 목표 3] 보건위생 서비스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책 개선		[베트남 CPS 목표 1] 교통인프라 및 정책·관리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1. Strengthened government capacity for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velopment plan		2. Improved capacity of human resou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high-skilled		3. Strengthened Health Service System by providing improved health and sanitary service		4. Improved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rovinces through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VIETNAM SEDP 2016-2020 Target							
		Average social labour productivity will grow by about 5% per annum.		By 2020 achieve 9 - 10 doctors and more than 26.5 patient beds per 10,000 people.		Urbanization ratio by 2020 reaches 38 - 40%.	
		Percentage of trained labour by 2020 will be about 65 - 70%, in which certified labour: 25%.		Health insurance coverage by 2020 will be above 80% of population.			
		Unemployment rate in urban area will be below 4% by 2020.		Percentage of hazardous waste treated by 2020 at 85%.			
				Percentage of population who have access to clean water by 2020 will be 95% in urban areas, and 90% in the countryside.			
Immediate Outcome							
1.1. Improved capacity of selected public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public financial and economic management for market economy	1.2. Improved capacity of selected public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legislative development and rule of law	2.1. Improved capacity of selected education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raining high-skilled human resources	2.2. Increased access by targeted groups in selected provinces to science and technology training	3.1. Increased access by targeted groups in selected provinces to clean water and sanitation facilities	3.2. Increased access by targeted groups in selected provinces to health services	4.1. Increased access by targeted groups in selected provinces to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4.2. Improved capacity of selected public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infrastructure management
Sector							
Governance		Education		Water, Health & Sanitation		Transportation/Infrastructure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13-'17/954만불)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 사업		베트남 부은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09~'12/450만불)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15-'17/500만불)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 ('08-'12/300만불)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지원사업('14-'17/600만불)		호아판띠에이 상수도 건설사업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7, 10구간)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13-'15/350만불)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10-'14/1,000만불)		KOFIH 베트남 의료시설 건립 운영 유무상연계사업		호치민-중흥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베트남 투안티엔체 종합병원 건립사업			
Thematic							
PPP		Innovation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14-'17/총 2,332백만원/KOICA 1,146백만원)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					

제3절 2016-2018 한국 베트남 ODA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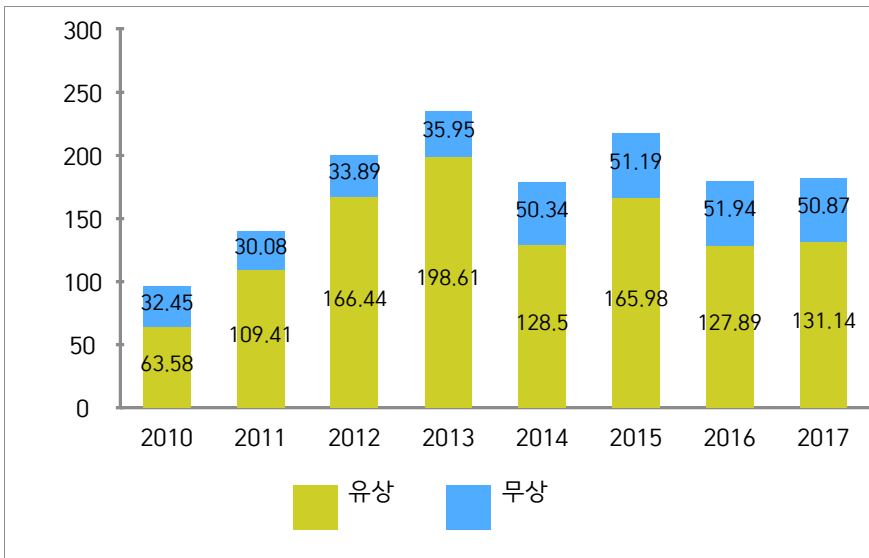
1. 베트남 ODA 지원 개요

○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이후 베트남에 대한 ODA 유상 및 무상 원조가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음. 유상원조의 규모가 무상원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유상원조 총액이 13억 5천 2백 만 불에 달하며 무상원조 총액은 4억 8천 만 불에 달함
- <그림 2-3>를 통해 알 수 있듯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베트남에 지원된 무상원조는 총 3억 3,674만 달러 규모이며 유상원조는 총 10억 9,155만 달러가 지원됨(관계부처합동, 2016).

<그림 2-3> 우리나라 베트남 총 지원실적 (총지출기준)

(단위: million dollars)



*출처: OECD Stats (<https://data.oecd.org/>)

○ 우리나라의 베트남 ODA 현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13>과 같음

-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나라의 베트남 분야별 총 지출액은 운송 및 창고(transportation)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는 보건, 식수 공급 등이 있음.
- 2018년 우리나라의 베트남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 인프라 서비스가 6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뒤로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18%, 다부문 7%에 지원됨¹³⁾.
- 최근에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중 특히 교통 분야 개발 컨설팅(DEEP) 사업 및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지원이 증가함.

<표 2-12> 우리나라 - 베트남 양자 분야별 총 지출액

(단위 : US \$ 100만)

	연도별								총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운송 및 창고	46.85	85.71	102.85	149.85	101.01	117.64	96.69	87.17	787.79
보건	25.68	18.81	33.82	20.46	14.64	8.92	7.78	18.41	148.52
식수공급	7.46	5.64	7.76	18.04	15.67	33.32	22.59	29.95	140.42
교육	3.82	19.65	10.46	14.70	20.62	19.70	22.26	15.03	126.24
다부문	3.28	3.53	37.58	23.70	8.55	19.14	12.11	12.15	120.08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2.17	3.13	2.76	4.46	5.27	6.61	5.92	4.68	34.99
통신	7.65	5.60	7.58	0.99	5.64	1.65	1.01	0.55	30.68
공업	0.18	0.68	1.11	4.02	6.82	8.19	5.28	3.31	29.60

13)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

(최종 검색일: 2019.7.25.)

	연도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합
농업	0.74	1.39	1.76	2.55	3.85	5.10	4.87	6.24	26.50
기타 사회인 프라및서비스	1.64	1.18	1.09	1.83	1.84	1.62	1.63	2.37	13.19
에너지 생산 /분배/효율 성	-	-	-	-	-	2.00	1.57	2.50	6.08
건설	0.04	0.05	0.05	0.05	0.48	0.06	1.23	2.26	4.21
비즈니스 및 기타서비스	0.70	0.34	0.02	0.29	0.36	0.55	0.74	0.84	3.84
통상정책 및 규정	0.09	0.11	0.13	0.26	0.47	0.49	0.08	0.09	1.72
인도적 자원	0.13	0.21	-	-	-	-	0.30	1.00	1.63
비배분/비 특정	-	0.01	-	-	0.27	0.26	0.26	0.41	1.21
금융 및 재무 서비스	-	-	0.05	0.02	0.42	0.29	0.33	-	1.11
어업	0.01	0.14	-	-	0.09	0.10	0.07	0.10	0.51
임업	-	0.10	0.01						0.12
원조국 행정 비용	-	-	-	-	0.08	-	-	-	0.08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ODA통계 재정리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2. 4대 중점분야 및 각 분야별 지원현황

- 우리나라의 베트남 4대 중점 협력분야(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교육, 물
관리 및 위생, 교통)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사업개수를 보면 2016년 기준 교육(55개),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50
개), 물 관리 및 위생(45개), 교통(24개) 순으로 지원 비중이 높음.

2017년의 경우, 교육(53개), 물 관리 및 위생(49개), 공공행정 및 시민 사회(38개), 교통(25개) 순으로 비중이 높았으며 2018년의 경우 물 관리 및 위생(57개), 교육(55개),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37개), 교통(29개) 순으로 비중을 두고 지원함.

〈표 2-13〉 4대 중점분야별 베트남 ODA 지원현황

(단위: million dolla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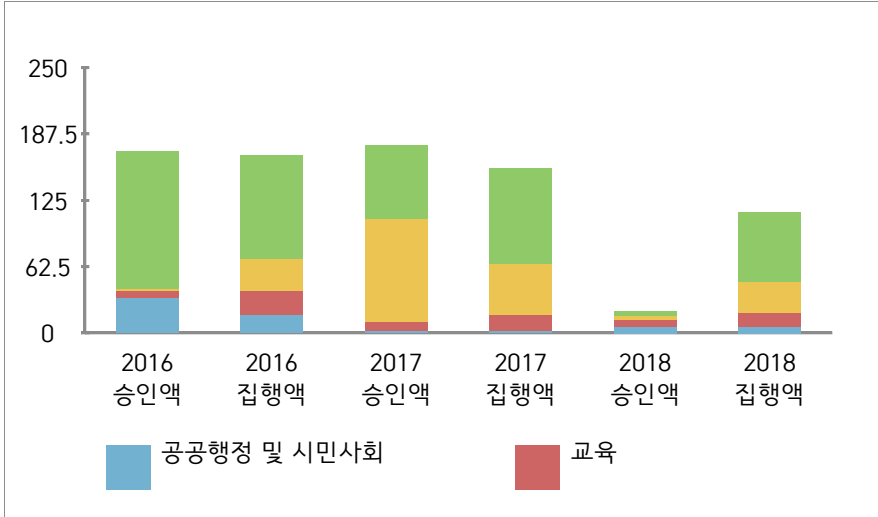
4대 중점분야별	2016			2017			2018		
	개 수	지원액		개 수	지원액		개 수	지원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50	32.73 (19%)	16.88 (10%)	38	1.77 (1%)	1.66 (1%)	37	5.47 (27%)	5.45 (5%)
교육	55	6.54 (4%)	22.26 (13%)	53	8.23 (5%)	15.03 (10%)	55	6.69 (33%)	12.72 (11%)
물 관리 및 위생	45	1.87 (1%)	30.37 (18%)	49	97.21 (55%)	48.36 (31%)	57	3.25 (16%)	29.20 (26%)
교통	24	130.09 (76%)	97.98 (58%)	25	69.34 (39%)	89.43 (58%)	29	4.94 (24%)	66.52 (58%)
총합계	174	171.23 (100%)	167.42 (100%)	165	176.55 (100%)	154.48 (100%)	178	20.34 (100%)	113.88 (100%)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 그러나 승인액 및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교통 분야의 사업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교통 분야의 승인액, 집행액 모두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4〉 4대 중점 분야별 승인액 및 집행액

(단위: million doll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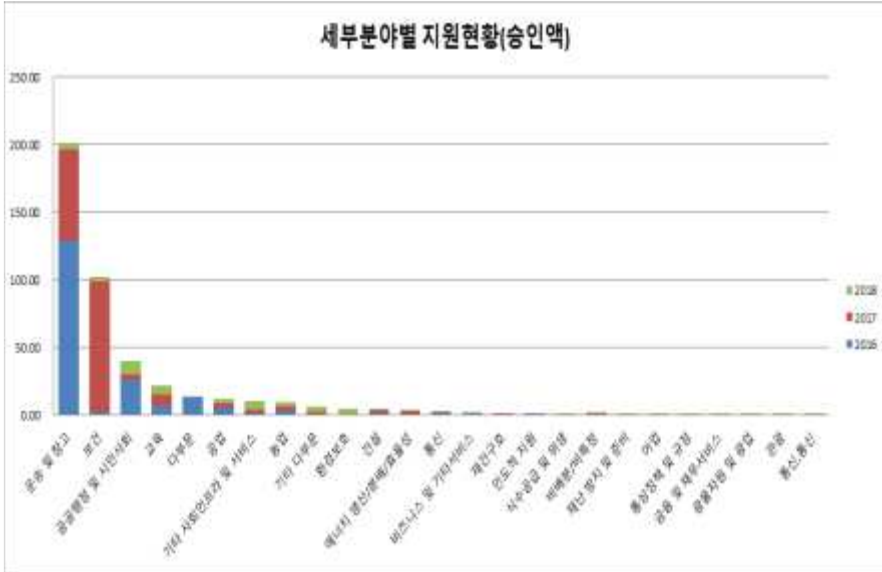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 다음 〈그림 2-5〉, 〈그림 2-6〉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우리나라의 베트남 지원현황을 4대 중점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세부 분야별로 구분하여 지원액(승인액, 집행액)을 보여주고 있음.
- 2016-2018년 동안의 승인액을 기준으로 보면 운송 및 창고,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순으로 승인액이 높았음. 지출액을 기준으로 보면, 운송 및 창고, 식수공급 및 위생, 교육, 보건,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순으로 나타남.

〈그림 2-5〉 세부분야별 지원현황 (승인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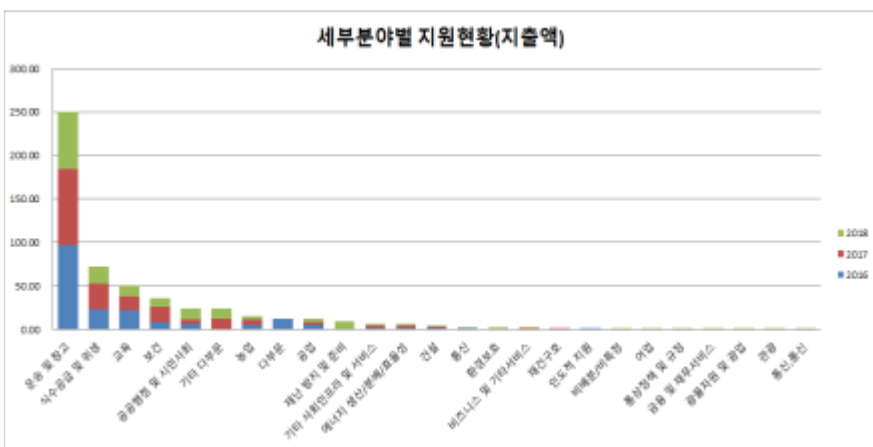
(단위: million dollars)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자료

〈그림 2-6〉 세부분야별 지원현황 (지출액 기준)

(단위: million dollars)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자료

- <표 2-14>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지원하는 중점 협력 분야를 4가지 (공공행정 및 시민사회, 교육, 물 관리 및 위생, 교통)로 축소하고 그 외의 기타 분야로 구분함.
- 2016년, 2017년의 승인액, 집행액 모두 중점협력 4대 분야에 70%가 지원되었음. 2018년의 경우는 4대 분야가 아닌 그 외 기타분야의 승인액이 58%를 차지하였으나 집행액을 기준으로 4대 중점협력 분야에 70%, 그 외 기타 분야에 30%로 지원이 분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2기 CPS 전략에 따라 4대 중점분야에 집중하여 사업을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2-14〉 4대 분야별 및 그 외 기타분야 구분

(단위: million dollars, (%))

4대 분야 및 그 외 기타분야	2016		사 업 개 수	2017		사 업 개 수	2018			
	사업 개수	지원액		승인액	집행액		사업 개수	지원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공공행정및시민 사회	50	32.73 (17)	16.88 (9)	38	1.77 (1)	1.66 (1)	37	5.47 (11)	5.45 (3)	
교육	55	6.54 (3)	22.26 (12)	53	8.23 (4)	15.03 (8)	55	6.69 (14)	12.72 (8)	
물 관리 및 위생	45	1.87 (1)	30.37 (16)	49	97.21 (50)	48.36 (26)	57	3.25 (7)	29.20 (18)	
교통	24	130.09 (69)	97.92 (53)	25	69.34 (35)	89.43 (48)	29	4.94 (10)	66.52 (42)	
그 외 기타분야	98	18.57 (10)	17.98 (10)	10 4	18.91 (10)	33.26 (18)	11 7	27.70 (58)	44.42 (28)	
총합계	272	189.80 (100)	185.40 (100)	26 9	195.46 (100)	187.73 (100)	29 5	48.04 (100)	158.31 (100)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3. 유무상 비율 및 원조수단별 비율

- <표 2-15>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에 지원된 원조 사업을 유상, 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사업개수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의 경우 272개 사업 중 무상원조는 225개, 2017년의 경우 269개 사업 중 무상원조 219개, 2018년의 경우 295개 사업 중 무상원조는 232개로 매 년 원조 사업 중 무상원조 사업 개수가 9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그러나 승인액과 집행액을 포함한 지원액을 살펴보면 무상원조는 승인액과 집행액 모두 30% 정도인 반면, 유상원조는 70% 이상을 차지함.

<표 2-15> 유상 및 무상원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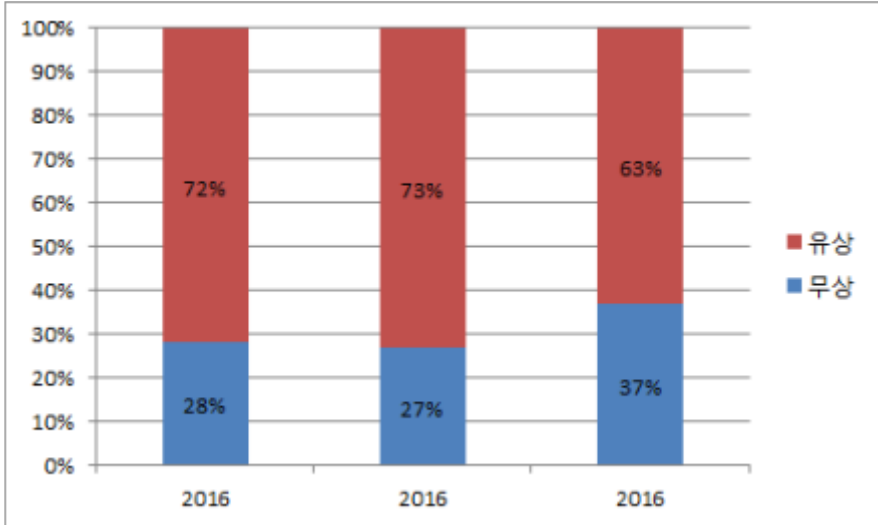
(단위: million dollars, (%))

유무상 구분	2016			2017			2018		
	사업 개수	지원액		사업 개수	지원액		사업 개수	지원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무상	225	61.42 (32.36)	51.94 (28.01)	219	33.47 (17.12)	50.87 (27.10)	232	48.04 (100)	58.23 (36.78)
유상	47	128.39 (67.64)	133.46 (71.99)	50	161.99 (82.88)	136.86 (72.90)	63	0	100.08 (63.22)
총합계	272	189.80 (100)	185.40 (100)	269	195.46 (100)	187.73 (100)	295	48.04 (100)	158.31 (100)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그림 2-7〉 집행액 기준 유상 및 무상원조 비율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 〈표 2-16〉는 원조수단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에 시행된 사업을 개수, 지원액(승인액, 집행액)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사업개수 기준으로 보면, 2016년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104개), 기타 기술협력(71개),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66개) 순으로 원조가 시행되었으며 2017년 또한 동일한 순으로 원조가 시행되었음. 2018년의 경우 프로젝트 원조(135개),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64개), 기타 기술협력(61개)으로 2016년과 2017년과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그림 2-8〉과 같이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프로젝트 원조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함. 2016년 91%, 2017년 93%, 2018년 93% 임. 그 외 수단으로는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이 약 4% 내외, 기타 기술협력이 약 2% 내외로 집행액 기준으로 보아도 비중이 낮음.

- 유학생 지원, 예산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NGO 및 민관협력 (PPP) 등의 수단은 그 비중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음.

〈표 2-16〉 원조 유형_프로젝트/기술원조 등 수단별 비율

(단위: million dollars, (%))

원조 수단별	2016			2017			2018		
	사업 개수	지원액		사업 개수	지원액		사업 개수	지원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프로젝트 원조	104	173.20 (91.25)	168.99 (91.15)	110	181.63 (92.93)	174.10 (92.74)	135	37.33 (77.70)	147.60 (93.23)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66	8.75 (4.61)	8.75 (4.72)	67	8.29 (4.24)	8.29 (4.42)	64	6.17 (12.84)	6.17 (3.90)
기타 기술 협력	71	3.95 (2.08)	4.40 (2.37)	69	4.08 (2.09)	3.96 (2.11)	61	3.33 (6.94)	3.33 (2.10)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20	2.15 (1.13)	2.15 (1.16)	18	1.09 (0.56)	1.02 (0.54)	29	0.86 (1.78)	0.86 (0.54)
분야별 예산지원	3	0	0	3	0	0	-	-	-
NGO등 민관협력 ¹⁾	4	0.40 (0.21)	0.40 (0.22)	-	-	-	5	0.36 (0.75)	0.36 (0.23)
국제기구 협력 ²⁾	4	1.34 (0.71)	0.70 (0.38)	2	0.36 (0.18)	0.36 (0.19)	1	0	0
총 합계	272	189.80 (100)	185.40 (100)	269	195.46 (100)	187.73 (100)	295	48.04 (100)	158.3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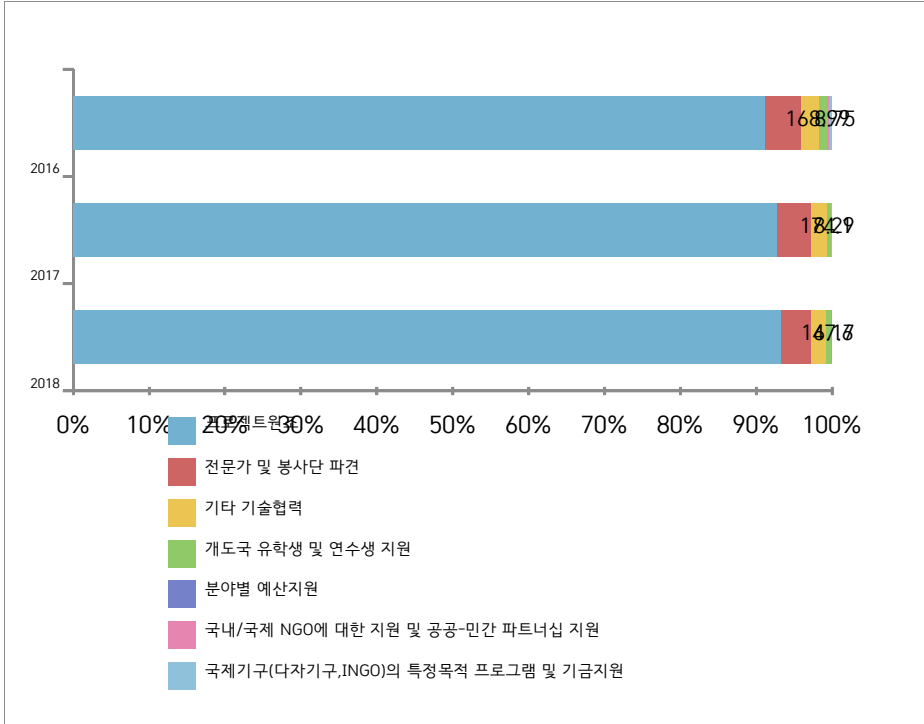
1) 국제기구협력: 국제기구(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지원

2) 국내/국제 NGO에 대한 지원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지원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그림 2-8〉 원조 수단별 비율 (집행액 기준)

(단위: %)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자료

4. 시행기관별 지원현황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원조 시행기관을 크게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24개)와 기타(민간 부문, 70개)으로 구분하여 <표 2-17>에서 제시함.
- 24개의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는 3년 동안 총 사업 개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 70여 개의 민간 부문에서는 약 30% 정도의 사업 수행을 담당하고 있음.
- 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는 집행액의 91~93%를 차지하고 기타 민간기관들은 7~9%를 차지함.

<표 2-17> 원조 시행기관별 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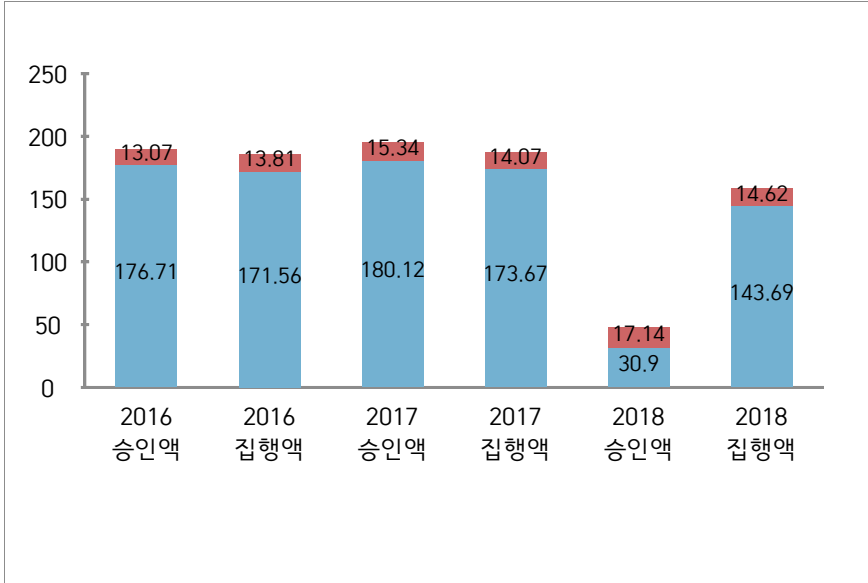
(단위: million dollars, (%))

시행기관별	2016			2017			2018		
	사업개수	지원액		사업개수	지원액		사업개수	지원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승인액	집행액
공공기관 및 정부부처 (24개)	202	176.71 (93)	171.56 (93)	201	180.12 (92)	173.67 (93)	216	30.90 (64)	143.69 (91)
기타 (70개)	69	13.07 (7)	13.81 (7)	68	15.34 (8)	14.07 (7)	79	17.14 (36)	14.62 (9)
총합계	271	189.77 (100)	185.37 (100)	269	195.46 (100)	187.73 (100)	295	48.04 (100)	158.32 (100)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서

〈그림 2-9〉 원조 시행기관별 지원현황 (승인액/집행액 기준)

(단위: million dollars)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자료

- 2019년은 본 연구의 평가범위는 아니지만 시행기관들의 사업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정부부처별 예산 자료를 활용하여 〈표 2-18〉과 같이 정리하였음.
- 기획재정부(EDCF)(유상)와 KOICA(무상)의 사업개수는 각각 41개, 2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예산액 또한 EDCF 유상원조 77.9%, KOICA 무상원조 14.3%의 비중으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이는 2019년 베트남 원조 총 예산의 92.2%를 차지함.
- 그 외 10% 예산은 16개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음. 한 국가의 원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개수와 예산이 수많은 시행 부처들로 세분화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2-18〉 원조 시행기관별 현황 (2019 사업예산 기준)

(억원, (%))

시행 부처별	2019년	
	사업개수	예산액
기획재정부(EDCF)	41	1,331.37 (78)
KOICA	22	243.79 (14.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14.45 (0.8)
교육부	4	6.35 (0.4)
농림축산식품부	3	11.82 (0.7)
산업통상자원부	2	18.66 (1.1)
해양수산부	2	8.81 (0.5)
보건복지부	2	7.95 (0.5)
행정안전부	2	6.12 (0.4)
문화체육관광부	2	2.89 (0.2)
식품의약품안전처	1	15.90 (0.9)
지방자치단체(경북)	1	12.00 (0.7)
농촌진흥청	1	10.00 (0.6)
국토교통부	1	7.50 (0.4)
경찰청	1	4.58 (0.3)
국무조정실	1	2.40 (0.1)
고용노동부	1	2.00 (0.1)
환경부	1	1.20 (0.1)
총합계	92	1,707.79 (100)

출처: 국무조정실 제공, OECD ODA 통계 보고자료

제4절 타 공여기관 지원 현황

1. 베트남 ODA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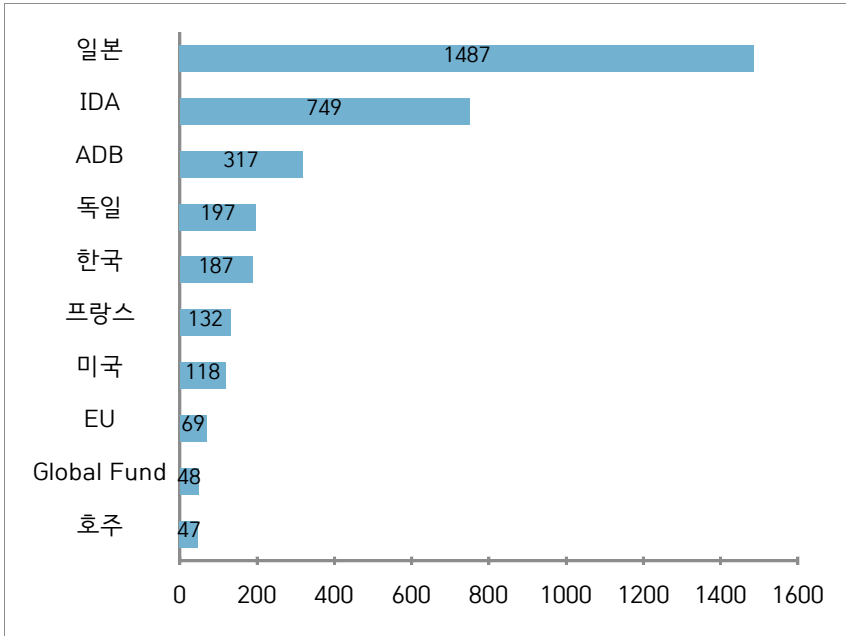
- (타 공여국 지원 현황) 베트남 ODA 최대 공여국은 일본이며 최대 공여 기관은 세계은행(World Bank)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 등의 순으로 지원함.
 - 일본은 약 10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며 베트남 경제,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OECD Stat)¹⁴⁾. 2016년-2017년 베트남 ODA 최대 공여국으로서 약 1,487만 달러를 지원하였음.
 - 양자협력 국가 중에서는 독일(197만 달러)이 두 번째 큰 공여국이 고, 한국(187만 달러)은 세 번째로 지원 규모가 큰 공여국임.
 - 다자기구 및 국제기구 중에서 최대 공여기관은 IDA로 749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시아개발은행(317만 달러)가 뒤를 따르고 있음(OECD DAC).

14)

https://public.tableau.com/views/Climate-relateddevelopmentfinance-RP/CRDF-Recipient?embed=y&:display_count=no&%3AshowVizHome=no%20#3

(최종 검색일:2019.7.25.)

〈그림 2-10〉 베트남 상위 10개 공여국 및 공여기관 (2016-2017) (단위: USD million)



* 출처: OECD DAC 통계 활용하여 저자 재작성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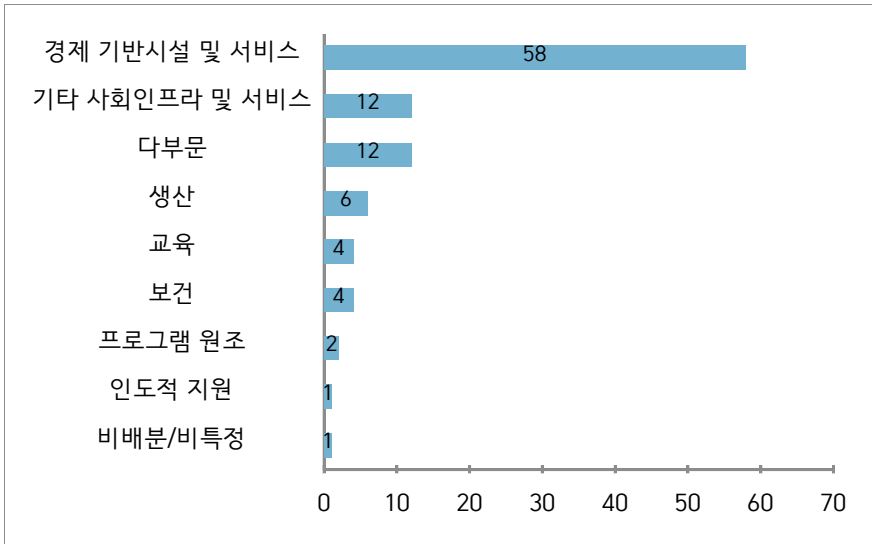
- 분야별 베트남 ODA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 및 운송 분야가 3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환경 및 도시개발(18.65%), 에너지 및 산업(17.14%)으로 지원됨(OECD Stat)¹⁵⁾.
- 2016년-2017년의 베트남 내의 양자 ODA는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에 58%로 가장 높은 지원 비율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에 12%에 집중 지원되었음.

15)

https://public.tableau.com/views/Climate-relateddevelopmentfinance-RP/CRDF-Recipient?:embed=y&:display_count=no&%3AshowVizHome=no%20#3

(최종 검색일:2019.7.25.)

〈그림 2-11〉 베트남 분야별 양자 ODA 체결 현황 (2016-2017) (단위:%)



* 출처: OECD DAC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

- 본 절에서는 베트남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 중 원조규모가 큰 일본, 세계은행, 독일 등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국별전략과 분야별 주요 사업 현황을 살펴봄.

2. 일본

- 일본 JICA의 베트남 지원 궁극적인 목표는 균형 잡힌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표 2-23〉에서 볼 수 있듯이, JICA의 베트남 ODA 중점지원분야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함 (JICA, 2013).

○ 첫째,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제 사회 내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시장 경제체제를 강화하고 산업 및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 JICA는 베트남의 철도 교통 및 도시 교통망을 지원하고 경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함.

-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호아락 과학 및 기술 도시 개발 프로젝트(Hoa Lac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중소기업 금융 프로젝트(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inance Project), 탄호아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Nghi Son Thermal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등이 있음.

○ 둘째, 경제발전에서 따른 부정적 영향, 취약성에 대응하고자 함.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나타나는 도시 문제, 기후변화, 재난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베트남 내의 빈곤, 불균형을 감소하고자 함. JICA는 의료부문 지원, 농촌 지역 개발 등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목표를 설정함.

- 주요 프로젝트는 제 2 하노이 환경 개선을 위한 배수 프로젝트(Second Hanoi Drainage Projec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소규모 친빈곤적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Small-Scale Pro Po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ject) 등이 있다.

○ 셋째, 거버넌스를 개선하고자 함. 사법 및 행정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법 제도를 개선하고 집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베트남 텔레비전 센터 프로젝트(Vietnam Television Center Project), 호치민 국립정치행정원 공직자 및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젝트(Project for Strengthening Capacity of Ho Chi Minh National Acade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Training of Public

leaders and Civil servants)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임.

〈표 2-19〉 JICA의 베트남 중점지원분야

목표	균형 잡힌 경제, 사회 개발을 위한 국가 건설	
중점 분야 1	경제 성장 촉진과 국제 사회 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프로그램 목표
시장경제체제 강화	시장경제체제와 재정 및 금융개혁	민간부문의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시장경제체제 개선, 국유기업 개혁, 금융부문 개혁 지원
산업경쟁력강화와 인적자원 개발	산업 및 인적 자원 개발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과 산업 인적자원 지원
경제인프라 및 교통접근성 개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보존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지원
	백본(backbone) 교통 시스템 개발	항만, 공항, 철도, 도로 등을 위한 백본(backbone) 교통 시스템 개발 지원
	도시교통망 개발	철도, 도로 등 도시교통망 개발 지원
중점분야 2	취약성에 대한 대응(경제발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응)	
기후변화, 재난, 환경파괴 등의 위협에 대응	도시환경관리	부족한 식수, 폐수 관리, 수질 오염, 고형 폐기물 관리, 대기 오염 등과 같은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
	기후 변화	행정과 지역수준에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개발 지원
	재난 관리	행정 및 지역수준에서의 자연재해 대응 능력 개발 지원
	자연보호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생물다양성 보존 지원
사회 및 생활수준 향상 및 불균형 해결	의료 관리	의료 관리 시스템(의료 및 의료 기관의 기능 강화, 조직 간 협력 등), 감염성 질병 관리 지원
	사회 안보 및 안전 보장망	인신매매와 같은 취약성에 대한 사회 안보와 안전 보장망 지원
	농업 및 농촌 개발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관광개발, 농어촌 생활수단 다양화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촉진 및 농촌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
중점분야 3	굿 거버넌스	
사법행정기능 강화	사법행정기능 강화	지방분권, 인적자원개발 등의 관점에서 사법제도개혁과 행정능력개발을 지원

*출처: JICA(2013) 국별전략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3. 세계은행

○ 세계은행의 베트남 중점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포괄적 성장과 민간 부문 참여 지원, 사람과 지식에 대한 투자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강화를 목표로 함. 각 중점 분야에 따른 세부 목표들이 존재하며 이는 <표 2-20>에서 볼 수 있음.

○ 첫째, 포괄적 성장과 민간 부문 참여 지원(중점 분야1)을 위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부문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구체적으로는 자본 시장과 비은행 금융 기관을 개발하고 재정과 금융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며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는 등 우호적인 정책을 지원.
- 무역에 있어서도 민간 투자를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를 통해 도시 내의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도시 개발에 있어서 국가, 지방정부, 민간 부문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수민족, 여성 등 취약 계층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이에 해당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농업개발 프로젝트(Sustainable Agriculture Transformation Project), 지속가능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해양자원(Coastal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 베트남 다낭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Vietnam Da Nang Sustainable City Development), 베트남 포괄적 혁신 프로젝트(Vietnam Inclusive Innovation Project) 등이 있음.

○ 사람과 지식에 투자(중점 분야2)을 위해 세계은행은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정부의 책임성,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목표를 설정함.

-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차 수준 즉, 지역 공동체 수준의 보건 서비스를 향상시키며 의료 보험 개혁, 민간 부문의 참여 등을 확대하기로 함. 특별히, 소수민족 아이들이 취약한 영양실조

감소를 위해 식품 안전, 물과 위생 등에 집중 지원. 의료 보험을 통합 및 강화하도록 대출을 지원하며 노동시장 필요에 맞는 경쟁력 있는 노동인구를 교육시키고자 함.

- 이에 해당하는 주요 프로젝트는 북동부와 홍강 델타 지역 보건 시스템 지원 프로젝트(North East and Red River Delta Regions Health System Support Project), 일반 교육 개혁 프로젝트(Renovation of General Education Project), 농촌 물 공급 및 위생 프로젝트(Rural Water Supply & Sanitation Project) 등이 있다.

○ 환경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강화(중점 분야3)은 천연 자원 사용 및 관리, 자연 재해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수자원 관리 및 지속가능 에너지 생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고자 함.

-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생성을 지원하며 산업 공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마련.
- 또한 자연 재해, 전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지원하며 수자원에 대한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지원.
-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메콩 델타 통합 기후 복원력 및 지속가능한 생활 프로젝트(Mekong Delta Integrated Climate Resilience and Sustainable Livelihoods Project), 도시 물 공급 및 폐수(Urban Water Supply and Wastewater), 제 2의 호치민 환경 위생 프로젝트(Second Ho Chi Minh City Environmental Sanitation Project) 등이 있음(World bank, 2017).

〈표 2-20〉 세계은행의 베트남 중점지원분야

중점 분야 1	포괄적 성장과 민간 부문 참여 지원
세부 목표 1	경제 거버넌스 및 시장 강화
세부 목표 2	민간 부문 및 농업-기업 개발 증진
세부 목표 3	무역 경쟁력, 다중 모델 운송 연결 및 물류 서비스 향상
세부 목표 4	도시 내 인프라 및 토지 계획, 관리 및 제공 개선
세부 목표 5	소수민족, 여성,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 확대
중점 분야 2	사람과 지식에 투자
세부 목표 6	양질의 공공, 민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영양실조 감소
세부 목표 7	사회 지원, 연금 및 의료보험 시스템 통합 및 효율성 향상
세부 목표 8	제 3차 교육 및 노동시장의 연관성 및 품질 강화
중점 분야 3	환경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강화
세부 목표 9	재생 에너지, 저탄소 에너지 생성 촉진 및 GHG 배출 감소
세부 목표 10	기후 복원력 향상 및 재해 관리 강화

* 출처 : World bank (2017)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4. 독일

- 독일의 베트남 중점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됨. 직업훈련, 환경 및 천연자원, 에너지가 이에 해당하며 3가지 중점분야에 따른 세부 전략 들 또한 <표 2-21>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중점 분야 1은 기술 및 직업 교육 훈련(TVET)를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실무 교육을 개발하고 역량 센터를 설립하는 등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 경제시스템 필요에 맞는 노동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 중점 분야 2는 환경 및 천연자원에 대한 지원이다. GIZ는 베트남 정부가 환경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베트남 전역에서도 메콩 델타 지역, 해안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태풍, 홍수 등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보호 구역, 산림 등을 관리하도록 함.

- 마지막으로 중점 분야 3은 에너지 부문임. 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며 국내외 재생 에너지 생산 및 투자 장벽을 낮추는 등의 노력을 지원. 이를 위해 독일은 독일 대학, 민간 기업 간의 기술 협력 또한 적극 지원 중에 있음. 이 외에도 독일은 베트남의 녹색 성장 전략 이행 및 공공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을 지원하고 있음.¹⁶⁾

16) <https://www.giz.de/en.worldwide/357.html>

(최종 검색일: 2019.7.25.)

〈표 2-21〉 독일의 베트남 중점지원분야

중점 분야 1	직업 훈련
세부 전략 1	포괄적 정책 및 시스템 자문 서비스 배분
세부 전략 2	다양한 산업분야의 실무 교육 개발
세부 전략 3	역량 센터 설립
세부 전략 4	위생 분야 내 기술인력 양성
중점 분야 2	환경 및 천연자원
세부 전략 5	보호 지역 관리 및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활용 촉진
세부 전략 6	메콩 델타 해안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중점 분야 3	에너지
세부 전략 7	재생가능에너지(풍력,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확대 지원,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출처 : GIZ, 베트남 사무소 자료 참고하여 저자 재정리

- 일본, 독일, 세계은행은 포괄적 경제성장,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일본은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하는 점이 특징적이며 독일은 직업 훈련 분야 ODA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표 2-22〉 공여국 및 공여기관별 중점지원 목표와 분야

일본	독일	세계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촉진과 국제 사회 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 취약성에 대한 대응(경제발전 단계 차분 부정적 영향에 대응) • GJ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 훈련 • 환경 및 천연자원 •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성장과 인간 부문 상의 지원 • 사람과 지식에 투자 • 환경 지속가능성과 복원에 집중

제5절 소결

□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시사점

- 베트남의 국가발전전략은 시장경제, 사회발전, 환경 등 SDGs의 3대 중심축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 토대로 거버넌스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
 - 국가발전전략은 경제성장 및 시장경제로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 경제성장 촉진 등에 초점.
 - 동시에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사법개혁, 부패척결 등 거버넌스 개선도 중요하게 보고 있음.
 - 그 밖에 최근의 변화에 발맞추어 4차 산업혁명 적극 활용, 환경 보호 및 재난 예방 등의 발전목표에도 관심을 가짐.

□ 베트남 개발수요 변화 시사점

- 중소득국가(MIC)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강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선호
 - 개발재원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유상원조에 대해 베트남 정부의 공공부채 관리계획에 따라 신규승인이 지연되는 현상 발생
 - 무상원조 확대, 유상원조는 민간기업 진출 및 민간투자자와 ODA를 연계방안 수립 필요
-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전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수요 증대
 - 고등교육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ODA 사업 필요
-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수요 급증
 - 도로, 철도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나 유상원조는 지양 정책에 대해

대응 필요

- 경제 및 사회변화를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요구 증대
 - 한국의 제도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제도이전 및 기술협력 수요 대응 필요
- 취약지역,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
 - 신약지대(소수민족 거주지)등에 대한 무상원조, 지방정부와의 ODA 추진 필요
- 도시화 부작용해소를 위한 수자원관리, 주거시설 안정화 필요성 증대
 - 상하수도 관리, 주택 개발등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필요한 수요 지원 필요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 증가
 - 기후변화에 적응 및 대응하는 정책 및 제도도입 에 대해 지원 필요

□ 베트남 수원환경 변화 시사점

- 우리정부의 ODA 원조는 유상원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최근 베트남에서 차관 운용 및 ODA 사업 추진 관련 신중한 정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내부적으로 무분별한 차관 도입 및 ODA 사업 추진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 경제적 득실에 비중을 둔 외국정부의 ODA 사업에 대하여 경계심 고조
 - ODA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 운영 원칙을 성정하고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베트남 ODA 수원 여건변화와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관심 증대에 대비하여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필요
 - 베트남 경제성장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원조가 줄어드는 가운데

- 세계은행 IDA 차관 공여 중단 등 국제기관의 ODA 지원 축소
- 이로 인한 베트남 재정부담이 확대되고 공공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됨

□ 신남방정책과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연계 고려

- 신남방정책에 따라 베트남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다양한 수단을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
 -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중심국가 중 하나가 베트남임
 - 중하위소득국(LIMC)에서 중소득국(MIC)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ODA 지원 이외 직접투자(FDI) 및 무역(aid for trade)과 연계하는 방안 등이 활성화되어야 함
 - 이주노동자, 노동자 송금 등의 분야에서 정책일관성(policy coherence)를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함 .

□ 베트남 차기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중점분야 선정 고려

- 베트남 정부는 2021-2030 사회발전전략(SEDS)을 수립 중이며 2020년 경에는 대외공개될 예정임. 이에 맞춰 ODA 전략도 새롭게 수립할 예정이며 베트남의 발전단계에 따라 지원분야도 변화하기를 희망함.¹⁷⁾
 - 베트남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3대 분야는 인프라, 제도, 인적자원개발 등임.
 -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무상원조 지원분야는 정부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인적자원개발, 보건, 농촌개발, 유상원조 지원분야는 인프라, 농촌개발 및 관개사업, 도시개발(그린시티, 스마트시티, 다이나믹시티 등), 기후변화 대응 등임.

¹⁷⁾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인터뷰(2019.8.26.)

- 향후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기존의 중앙정부와 협력 이외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희망하며, 소수민족 거주하는 산악지대 및 취약지역 (remote area)에도 ODA 지원이 필요함
- 베트남이 중소득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급기술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을 희망함

제3장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제1절 공공행정 분야

1. 사업계획의 적절성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양호함.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의 법치주의 실현 목표 및 한국의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중 공공행정분야 법치시스템 지원 목표와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계성이 높아 우수한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이는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SEDS 2011-2020)의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 보장’, 법치주의 강화를 위한 ‘2020년까지의 사법개혁전략’, 베트남 2차 국가협력전략 2016-2020의 공공행정분야 ‘법치시스템 지원’ 목표와 연계성이 높음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목표와 사업계획은 수원국 국가발전전략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직접적 연계성은 떨어짐.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사업프로그램의 목표는 상위목표와 하위목표 간 차별성이 없고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산출과 성과목표의 수준이 맞지 않아 목표체계성은 부족한 점이 있음.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건축 및 시스템 개발, 제도개선, 인력양성 등

전반적인 핵심요소를 반영하고 있어서 사업구성요소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우수한 편임.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사업계획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나 복잡한 사업요소 간 진행순서를 고려한 일정수립이 필요
 - 계획 수립 시 실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아 지연이 발생하고,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의 사업요소간 순서를 고려한 일정을 설정하지 않아서 일정의 합리적 연계성이 떨어짐.

1)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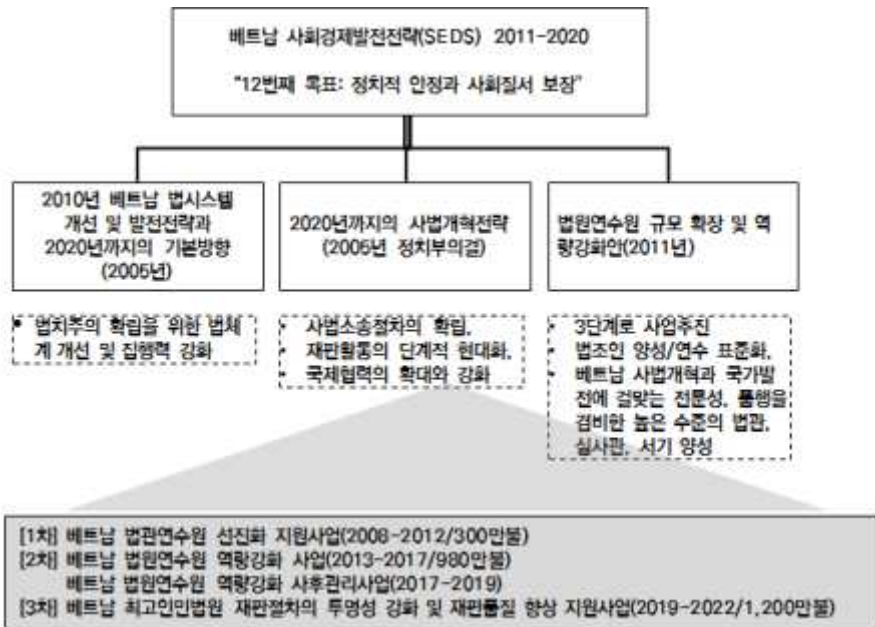
(1)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사업의 일관성 평가

- (사법개혁 분야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일관성)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중 거버넌스 분야 발전전략으로 법치주의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며 사회경제발전전략(SEDS) 목표에서도 정치적 안정과 사회질서 보장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은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에 부합
 - 베트남 前 국가 주석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체계 개선을 위하여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를 강조하였음.
 - ‘2010년 베트남 법시스템 개선 및 발전전략과 2020년까지의 기본방향(LSDS, 당중앙집행위원회 의결 2005-48호)’, ‘2020년까지의 사법개혁전략(당중앙집행위원회 의결 2005-49호)’을 수립.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집행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정치부 의결 49-NQ/TW 「2020년까지의 사법개혁전략」(2005.6.2.)은 “사법소송절차의 확립, 재판활동의 단계적 현대화, 국제협력의 확대와 강화”를 강조
- 2011년 ‘법원연수원 규모 확장 및 역량강화(De An, 2011)’안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조인 양성/연수 표준화, 베트남 사법개혁과 국가발전에 걸맞는 전문성, 품행을 겸비한 높은 수준의 법관, 심사관, 서기 양성을 목표로 함

〈그림 3-1〉 베트남 사법개혁 분야 국가발전전략과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일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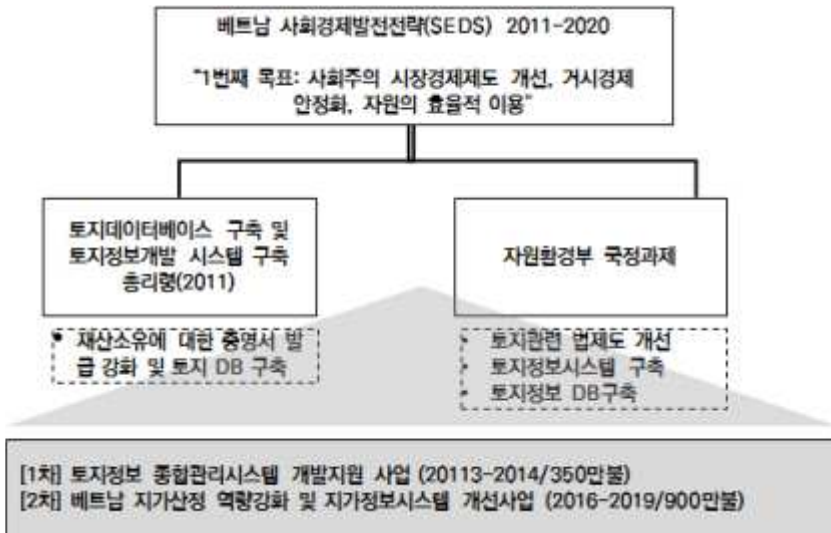


- (공공행정 분야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일관성) 베트남 자원환경부 중점 국정과제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이 선정된 바 있음.
 - 특히 중앙/지방 시스템이 분리운영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는 점에서 수원국 부처의 전략에 부합함.

○ 베트남 개발목표 중 공공행정절차 간소화 및 연간비용 감소, 공공기관 공식문서 전자화 등이 국가적 목표로 설정됨. 따라서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목표가 베트남 발전전략 상 정책우선 순위에 부합함.

- 하지만 수원국 국가발전전략에서는 동 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에 직접적 연관성은 다소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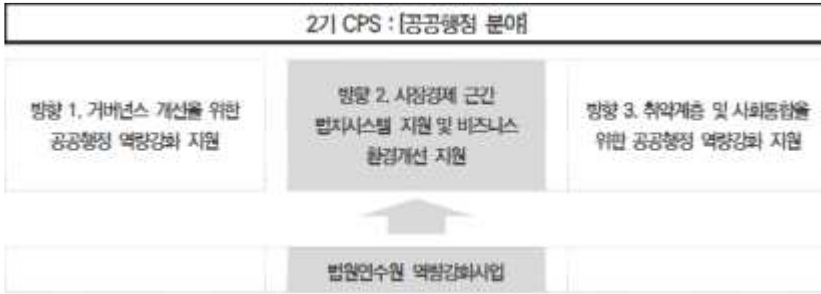
〈그림 3-2〉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일관성



□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과 사업의 일관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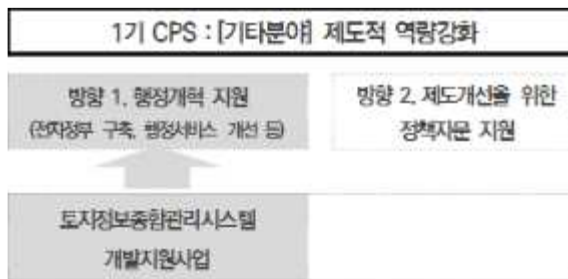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2기 베트남 국가협력전략(2016-2020)과 사업계획의 일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음. 2기 전략 지원방향 중 하나로 ‘시장경제 근간이 되는 법치시스템 구축’목표에 부합하며 세부 실행방안 중 ‘사법부 및 감사원 역량강화 지원 실행계획’ 부합함

〈그림 3-3〉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과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일관성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국별전략 1기 시 발
굴된 사업으로 1기 전략(2011-2015)(의 기타 분야 ‘제도개선역량강
화’ 목표에 부합
 - 1기 국가협력 전략의 중점분야는 녹색성장/환경, 기술직업훈련, 교
통(도로)이며 기타분야는 공공행정, 의료보건 등이었음. 동 사업은
공공행정분야 사업으로 IT 기술을 활용한 정부운영 효율화 사업에
해당하므로 국가협력전략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4〉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과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일관성



(2)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 공공행정분야 대표사업 목표 분석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최종목표는 “베트남 법원연수원의 사법 연수 및 연구 역량강화를 통한 베트남 사법부(법원)의 역량강화 및 사법제도 개선” 임. 궁극적으로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
- 동 사업의 단기 성과목표는 1) 법원연수원 교육 편의성 증가, 2) 법원연수원 운영 및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임. 중기 성과목표는 1)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2)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및 반영 등임.
-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의 구분이 되지 않고 활동-산출-성과의 체계적 연계성이 떨어짐.
 - 예를 들어, 활동-산출-성과-중장기 성과가 연계되어야 하나 현재의 목표체계는 이 점이 미흡함
 - 단기성과목표 중 ‘연수원 운영 및 강사역량강화’는 산출에 해당하는 목표임. ‘법원연수원 교육편의성 증가, 연수원 교육의 질 제고’는 단기성과목표로 적합. 이렇듯 산출과 성과 목표가 혼재함
 - 단기성과목표는 중기성과목표 중 ‘법원연수원 역량강화’라는 성과목표로 연계될 수 있음. 하지만 또 다른 중기성과목표인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은 목표체계상 산출이나 활동과 연계가 없음
 -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은 중기성과목표 보다는 산출물 또는 단기목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표체계의 준위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공행정분야 사업의 목표와 세부사업의 내용이 연계되고, 활동-산출-성과-중장기 성과 등이 연계되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표 3-1〉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 목표 분석

최상위목표 (Ultimate 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사법연수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한 베트남 사법부(법관)의 역량강화 • 사법 체재발전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
중기목표 (Intermediate 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 사법제도 개선안 마련 및 반영
단기목표 (Initial 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연수원 교육 편의성 증가 • 법원연수원 운영 및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사업목적은 지속가능한 토지정보관리체계 구축, 토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토지행정체계 현대화, 도시개발 계획수립의 합리성 및 효율성, 공정성 제고 등임.
- 궁극적인 목표는 ‘전국의 토지정보를 과학적/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성과로서 ‘토지정보시스템 사용을 정책 및 전략에 적용하고 토지등록 정보를 현업에 활용, 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중간 목표이자 사업의 최종 성과로 설정.
- 그러나 이와 같은 목표는 사업초기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고, 종료평가 보고서에서만 드러났으며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목표를 재조정하였다는 점에서 시작단계부터 목표 체계성이 갖춰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3-2〉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목표 분석

최상위목표 (Imp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다목적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국의 토지정보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
중기목표 (Out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토지정책 및 전략 수립에 적용 • VietLIS를 토지등록 현업에 활용 • 운영가이드에 의한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산출 (outpu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전략 및 로드맵 • 토지관련 법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안) • 베트남 다목적 토지정보시스템(VietLIS) •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가이드 • 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전산장비

- 두 사업 모두 집행계획 수립 당시의 목표와 달리 종료평가에서 평가전문가들이 목표를 수정하여 제안함. 향후 사업기획단계에서 목표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정하도록 노력이 필요함
 - 특히 공공행정분야는 그 특성 상 상위단계의 중장기목표(ultimate outcome), 영향(impact)이 개별사업으로 달성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표를 사업범위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여 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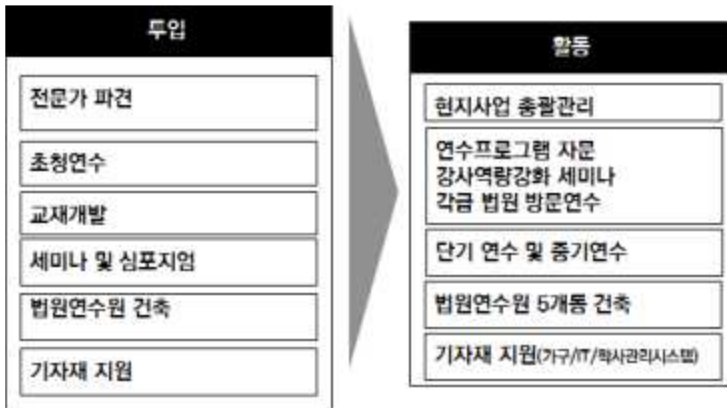
(3)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구성요소 평가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건축(500만불), 기자재(160만불), 전문가파견(69만불), 초청연수(202만불), 교재개발(30만불), 세미나(19만불) 등 총 900만불로 사업을 구성함.
- 단기목표는 1) 교육편의성 증가를 위해 교육시설 및 기자재 지원, 2)법

원연수원 운영 및 강사역량 강화 등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 교재개발, 세미나 등으로 사업이 종합적으로 구성됨

〈그림 3-5〉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구성요소



○ 교재개발 관련 투입 및 활동의 경우 베트남 측이 교재를 개발하고 한국 측은 자문 및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집행 단계에서 베트남 측의 추진의지 부족 및 수원기관 사정으로 인해 교재 개발을 위한 베트남 측 인력투입 및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음. 현재 사후관리사업을 통해 우리측 주도로 교재 17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베트남의 특성 상 현지 사정에 맞춰 교재개발을 희망하였으나, 추진 경험 부족 등으로 자체 실행에 어려움이 노정됨.
- 한편, 수원 국 분담사항으로 결정된 기숙사 건축에 있어서는 추진 의지는 높으나, 정부와 수원기관의 예산 확보 및 실제 투입이 이뤄 지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됨.
-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베트남의 수원체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요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수원기관 면담 시, 사업구성요소 중 법원연수원 건물 신축을 가장 만족스럽다고 응답함. 법원연수원의 교육편의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건축이 효과성과 상징성이 큰 사업구성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동시에 한국의 법관들이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장기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 것에 대해서도 수원기관이 높은 만족도를 보임. 공공행정분야는 전문가 파견 형식의 기술협력(technical assistance)을 통해 제도를 전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공공행정 ODA 사업 중 기술협력 방식으로 장기파견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 사업은 많지 않았음.
 - 향후 장기 전문가 파견을 통한 제도구축 지원 등 유사사업 추진 시 동 사업의 교훈을 참조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수원국 분담사항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예산확보와 집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성요소를 설정해야 함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베트남측 분담사항은 기숙사 건축부문이었으나 기간 내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수원국 분담사항인 기숙사 신축부문은 사후관리사업 종료 이후에 완료됨.
- 공공행정분야 사업들은 한국의 다른 ODA 사업과 유사하게 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 IT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 전문가 파견 등 사업구성요소를 포괄적으로 설정함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기에 수원기관의 만족도는 높은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공공행정분야 사업 특성 상 장기전문가

파견을 통한 기술협력을 실시하여 제도구축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한 점은 우수한 점으로 향후 유사사업에서 참조.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 구성요소 평가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경우 필요한 구성요소는 망라하였으나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과업 및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음.
 - 사업종료 이후 지속적으로 수원국 수요반영한 사후관리와 2차 사업(2016-2019)를 형성하여 보완하고 있음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사업구성요소로 (1) 로드맵 수립, (2)시스템 개발, (3)기자재 도입, (4)교육 및 기술이전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함.
- 사업요소는 필요한 요소들이 망라되어 적절하게 구성되었으나 총 사업비 350만불 중 시스템 개발에 대부분의 예산 152만불이 투입되도록 사업이 형성됨.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에는 18만불이 투입됨.
-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이를 활용하여 제도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유사사업을 형성할 때,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역량강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그림 3-6〉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 구성요소



(4)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 사업계획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분석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사업기간은 최초에 2013-2015년으로 계획되었음. 사업착수 이후 2014년 2월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6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함. 이후 2017.2로 최종일정을 연장함.
 - 2013.3.29.~2016.3.28까지 총 36개월 동안 건축, 기자재 지원, 초청연수, 교재개발, 세미나 등을 실시하기로 계획
 - 단기전문가 파견, 교재개발은 결국 기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는데, 수원기관의 역량과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지연 등으로 인해 일정이 지연되고 사업요소가 변경됨.
 - 따라서 처음부터 실현가능한 사업요소, 일정을 수립했다고 보기에 는 어려움이 있음.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최초 집행계획에는 2013-2014 2년으로 사업일정을 구성함. 조달일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2년으로 사업을 형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사업구성요소별 추진일정을 보면, 중장기전략 수립 중 업무절차 개선, 토지등록 개발로드맵 수립과 정보화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짐.
 - 로드맵 수립-시스템 개발-운영자교육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전략 수립에서 도출된 개선안이 시스템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순서(sequence)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사업 형성 시 2년 내지 3년의 제한된 기간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형성하는 관행이 있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실제 집행기관 입찰 지연 등이 자주 발생하여 1차년도는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종료에 압박하여 사업을 연장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2. 사업수행의 적정성

- 공공행정분야 사업수행의 적정성은 양호함.
- 공공행정분야 사업들은 사업계획 대비 일정준수, 예산집행, 산출물 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수행의 충실성은 우수한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일정지연이 11개월 발생했으나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에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한 것으로 과업목표 달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님.
 - 두 사업 모두 계획대비 예산집행, 산출물 달성 등의 집행실적은 우수함.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수원기관의 수요를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하여 우수한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이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함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IT 시스템 개발 시 수원국의 수요가 변화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과업을 이행함.
- 공공행정분야 프로젝트사업의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는 우수함. 건설 및 IT 시스템 구축, 역량강화, 제도개선 자문 등 복합적으로 사업요소를 구성한 난이도가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산출을 계획대로 달성함.

1) 사업수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사업수행 실적

○ (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일정)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최초 36개월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수원국 상황변화로 47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을 수행함.

- 일정지연이 11개월 발생했으나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에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어 발생한 것으로 과업목표 달성을 저해할 정도는 아님.

○ (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예산) 최초 예산은 900만불이었으나 수원국 측 분담 미이행으로 과업이 변경되면서 최종 예산은 980만불로 변경됨. 최종 집행액은 949만불로 예산대비 97% 집행함

○ (산출) 산출물(output)은 대체로 100% 달성함.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해 사법연구센터 설립 과업을 취소함. 세미나/워크숍/자문 등 과업의 경우 산출물을 일부 달성하지 않으나 전체 과업 달성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님

□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사업수행 실적

○ (일정) 일정은 최초 24개월로 계획하였고, 사업자 선정 이후 18개월에 사업을 종료하여 계획대비 사업완료가 이뤄짐.

- 다만 최초 집행계획에서는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이후 운영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사업은 시스템 설치 직후 각 9일간 교육 이후 사업이 종료되어 사후관리 사업으로 제안하고 종료함.

사업종료 이후 6개월 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 요구사항을 지속 업데이트 함

- (예산) 최초 예산은 350만불로 편성되었음. 종료보고서와 종료평가에서 예산 세부사용실적은 공개되지 않음. 집행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산출)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산출물(output)은 대체로 100% 달성함. 토지정보시스템 로드맵, 토지 관련 법제도 및 업무절차 개선안, 토지정보시스템, 운영가이드, 운영전산장비 등 산출물 100% 달성함

(2)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과업을 실행하면서 수원국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과업 내용을 조정함.
 - 과업변경내용: 수원국의 여력 부족으로 교재개발, 사법연구센터 설립은 과업에서 삭제됨. 장기연수를 중기연수로 대체하고 홈페이지 지원 관련 내용은 배측의 홈페이지 제작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제작 지원이 아닌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으로 내용을 변경함. 또한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된 이후 수원국의 요청으로 학사관리 프로그램(IT)을 추가 지원함.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수원국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기능개발 등을 수행함 이후 2차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함
 - 기자재 및 프로그램 설치가 사업 종료 시점에 임박한 2014년 10

월 말 11월초에 실시됨. 역량강화 교육은 종료 1개월 전인 2015.1월 실시된 뒤 2월에 사업 종료. 이후 6개월동안 유지보수 기간동안 추가 요구사항 반영하여 업데이트함

- 향후 사업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 및 사업기간 계획 수립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1) 사업의 난이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거버넌스 분야 사업으로 건설/연수/자문 등의 사업요소들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음. 난이도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임.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사업, 거버넌스 분야 사업으로 시스템 구축/역량강화 등의 사업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난이도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정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임.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공공행정분야 사업의 사업결과의 타당성은 양호함.
- 사업성과 발생 정도는 두 사업 모두 목표 대비 성과를 달성하고, 향후 국민편익에 증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수한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교육역량강화와 조직역량강화 측면에서 달성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음 1차, 2차 사업을 통해 법원연수원 건립 및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되었고, 건립 이후 약 15,000명을 연수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함.
 - 그러나 장기적 성과, 국민편익증진효과는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아서 기대 대비 향후 성과를 추적조사할 필요가 있음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성과목표는 토지정보시스템(VietLIS) 토지등록 현업 활용, 토지정부시스템 운영 등으로 이를 달성함
- 두 사업 모두 종료 이후 베트남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기관 운영 및 시스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는 우수한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법원연수원의 법원아카데미 승격 등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고, 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향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사업 이후 수원기관이 정부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어 지속가능성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됨
- 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 정성적 평가방법론을 사업초기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 산출지표와 성과지표를 혼재해서 측정했다는 점에서 사업효과 측정의 합리성은 양호한 수준임

- 두 사업 모두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론에 대한 고도의 방법론을 수립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성과점검은 적절하게 실시함
- 두 사업 모두 산출지표와 성과지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표에 대한 측정방법론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공공행정부문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value for money) 보통 수준임.

1) 사업효과성 및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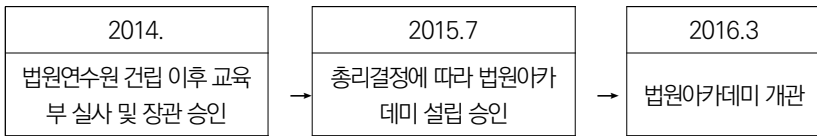
(1) 계획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사업성과 평가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의 최종 성과(outcome)는 법원연수원 역량강화를 통한 법치주의 확립으로 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법원연수원의 역량강화가 달성되어야 하며 달성정도는 교육역량강화, 조직역량강화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계획 대비 성과를 달성함.
 - 교육 및 자문내용에 기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청연수 및 현지연수를 통해 전달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음
 - 조직/기관차원 역량강화는 법원연수원이 고등교육기관인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1차 사업인 ‘법관연수 선진화지원 사업(2008-2012)’ 및 2차 사업인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2013-2017)’을 연계하여 추진하면서 2015년 총리결정서에 따라서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됨
- 조직인원이 사업 전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됨.

〈그림 3-7〉 법원연수원의 법원아카데미 승격 과정



- 교육역량과 조직역량이 강화됨에 따라 법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와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생 수가 증가함.
 - 1차 사업으로 법원연수원이 건립된 이후, 총 70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9,906명을 교육함
 - 2015년 법원아카데미 승격 이후 2018년까지, 총 42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6,079명을 교육함
 - (참고) 2017.7.31. 기준 베트남 법원은 총 14,794명이 근무하고 있음. 판사 5,657명, 심사관 약 1,000여명 및 법원서기 7,200여명, 기타 직원 868명 등 총 직원 9,068명 등으로 추정됨

〈표 3-3〉 법원연수원 건립 이후 법원아카데미 승격 이전까지 교육과정 및 교육생 수

연도	교육프로그램 수	교육프로그램 명칭	학생 수
2012년	5	전문가 과정	802
2013년	2	법원서기 인력양성	183
	1	법원심사관 인력양성	63
	20	전문가 과정	2,847
2014년	3	법원서기 인력양성	144
	1	법원심사관 인력양성	74

연도	교육프로그램 수	교육프로그램 명칭	학생 수
	1	재판업무 인력양성 프로그램 (5개반)	291
	11	신규임용자 교육	1947
2015년	10	법원서기 인력양성	957
	2	재판업무 교육(5개반)	299
	14	전문가 과정	2299
(합계)	70		9,906

〈표 3-4〉 법원아카데미 승격 이후 교육과정 및 교육생 수

연도	교육프로그램 수	교육프로그램 명칭	학생 수
2016	5	법원서기 인력양성	392
	1	법원심사관 인력양성	106
	3	재판업무 교육 (9개반)	449
	3	전문가 과정	591
2017	5	법원서기 인력양성	422
	4	재판업무 교육 (7개반)	413
2018	2	법원서기 인력양성 /온라인	1112
	5	재판업무 교육 (8개반)	427
	4	전문가 과정	1278
2019	2	법원 수석서기관 인력양성	251
	2	법원 수석심사관 인력양성	192
	6	재판업무교육 (8개반)	446
(합계)	42		6,079

○ 법원아카데미로 승격됨으로써 대학으로 인정받아 학생들은 졸업 후 법원 직원이 될 수 있음. 승격 이후 총 학생 수는 1,187명에 달함.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입학 및 재학생 수는 812명이며, 이 중 484명, 약 60%가 여학생임.

〈표 3-5〉 법원아카데미 입학 신입생 수

학년	입학년도	학생 수
1학년 (47)	Class 2019	360*(목표치)
2학년 (37)	Class 2018	307
3학년 (27)	Class 2017	309
4학년 (17)	Class 2016	211
(합계)		1,187

- 동 사업을 통한 국민편의증진 및 기대효과, 영향력등은 판결의 정확성에 따른 국민의 신뢰성 확보로 측정할 수 있음. 그러나 영향력(impact)은 종료평가에서는 파악하기 어렵고 사업 종료 이후 2~4년 후 사후평가 등을 통해서 영향력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조사를 통해서 판결능력 향상 정도,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국민편의증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고, 향후 베트남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밝힘.
- 현지조사 시 수혜자 그룹 FGI 인터뷰를 통해 향후 베트남 사법분야의 주요인력이 될 학생들을 인터뷰 함. 〈표 3-6〉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고 교육과정의 우수성이 확인되어 향후 사법분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동사업의 최종 성과는 법원연수원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판사들의 판결능력 향상, 이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 증대이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임. 수원기관 면담 시 이와 같은 장기적 성과, 국민편의증진효과의 가시화에 대해서는 주관적 성과인식이 낮게 측정되었음

- 공공행정분야의 사업 특성상 단발성 사업 보다는 장기간 연계사업을 통해 프로그램형으로 지원하면서 국민편의효과에 대해 장기적인 추적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표 3-6〉 법원아카데미 수혜자 그룹 인터뷰(FGI) 결과

- 현지조사시 법원아카데미 교육생에 대한 수혜자 그룹 인터뷰를 실시함. 수혜자 인터뷰 결과, 법원아카데미 진학 이후 현대화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임. 도서관, 모의법정, 기숙사, 운동장 등의 시설을 많이 사용하며 만족도가 높음.
- 교육과정 중에서는 현업과 연계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실습과정과 현업내용을 반영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언급함
- 특히 한국의 지원으로 이론교육 이외에 현업의 특성을 반영한 교재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하여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됨. 교육과정의 현업연계가 법원아카데미 교육과정의 기타 교육기관과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음
- 현직 판사 등 교수요원을 확보하여 이론과 실무를 접할 수 있고, 모의법정에서 역할극 교육 등을 통해 현장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아카데미의 우수성이 인정됨
- 호노이에서 1시간 거리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렵지만 KOICA 봉사단 파견을 통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서비스가 좋아짐. 현재 5개반 약 100명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으로 입학 경쟁률이 20:1에 달하는 우수한 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였음

□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사업성과 평가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성과(outcome) 지표는 국가 토지정책 및 전략수립 적용, 토지정보시스템(VietLIS) 토지등록 현업 활용, 토지정부시스템 운영 등임.
- 종료평가보고서 상에서 시스템 구축 6개월 이후 시범실시 및 확대실시 준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전국적 사용을 위하여 수원국 정부 토지등록청(GDLA)가 노력하고 있고, 사업대상지에서도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국민편익증진: 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국의 토지정보를 과학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국민들의 편익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종료평가 보고서 상에서 드러나지는 않음.
- 기대/파급효과 및 영향력 : 본 사업 이후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고 활용도가 높다면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상 이익이 증진되는 등의 기대효과 있을 것으로 추정. 중앙-지방정부 시스템 연동, 토지등록 이외 지가산정 등의 기능을 추가개발하겠다고 밝혔는데 동 내용으로 2차 사업이 진행중이므로 후속사업을 통해 향후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2)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지속가능성 평가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법원연수원이 법원아카데미로 승격(2015년)하였음. 이를 위해 인민법원조직법 개정(2014년)이 이뤄짐. 본 사업이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원국 사법분야 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이 마련됨.
- 본 사업은 1차 법원연수원 사업에 이은 2차 사업으로 10여년을 지원하면서 베트남 사법개혁에 필요한 사법부 역량강화에 기여함. 거버넌스 사업은 장기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계사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성과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됨.
- 사후관리 사업이 100만불 추가로 편성되어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 수행. 교재개발 등 2차 사업에서 미완성 부분을 사후관리사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지속가능성 평가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수원국 정부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대상지 시범지역의 토지 DB를 구축함. 또한 전국 63개 성별로 지자체별 예산을 구축하라고 지시함.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후속사업으로 진행 중인 2차 사업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사업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

(1) 사업 효과 측정·도출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사업효과 측정과정의 합리성 평가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사업수행기관인 법원행정처는 사업효과 측정을 위해 PDM 지표를 단순 점검하는 방식으로 종료보고서를 작성함. KOICA는 종료평가를 통해서 제3자 기관이 2017.7 별도 평가를 실시함. 이 때는 정량/정성 방식으로 평가를 함. 산출/성과에 대해 기술함. 다만, 최초에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론에 대한 고도의 방법론을 수립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기본적인 성과점검은 적절하게 실시함

□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사업효과 측정과정의 합리성 평가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의 산출(output) 평가 지표는 적절하게 구성됨. 그러나 성과(outcome)지표는 산출에 해당하는 지표들도 있어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예를 들어, 종료평가에서 제시한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은 산출 지표로 볼 수 있음.
- 성과지표 중 ‘민원처리 서비스’는 ‘민원처리 서비스 건수’, ‘자발적인 운영’은 ‘업무활용율’ ‘토지사용권에 대한 법률 분쟁’은 ‘법률분쟁에 토지정보시스템 활용율’ 등으로 설정되었어야 함.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음.

(2)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fM)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측면에 대한 기술이 없어 Value for Money 측정은 어려움.
- 다만 투입 대비 산출(효율성)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임. 효과성/형평성에 대해서는 종료보고서나 종료평가서로는 판단이 어려움.

□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fM) 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측면에 대한 기술이 없어 Value for Money 측정은 어려움.
- 다만 투입 대비 산출(효율성)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임. 효과성/형평성에 대해서는 종료보고서나 종료평가서로는 판단이 어려움.

- 공공행정부문 사업의 예산대비 효율성을 형평성 측면에서는 측정하기 어렵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산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기관 수행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은 양호함.
-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국내 관련부처의 참여를 통해 ODA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은 우수한 편임.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수행하고,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수행함. 이와 같이 국내의 관련부처의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체계를 구축하여 수행체계를 적절히 구성함.
- 사업추진을 위한 수원국과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으나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수요변화 지속적 요구 등이 발생한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함.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수원국 최고인민법원 등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실제 집행에서는 수원국 분담사항 미이행 등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됨.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사업은 수원국 자원환경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원국 요구사항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1) 기관사업 수행추진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

(1)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 사업추진체계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평가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무상원조 기관인 KOICA와 우리나라 정부부처인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함.
- 사법연수원 등에서 연수를 진행하는 등 국내 사법부의 주요기관들을 적절히 활용함. 수원국의 파트너는 최고인민법원이고 법원연수원이 법원아카데미로 승격하면서 수원기관과의 협력도 원활하게 이루어짐.
- ‘베트남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발굴한 부처제안 사업으로 실제 사업은 정도UIT, 국토연구원, 대한지적공사 등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함.
- 컨설팅부문은 국토연구원과 지적공사가 담당, 시스템 구축은 정도UIT가 담당. 수원국은 자원환경부 토지행정청(GDLA)으로 수원기관은 적절한 기관으로 판단되며, 프로젝트 수행팀과 시범사업지(박닌, 다낭)의 담당부서도 수행체계에 참여함
- 정책 및 제도컨설팅은 국내 관련부처, IT 시스템 구축 및 건축은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와 수원국 해당 부처의 협조체계를 구축함
- 개발협력 전문성과 분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나라 및 수원국 관련기관과 역할분담을 적절히 조정한 점은 다른 사업의 교훈으로 참고할만함.

(2)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사업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노력 정도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 추진 노력 정도 평가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우리나라 법원행정처가 전문가 장기파견을 통해 사법분야 기술협력/자문등을 제공하였음. 종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인력의 역량에 대한 수원국의 만족도 높았음
 - 다만,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많지 않아 수원국 분담 미이행 시 리스크 관리 등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한 바 있음.

- 개발협력 전문역량과 분야 전문역량이 다른 데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 분야 전문성과 개발협력 전문성의 상호보완 노력이 필요함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사업은 수원국 자원환경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수원국 요구사항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기간 중 수원국과의 협력 정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향후 무상원조분야에서 행정제도구축 및 개선 원조사업 발굴 필요

- 베트남은 무상원조 및 유상원조의 집중분야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무상원조로 제도구축 및 개선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 동 분야는 한국이 다른 공여국에 비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거버넌스 분야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 고려 가능. 단, 지방정부의 집행역량을 고려하여 수원기관과 협력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운영·기관역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원조로 운영

- 거버넌스 분야 사업의 특징상 제도구축 및 개선은 장기과제로서 10여년 이상 기간동안 프로그램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
-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은 (1차) 법관 연수 선진화사업, (2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으로 연계하여 실시하고, 사후관리 사업을 추가로 실시함. 또한 (3차)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절차의 투명성 강화 및 재판품질 향상 지원사업 등으로 연계하여 사업을 실시함
- 토지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 역시 후속사업으로 지가산정 역량강화 및 지가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1차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우리나라의 ODA 는 프로그램 원조는 거의 전무한 가운데 대부분의 ODA 사업이 대부분 프로젝트형 사업을 실시되고 있음. 반면, 베트남

공공행정분야 사업은 동일 주제로 유사사업들을 연계하여 실시하여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후속사업 연계, 봉사단 및 자문관 파견과 연계 등 다양한 원조 수단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은 타 사업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음

3) 사업 평가·성과관리 관련 쟁점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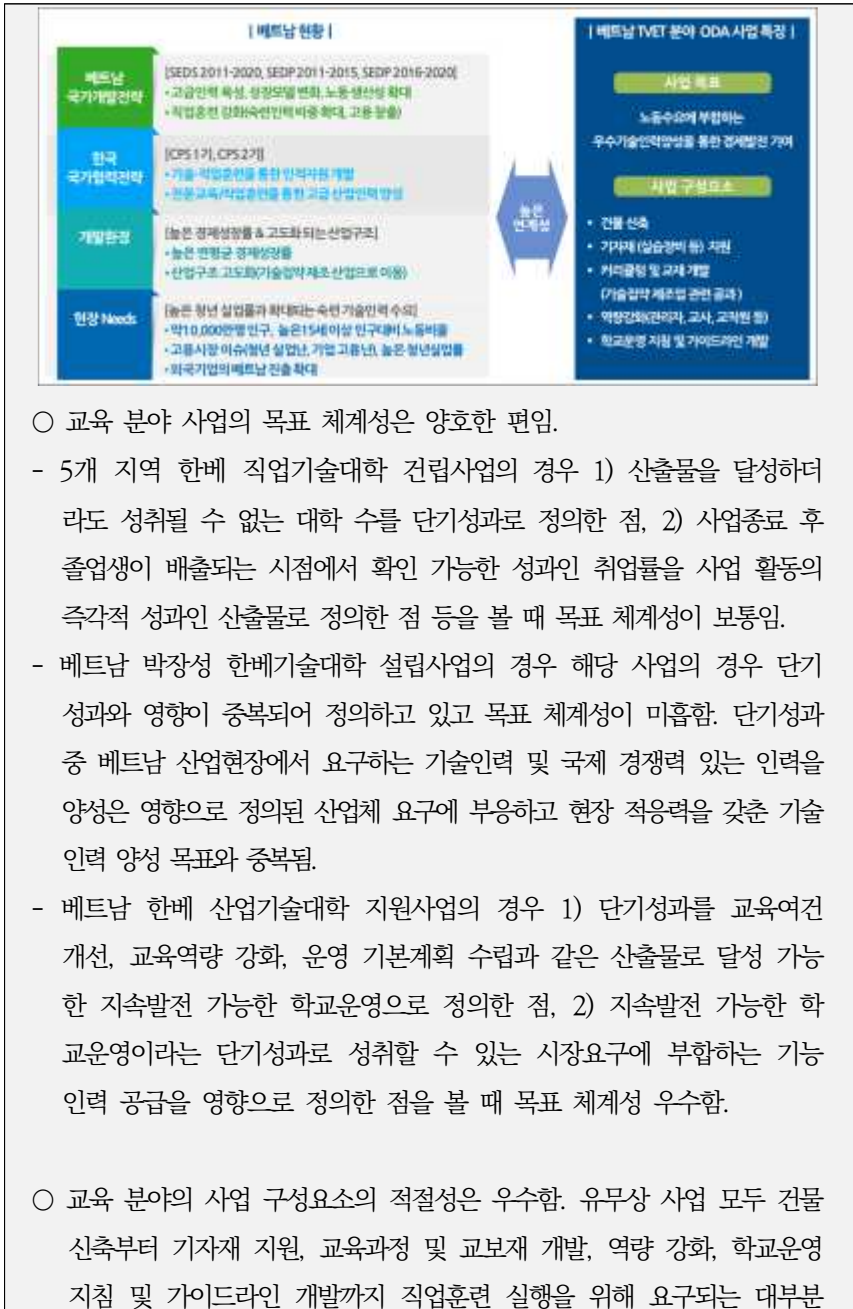
□ 산출 및 성과지표의 체계적 구성 필요

- 공공행정분야는 단기간의 사업으로 거버넌스 개선이 어렵고, 인과관계 입증에 타 분야에 비해 더욱 어려워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성과관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발효과성 달성을 위해서 투입-활동-산출-단기성과-장기성과가 연계되도록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를 구성해야 하나, 평가 대상 공공행정 분야 사업은 목표체계성 부분에서 특히 미흡한 점이 드러남
- 활동-산출-성과 지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상위수준의 목표 및 성과지표와 하위수준의 목표 및 성과지표가 구분 없이 사용되는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함

제2절 교육(직업훈련) 분야

1. 사업계획의 적절성 평가

-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의 사업계획 적절성 및 합리성은 양호함.
- 교육 분야 사업의 계획은 1) 사업 목표가 모두 CPS 목표인 전문 인력 육성, 고용창출 등과 일치하고, 2) 사업 구성요소 역시 CPS 실행계획에서 언급된 시설 확충, 제도 개선, 연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 1기 CPS와의 일관성이 높음.
- 또한 1)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20의 정책 목표인 고급인력 양성과 사회경제개발계획 사회 부문 목표인 고용창출과 일관되게 사업 목표가 수립되어 있고, 2) 사업 구성요소 역시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20의 정책 목표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교 건축 및 기자재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일관성 역시 높음.
- 한편 베트남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과 산업구조 고도화 노력으로 직업훈련 분야 개발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한 젊은 노동인구 비율과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해외기업의 베트남 진출로 직업훈련 학교 입학생과 졸업생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존재함. 이에 직업기술 대학을 건립하고 학생 교육훈련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과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함.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형태로 구성됨. 이 같은 포괄적 사업 구성은 1)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업훈련 분야 예산이 부족하고, 2) 기초 인프라가 없거나 낙후되어 있으며, 3) 관리자의 학교운영 역량과 교사의 기술 수준이 낮은 수원국 상황에서 성과를 담보하기에 적절함.

- 교육 분야의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는 보통임. 베트남 직훈 분야 ODA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ODA 사업에서 건물 신축과 기자재 구매는 그 조달과 입찰, 실제 활동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연이 발생함에도 일정 계획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1)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국별전략 및 사업계획

- 베트남 1기 CPS 교육 분야 전략의 목표와 실행계획

- 평가대상 사업계획이 수립된 시점의 CPS인 1기 CPS 분석

〈표 3-7〉 베트남 1기 CPS 교육분야 전략

구분	베트남 1기 CPS(2011-2015) 교육 분야 전략
목표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현대화된 산업국가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창출과 빈곤퇴치에도 기여
실행계획	· 직업훈련시설의 지속적 확충 · 직훈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자문, 교사연수, 전문가파견 등을 통한 역량 강화

○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표 3-8〉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구분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20	· 정책 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고급인력 육성, 인프라 확충
사회경제개발계획 2011-2015	· 목적: 2015년까지 연평균 7~8% 성장을 달성하여 1인당 국민소득 2,100달러를 실현하여 현대화된 산업국가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 · 중점 분야: 1) 경제 분야, 2) 교육직업훈련 및 과학기술, 3) 자원 환경 분야, 4) 사회 분야 · 사회 분야 목표: 800만 명 고용창출, 숙련인구 비율 55% 확보, 연간 2%의 빈곤가구 감소, 인구증가율 15% 이하 실현임

○ 베트남 1기 CPS 기간 중 추진된 평가대상 사업의 계획

〈표 3-9〉 베트남 1기 CPS 기간 중 추진된 평가대상 사업 계획 요약

구분	유상(EDCF 사업)	무상(KOICA 사업)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목표	· 주요 거점도시에 5개 직업훈련 기술대학을 건립함으로써 숙련된 기능 인력의 양성 및 산업발전국가 경제 활성화 도모	· 전문대학 수준의 고급 기능인력 양성을 통한 박장성 및 주변지역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 한베산업기술대학의 직업훈련 여건 개선을 통하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
기간	2008-2016	2011-2013	2014-2016
예산	6,350만불	1,000만불	600만불
주요 사업 구성요 소	· 건물 신축 · 교육훈련용 기자재 구매 ·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컨설팅 서비스	· 건축 · 기자재 지원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전문가 파견 · 초청연수(관리자, 교사)	· 건축 · 기자재 지원 · 대학운영 및 책임 전문가 파견 · 석사 및 관리자, 교사 연수

□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1기 CPS 교육 분야 전략과 사업계획 일관성) 평가대상 사업계획은 1) 사업 목표가 모두 CPS 목표인 전문인력 육성, 고용창출 등과 일치하고, 2) 사업 구성요소 역시 CPS 실행계획에서 언급된 시설 확충, 제도 개선, 연수 등을 포함하고 있어 1기 CPS와의 일관성이 높음.
-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사업계획 일관성) 베트남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기술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함. 평가대상 사업의 계획을 살펴보면 1)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20의 정책 목표인 고급인력 양성과 사회경제개발계획 사회 부문 목표인 고용창출과 일관되게 사업 목표가 수립되어 있고, 2) 사업 구성요소 역시 사회경제개발전략 2011-2020의 정책 목표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학교 건축 및 기자재 확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베트남 국가발전전략과 일관성이 높음.

2) 사업프로그램 목표 체계성

□ 유상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및 성과지표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목표
 - 본 사업은 사업목표를 성과지표 형태로 작성했으며 사업계획과 종료 시 사업목표의 차이가 있음.
 - 산출물 지표 중 2개를 단기성과 지표로 변경: 심사보고서상 산출물 (Output)은 ① 졸업생 수 ② 취업률 ③ 기술 표준화 ④ 교과 및 교재 개발 ⑤ 연수 수료 교직원 수이었으나, 당초 지표에서 ① 졸업생 수 ② 취업률은 완공 직후의 산출물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단기성과(Outcome) 지표로 변경함.
 - 기존 단기성과 지표를 「대외경제협력기금 평가기준」 직업훈련원 표준지

표로 대체: ① 기존 대학 수, ② 대학입학 학생 수, ③ 자격증 소유 교원 수였던 단기성과 지표를 ① 졸업생 취업률, ② 학생/교사/교직원 만족도, ③ 훈련시설 및 장비활용도, ④ 훈련생 등록률, ⑤ 중도탈락률로 대체함.

- 이에 아래 표에 사업계획 시 수립한 사업목표는 초기 지표로 사업 종료 시점의 최종 수정 사업목표는 최종 지표로 표기함¹⁸⁾.

〈표 3-10〉 베트남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초기 지표	최종 지표
Impact (중장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받는 노동인구 비중 · 도시지역 실업률 · 농촌지역 실업률 · 직업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 	
Outcome (단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수 · 대학입학 학생 수 · 자격증 소유 교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 취업률 · 학생/교사/교직원 만족도 · 훈련시설 및 장비 활용도 · 훈련생 등록률(정원대비 등록률) · 중도탈락률
Output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생 수 · 취업률 · 기술표준화 · 교과 및 교재개발 · 연수 수료 교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시설 · 기자재 및 장비 건수 · 기술표준화 개발 · 교과 및 교재 개발 · 연수 수료 교직원 수

18) EDCF 완공평가보고서 참조

□ 유상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5개 지역 한배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목표 체계성)

- 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시점에서 사업프로그램 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있음.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환경과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함.
- 사업계획 시점에 정의한 초기 지표의 경우 지표의 정확한 기술, 목표에 맞는 적절한 지표의 선정,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 측면에서 모두 보통임.
- 구체적으로 1) 산출물이 학교건물, 기자재, 교육 프로그램 등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성과 지표를 '대학 수'로 정의. 즉 산출물 달성으로 성취할 수 없는 지표를 단기성과 지표로 정의한 점, 2) 사업종료 후 졸업생이 배출되는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성과인 취업률을 사업 활동의 즉각적 성과인 산출물로 정의한 점, 3) 베트남 정부는 직업훈련 학교의 수보다 교육 품질과 운영 자립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대학 수를 단기 성과 지표로 선정한 점 등을 볼 때 목표 체계성이 미흡함.
- 하지만 사업종료 시점에 정의한 최종 지표의 경우 모든 측면에서 개선되어 목표 체계성이 양호함.

□ 무상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목표
 - 사업계획 시 수립한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11>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Impact (영향)	·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춘 기술 인력 양성
Outcome (단기성과)	· 베트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및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 · 기술교육 기본모형을 적용하여 자립발전할 수 있는 기술대학 건립
Output (산출물)	· 현지 산업요구에 적합한 기술대학을 건립 · 기술대학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과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고 기술대학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을 개발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성과지표

-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계획 시 정의한 초기 지표와 사업 종료 시점의 최종 지표에 차이가 있음.
- 최종 지표가 사업 활동과 목표를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정의됨.

〈표 3-12〉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구분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초기 지표	최종 지표
Impact (중장기 성과)	·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는가 · 기술교육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술 장비는 효과적으로 지원되었는가 · 우수한 산업인력 배출: 연간 정규 과정 270명 특별과정 운영	· 우수한 산업인력 배출: 졸업생 취업을 70% · 학교평판 순위 5위 이내 진입 · 기업체 졸업생 만족도 80% 이상 · 지역사회에의 파급효과
Outcome (단기 성과)	· 정규과정 연간 270명 이상 학생 등록, 연간 졸업생 정원의 90% 이상 배출 · 정부의 기술대학 운영예산 지원을 프로젝트 수립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유지, 5% 이상의 장비유지보수 및 운영예산 반영 · 교육교재(교안 포함) 발간 공과 당 3건 이상 · 자립발전을 위한 수익모델 개발	· 정규과정 연간 300명 이상 학생 등록 · 베트남 대학 평균 대비 졸업생 배출률 300% 향상 · 신입생 충원률 90% 이상 · 졸업생 만족도 4점(5점 만점) 이상 · 기자재, 교육과정, 교사에 대한 재학생 만족도 4점(5점 만점) 이상 · 기자재 활용도 100% · 전체 운영예산 대비 자체 수입 비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총원률 100% · 초청연수 참여교사의 재직률 90% · 교사 역량강화 재교육(교사 인원의 30%) · 마스터플랜 이행 · 산학협력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Output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장비, 연수생 초청,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만족도 보통이상 · 기술대학 운영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여부, 산업체와 연계된 기술인력 양성프로그램 개발 · 취업실적 산업체 및 졸업생 평가 설문 · 개발된 실습교재 5권 이상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신축 (약 9,100m2) · 관리자 (7명/2주) 및 훈련교사 (20명/3개월) 초청연수 실시 · 초청연수 참여자 100% 수료 · 초청연수 만족도 4점(5점 만점) 이상 · 마스터플랜 1건 개발 · 교육과정 5건 개발 · 각 공과별 교과서 2건 개발 · 기자재 총 5,181종 지원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목표

- 사업계획 시 수립한 사업목표는 다음과 같음.

〈표 3-13〉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목표

구분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Impact (영향)	· 산업인력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능 인력을 공급한다.
Outcome (단기성과)	· 기술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기반구축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 운영을 도모한다.
Output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시설 확장, 관련 실습장비 및 비품 등을 지원하여 기술학교 운영을 강화한다. · 전문가, 연수생 등을 통해 기술교육능력을 강화하고 교재개발 및 직훈 분야 정책수립 등을 자문하여 기술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성과지표

- 본 사업의 경우 3차에 걸쳐 지원 중인 사업으로 각 차수별로 목표가 구분되어 정의됨.

〈표 3-14〉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성과지표

구분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2차 사업 지표	3차 사업 지표
Impact (중장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취업률(90% 이상) · 학생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마스터 플랜 수립 여부 · 운영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기술, 장비 지원 · 우수한 고급 기술인력 배출 · 훈련 프로그램 개선 여부
Outcome (단기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과별 60명 이상 학생 등록 · 공과별 연간 졸업생 90% 이상 배출 · 공과별 훈련교사 8명 이상 확보 · 정부의 학교 운영예산 지원율 70% 이상 · 장비유지 보수 및 교체 비용을 학교 운영예산의 15% 이상 · 졸업생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기술대학의 등록생 및 졸업생 수 · 대상 기술대학의 교직원 수 · 정부의 기술대학 운영예산 지원 · 수익모델 개발 여부
Output (산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기자재 활용 만족도(보통이상) · 교육시설 만족도(보통이상) · 연수과정 만족도(보통이상) · 학교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이행 여부 · 공과별 학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과목별 실습교재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신축건물 완공 · 지원기자재 현황 및 만족도 · 수원기관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전문가 자문에 대한 설문조사 만족도 · 산업기술대학 대학운영종합계획 수립과 공과별 학사운영계획 수립 여부

□ 무상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목표 체계성)

- 본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시점에서 사업프로그램 목표와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정의하고 있음.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환경과 사업내용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수정 보완함.
- 사업목표의 경우 단기성과와 영향이 중복 정의되어 있어 목표 체계성이 보통임. 단기성과 중 베트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인력 및 국제 경쟁력 있는 인력을 양성은 영향으로 정의된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고 현장 적응력을 갖춘 기술 인력 양성 목표와 중복됨.
- 한편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계획 시점에 정의한 초기 지표는 지표의 정확한 기술,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 측면에서 보통임.
- 구체적으로 사업계획 시 초기 성과지표의 경우에는 1) 지표를 의문문 형태로 기술한 점(예. 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였는가, 기술교육 운영효율화를 위한 기술 장비는 효과적으로 지원되었는가), 2) 우수한 산업인력 배출 성과의 성과지표를 인력의 역량을 확인할 수 없는 ‘특별 과정 운영 수’로 정의한 점, 3) 산출물에 해당하는 ‘공과 당 교육교재 발간 건수’를 단기성과 지표로 정의한 점 등을 볼 때 목표 체계성이 보통임.
- 하지만 사업종료 시점에 정의한 최종 지표의 경우 중장기 성과지표를 ‘지역 사회에의 파급효과’로 정의한 점(해당 지표는 성과를 기술한 것에 가까움.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 제시 필요)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나 그 외 대부분 지표는 개선되어 목표 체계성이 보통임.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목표 체계성)

- 본 사업의 경우 3차에 걸쳐 지원 중인 사업으로 각 차수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목표가 구분되어 정의됨.
- 사업목표의 경우 1) 단기성과를 교육여건 개선, 교육역량 강화,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산출물로 달성 가능한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운영으로 정의한 점, 2) 지속발전 가능한 학교운영이라는 단기성과로 성취할 수 있는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기능인력 공급을 영향으로 정의한 점을 볼 때 목표 체계성이 우수함.
- 하지만 성과지표의 경우 각 차수별로 제시된 지표의 지표 정의 자체 및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간의 논리 전개가 보통임.
- 구체적으로 1) 3차 사업의 중장기 성과 지표 중 우수한 고급 기술인력 배출, 운영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기술, 장비 지원을 지표 정의문이 아닌 목표문으로 기술한 점, 2) 2차 사업의 단기성과 지표 중 졸업생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을 지표 정의문이 아닌 목표로 기술한 점(취득률 등으로 수정 필요), 3) 3차 사업의 중장기 성과 지표 중 산출물 지표인 운영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기술, 장비 지원 즉 지원 여부 지표가 들어간 점 (운영효율화 정도가 평가 대상이었다면 지표 이름 수정 필요) 등을 볼 때 성과지표는 개선이 요구됨.

3)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 유상 사업의 사업계획 내 사업 구성요소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사업 구성요소

- H/W인 건물 신축과 기자재 구매, S/W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및 초청연수, 학교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산학협력매뉴얼 개발 등으로 구성됨.

〈표 3-15〉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구성요소

구분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H/W	· 건물 신축 · 교육훈련용 기자재 구매
S/W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력 역량강화	· 연수
기관 역량강화	· 컨설팅 서비스 · 산학협력매뉴얼 개발
사업관리	· 사업관리

□ 무상 사업의 사업계획 내 사업 구성요소

○ 베트남 박장성 한베 기술대학 설립사업과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구성요소

- 두 사업 역시 유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H/W인 건물 신축과 기자재 구매, S/W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 및 초청연수, 학교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과 기술대학 운영계획 개발 등으로 구성됨.

〈표 3-16〉 베트남 직훈 분야 무상사업 구성요소

구분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1차	2차	3차
H/W	· 건축	· 건축	· 실습동 신축	· 건축
	· 기자재 지원	· 기자재 지원	· 기자재 지원	· 기자재 지원
S/W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	· 교육과정 설계 기준 설정 및 개선
인력 역량강 화	· 초청 연수 (관리자, 교사)	· 연수생 초청 (관리자, 학장 및 교육처장, 교수)	· 초청 연수 (학교운영 및 공과 교사 능력 향상)	· 석사, 관리자, 교사 장기 및 단기 연수
기관 역량강 화	· 전문가 파견 · 기술대학 운영 계획 개발	· 전문가 파견	· 전문가 파견	· 전문가 파견 · 대학운영 중 합계획 수립
사업관리	· 사업관리	· 사업관리	· 사업관리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내 사업 구성요소 적절성

- (유무상 사업의 사업 구성요소 적절성) 유무상 사업 모두 건물 신축부터 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 역량 강화, 학교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까지 직업훈련 실행을 위해 요구되는 대부분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형태로 구성됨. 이 같은 유무상 사업의 포괄적 사업 구성은 1)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직업훈련 분야 예산이 부족하고, 2) 기초 인프라가 없거나 낙후되어 있으며, 3) 관리자의 학교운영 역량과 교사의 기술 수준이 낮은 수원국 상황에서 성과를 담보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그림 3-8〉 베트남 직훈 분야 ODA사업의 일반적 사업 구성요소



- 실제 현지조사 시 수원국 이해관계자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이 한국 ODA 사업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평가함¹⁹⁾.
-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형태의 사업 구성은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구성요소 간 시간적·내용적 연계 확보의 어려움을 가짐으로써 일정지연, 기타 품질 및 사업관리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형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과 성과관리에 대한 투입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19) 베트남 노동사회보훈부(MOLISA) 면담 (2019.8.28.)

4)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 유무상 사업의 사업계획 내 내용 및 일정

- 베트남 교육 분야 유무상 사업의 사업계획 내 사업내용 및 일정
 - 합리적 연계 정도 판단을 위해 실제 소요 기간도 함께 확인

〈표 3-17〉 베트남 직훈 분야 유무상 사업계획 내 내용 및 일정

구분	유상	무상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신축 · 교육훈련용 기자재 구매 · 교육프로그램 개발 · 연수 · 컨설팅 서비스 · 산학협력 매뉴얼 개발 ·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기자재 지원 ·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 초창연수(관리자, 교사) · 전문가 파견 · 기술대학 운영계획 개발 ·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 · 기자재 지원 · 교육과정 설계 기준 설정 및 개선 · 석사 및 관리자, 교사 장기 및 단기 연수 · 대학 운영 및 책임 전문가 파견 · 대학운영 종합계획 수립 · 사업관리
계획 일정	총 30개월	2011-2013	2014-2016
실제 소요 일정	2008.9-2016.11 (총 98개월)	2011.7-2014.10	2014-2019

□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 **(유무상 사업의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베트남 직업훈련 분야 ODA 사업의 경우 유무상 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되어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ODA 사업에서 건물 신축과 기자재 구매는 그 조달과 입찰, 실제 활동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연이 발생함에도 일정 계획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2. 사업수행의 적정성

-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의 사업수행 적정성은 우수한 편임.
- 교육 분야 사업은 유무상 모두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은 높음. 일정준수 면에서는 베트남 교육 분야 사업의 경우 유무상 형태와 관계 없이 일정이 계획 대비 상당히 지연되어 일정 준수가 미흡하지만 산출물 달성도 면에서는 모두 우수함.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 범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최초 계획대비 산출물 달성도는 미흡하지만 변경된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출물 달성도는 우수한 편임.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은 목표한 산출물을 모두 달성함.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은 자체 종료평가 결과에 근거 산출물 계획 달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 교육 분야 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 적정성은 유무상 사업 모두 우수한 편임.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의 경우 베트남의 높은 물가상승률, 베트남 정부의 직업기술학교 육성 전략 발표 등의 외부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범위와 목표를 변경함. 유상 사업은 집행예산이 대출금(loan)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정한 예산 내에서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목표를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 판단됨.
 - 무상 사업의 경우 1) 사업 수행계획 시 위험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사업수행자와 현지사무소 간 그리고 현지사무소와 수원국 정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현지 상황변화에 대응함.

1) 사업수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 교육 분야 사업은 유무상 모두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은 높은 편임. 일반적으로 일정준수와 예산집행 달성도는 미흡했으나 계획한 산출물 목표는 대부분 달성함.

□ 일정준수

- 베트남 교육 분야 ODA 사업의 경우 유무상 형태와 관계없이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일정준수는 미흡함.

〈표 3-18〉 베트남 직훈 분야 ODA 사업 일정계획 및 실제 소요일정

구분	유상	무상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계획일정	▪ 2008.09-2011.03 (총 30개월)	▪ 2011-2013	▪ 2014-2016
실제 소요일정	▪ 2008.09-2016.11 (총 98개월)	▪ 2011.07-2014.10	▪ 2014-2019
일정지연	68개월	약 10개월	약 36개월

○ 일정지연 원인

① 수원국 거버넌스 특징으로 인한 지연 발생

- 베트남은 타 개도국에 비해 수원 관련 거버넌스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되고 있으며 수원총괄기관인 기획투자부(MPI)가 원조 창구로서 베트남 정부 내에서의 원조사업에 대한 조율과 조정 역할 수행
- 복잡한 사업승인 절차: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의 특성에 따라 사업승인

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음(Decree 16 및 132 근거). 베트남 자체 심사가 2단계로 구분됨. 1차 심의(KOICA 정부예산 신청단계)는 베트남 관계기관(Proposal for Investment Policy) → MPI → 총리승인이며, 2차 심의(KOICA R/D 서명 이후 단계)는 수원기관장 Feasibility Report(기존, Project Document) 승인임. 사업 승인과정에서 수원기관의 문서 작성 품질 등에 따라 유관 부서 사업 검토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여 사업 추진 지연이 발생함. 또한 베트남 정부는 자체 2단계 사업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식적인 사업착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측 사업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전체적인 사업일정 지연 및 조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수원국 분담사항에 대한 철저한 이행 의지: 승인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베트남 자체 계획 문서 (Project Document)에 의거해 사업수행 조직(PMU)이 구성되고 베트남 측 분담사항과 담당 예산 이행이 철저하게 이루어짐. 이러한 베트남 측의 분담사항에 대한 충실한 이행 의지는 역으로 베트남 정부의 예산확보 등을 기다려야 하는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일정지연 이유가 됨.

② 사업문서 상에 언급된 추가 지연 사유

- 1) 수원국 정책변화, 2) 이해관계자 변경, 3) 수원국 분담사항 이행 지연, 4) 참여 인력 및 기관의 역량 부족 등이 구체적인 일정지연 사유로 언급되고 있음.

③ 유상 사업이 무상 사업보다 더 많은 일정지연이 발생하는 이유

- 유상 사업은 사업 소유권(ownership)이 수원국 측에 있어 사업의 모든 추진 절차에서 공여국과 수원국 양국 정부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가짐. 이에 유상 사업에서 일정지연이 더 길게 발생함²⁰⁾.

20) EDCF 베트남 사무소 면담 (2019.8.27.)

□ 산출물 달성도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산출물 달성도

- 사업 추진과정 중 사업 범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최초 계획대비 산출물 달성도는 미흡함. 하지만 변경된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출물 달성도는 우수한 편임.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물 목표 및 달성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19〉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산출물 달성도

구분	성과지표	Target	변경된 Target	결과('17년)
Output (산출물)	1. 훈련시설	3개 대학(22개동) 신 축	8개동	8개동
	2. 기자재 및 장비 건수	5,723종	5,723종	11,083종
	3. 기술표준화 개발	총 17개 직종	8개 직종	8개 직종
	4. 교과 및 교재 개발	총 34개 직종 (17개 직종, 2개 과정)	8개 직종 157종 교재	8개 직종 157종 교재
	5. 연수수료 교직원 수	교사 274명, PMU 20 명, 직원(노동부, 대 학) 130명	교사 436명	교사 455명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산출물 달성도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산출물 달성도는 우수함.
- 동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물 목표 및 달성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3-20〉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산출물 달성도

구분	성과지표	Target	결과('14년)
Output (산출물)	1. 건물 신축	약 9,100 m ²	약 9,190 m ²
	2. 관리자 및 훈련교사 초청 연수 실시	관리자 7명 2주, 훈련교사 20명 3개월 연수	관리자 7명 2주, 훈련교사 20명 3개월 연수
	3. 초청연수 참여자 수료율	100%	100%
	4. 초청연수 만족도	4점 이상	4.92
	5. 마스터플랜 개발	1건	1건
	6. 교육과정 개발	5건	5건
	7. 각 공과별 교과서 개발	각 2건	각 2건
	8. 기가재 지원	5,181종	5,181종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산출물 달성도

- 베트남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산출물 달성도는 우수한 편임.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은 사업일정 지연으로 아직 사업이 종료되지 않음. 이에 산출물 달성도는 평가하지 못함.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2차 지원사업은 KOICA 내부에서 실시한 종료평가 결과에 근거 사업의 산출물 달성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됨.

(2)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 적정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 적정성

-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 적정성은 유무상 사업 모두 우수한 편임.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의 경우 베트남의 높은 물가상승률, 베트남 정부의 직업기술학교 육성 전략 발표 등의 외부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범위와 목표를 변경함²¹⁾. 유상 사업은 집행예산이 대출금

21) EDCF 베트남 사무소 면담 (2019.8.27.)

(loan)이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정한 예산 내에서 사업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범위를 조정하되 목표를 함께 조정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라 판단됨.

- (건물 신축) 당초 3개 직업기술대학, 22개동의 건물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베트남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직업교육훈련에 필수적인 실습동, 강의동, 행정동 위주로 사업 범위가 조정되어 총 8개의 건물을 신축함.
- (기자재 지원) 베트남 정부는 국제수준의 직업기술학교 육성을 목표로 「2011-2020 인력개발전략(Vietnam'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trategy for Period 2011 to 2020 Decision No. 826)」을 '11. 7. 7에 발표하였으며 동 전략에서 직업기술학교를 직종별, 기술 수준별로 구분하여 규정화함. 동 결정문에 따라 한국 교육제도상 학과(Department)로 사용되는 분류체계를 베트남 교육제도상 직종(Trade)으로 통합(31개 Department, 72개 Trade → 24개 Trade)하고 기자재를 재배치함. 개설학과 조정에 따라 교육 기자재는 확대 공급함.
- (프로그램 개발) 당초 사업 범위는 기술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노동시장 조사, 산학연계 파트너십 개발 등이었음. 기술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은 직종 통합에 따라 범위가 조정(17개 직종→8개 직종)되었으며 8개 직종 대상 기술표준과 교육과정 및 157종의 교재가 완성됨. 노동시장 조사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자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산업이 광범위한바 산학협력매뉴얼(SIP) 공급으로 대체 시행함.
- (교육훈련) 사업비 증가로 당초 계획하였던 교직원과 노동보훈사회부(MOLISA) 직업훈련총국(GDVT) 직원 대상 연수 및 한국초청훈련 대상은 축소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직업기술대학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행함.

- 무상 사업의 경우 1) 사업 수행계획 시 위험관리 방안을 작성하고 위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2) 사업수행자와 현지사무소 간 그리고 현지사무소와 수원국 정부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현지 상황변화에 대응함.

2)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 사업의 난이도

- 평가대상 직업훈련 사업의 경우 모두 대규모 프로젝트형 직업훈련 사업으로 건물 신축, 기자재 구매 및 설치,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교보재 개발, 현지 및 초청연수, 컨설팅 등과 같은 여러 사업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업실행 난이도가 높음.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의 사업결과 타당성은 우수함.

- 교육 분야 사업의 사업 효과성 및 영향력은 우수함. 유무상 사업 모두 목표한 성과(outcome)를 대부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 학교 리더십 및 교직원, 학생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음. 특히 직업훈련기관 핵심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졸업생 수와 취업률이 매우 높게 나옴.
- 이처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1) 충분한 예산 규모, 2) 지원의 연속성 확보, 3) 사업 대상지 및 수원기관 선정의 적절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참고로 5개 지역 한배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의 경우 본 평가에서는 졸업생이 배출된 하노이 직업기술대학을 중심으로 사업 효과성을 평가하여 사업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현지조사 시 확인결과 5개 지역

직업기술대학 간 성과 편차는 클 것으로 판단됨.

- 교육 분야 사업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은 우수함.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은 현재 각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5개 학교 중 3개 학교가 MOLISA가 선정한 88개 중점직 종학교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속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이에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은 KOICA는 2019-2020 간 사후 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1) 높은 초기 입학 지원율, 2) 근처 산업단지 존재, 3) 정부가 선발한 45개 center of excellence에 선정되어 매년 직업훈련총국으로부터 50만불을 2020년까지 지원받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속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은 2014년 노동보훈사회부로 부터 베트남 내 우수 45개 직업훈련대학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지속가능한 대학운영과 발전이 기대됨.
- 교육 분야 사업의 사업 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은 보통임.
 - 유무상 사업 공통으로 정량 성과 중 졸업률, 취업률 등 성과는 단순 산출하고 만족도 등 성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함. 한편 정성적 성과는 FGI, 이해관계자 인터뷰, 평가워크숍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음.
 - 하지만 유무상 사업 공통으로 사업계획서 상에서 정성적 평가방법 및 도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1) 사업 효과성 및 영향력

(1) 계획수립 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정도

- 교육 분야 평가대상 사업효과 발생 정도는 우수함. 유무상 사업 모두 목표한 성과(outcome)를 대부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 학교 리더십 및 교직원, 학생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음. 특히 직업훈련기관 핵심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졸업생 수와 취업률이 매우 높게 나옴.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성과(outcome) 달성도

- 훈련생 등록 현황
 - 하노이 직업기술대학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자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훈련생 증가추세를 보임.

〈표 3-21〉 하노이 직업기술대학 훈련생 등록 현황

학과	2015 - 2016		2016 -2017				2017-2018				2018-2019						2019-2020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M	F		
	College		Secon-dary		C		S		C		S		C		Trans-fer		S			
Metal cutting	17	2	44	45	17	4	35	41	17	2	38	48	23	8	14	7	57	58		
Welding	13		19		9		40		11	0	14	0	7	0	4	0	14			
Automobile-tech	30		26		26		87	1	28	0	53	0	35	0	4	0	76	3		
Electricity	22		84	11	36	1	129	30	25	0	123	21	36	8	24	0	73	19		
Electronics	40	5	72	18	28	4	129	79	44	0	128	56	30	12	16	0	100	37		
Mechantro-nics	22	1			18	1			6	0	0	0	21	0	0	0	0	0		
소계	144	8	245	74	134	10	420	151	131	2	356	125	152	28	62	7	320	117		
총계	471		715				614				686						Tentative 800			

○ 하노이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취업률

- 하노이 직업기술대학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자체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거의 100% 취업률을 보임.

〈표 3-22〉 하노이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취업률

Major	학생 수	졸업생 현황										평균임금
		베트남 회사	%	외국 회사	%	프리랜서	%	학업 지속	%	하위근무/유학	%	
Electricity	55	11	20	9	16.4	15	27	17	30	3	6.6	6-8 mill VND for local company 9-15 mill VND for foreign company
Metal cutting	45	12	26.6	10	22.2	0	0	22	48.8	1	2.4	
Electronics	34	10	29.4	15	44.1	6	17.6	1	2.9	2	6	
Mechatronics	16	7	47.7	4	25	1	23	0	0	4	25	
Automobiles	40	12	30	8	20	15	37.5	2	5	3	7.5	
Welding	24	12	50	8	33.3	0	0	2	8.3	2	8.3	

- 평가팀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졸업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역시 아래와 같이 100% 취업률을 보임.

하노이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 목적: 졸업생 취업률 및 교육훈련 적절성 조사
- 기간: 19.08.29 ~ 19.09.25
- 대상: 하노이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2. 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126명
- 취업률: 100% (임금 근로자: 84%, 자영업: 16%)
- 취업시기
 - 졸업 후 0~6개월: 80%
 - 졸업 후 7~9개월: 20%
- 교육훈련 적절성
 - 졸업 전공과 직업 관련성 있음: 53%
(관련성 매우 높음: 52%, 보통: 43%, 낮음: 3%)
 - 졸업 전공과 직업 관련성 없음: 47%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취업률

- MOLISA가 제공한 조사 결과 5개 직업기술대학 중 졸업생을 배출한 3개 학교는 평균 86.7%의 높은 취업률을 보임.

〈표 3-23〉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졸업생 취업률

학교명	학생수 (2015-2018)	취업률	비고
Cà Mau	519	80%	
Quảng Ngãi	204	90%	
Hà Nội	597	90%	
Quảng Ninh	95	-	2016년 등록 시작으로 첫 졸업생은 2019 배출 예정
Bình Dương	84	-	2017년 등록 시작으로 첫 졸업생은 2020 배출 예정

- 학생/교사/교직원 만족도
 - 수원기관 면담 시 확인결과 사업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특히 건물 신축과 최신 기자재 지원, 그리고 해당 기자재 활용을 위한 초청연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음²²⁾.
- 훈련시설 및 장비활용도
 - 초기에는 실습 장비 1대당 5명이 실습한데 반해 지금은 1대당 6~7명이 실습하고 있어 장비활용도는 매우 높음. 현재 오히려 등록 훈련생 증가로 실습용 기자재가 부족한 상황임. (사업계획 시 학생 수를 1,100명으로 예상하고 기자재를 구축했으나 현재 학생 수는 이를 훨씬 초과한 2,100명임.)
- 산학협력
 - 하노이 기술대학은 하노이 북쪽 지역의 많은 회사와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턴십,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산학 프로젝트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임. 하노이 기술대학이 MOU를 체결한 기업은 LS VINA, LG Display, LS Cable, Mediatek, Bangjoo, Youil, Sam OH, GEOSAN 등임. 핑나이 기술대학은 부산산업단지 와 산학협력 관계를 구축함.
- 기타 추가성과
 - 하노이시 Teachers Skill Festival 2017에서 팀 은메달 수상, National Teachers Competition 2018에서 금메달 1개 수상, Hanoi Student Skill Competition 2018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수상, National Skill Competition 2018에서 금메달 수상, Competition of Self-made Equipments 2019에서 1등상 1명, 2등상 1명, 3등상 1명 수상, 수상(prime minister)으로부터 우수 교사 표창 수여 등

22) 하노이 직업기술대학 면담 (2019.8.28.)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성과(outcome) 달성도

○ 입학경쟁률

- 박장성 한베기술대학은 베트남 내의 정규 고등학교를 졸업 후 일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체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아 4:1의 입학 경쟁률을 보임.

〈표 3-24〉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입학경쟁률

입학년도	정원(명)	지원자 수(명)	입학경쟁률
2016	420	1,387	약 3:1
2017	548	2,006	약 4:1
2018	554	2,014	약 4:1

○ 졸업생 취업률

- 90%를 상회하는 높은 취업률을 보임. 이는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는 베트남 내에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함. 또한 취업한 학생들의 취업처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대기업 및 중견 기업으로 취업의 질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평가됨.

〈표 3-25〉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졸업생 취업률

공과	(졸업 6개월 후 졸업생 취업률(%))		
	2017년	2018년	평균(%)
기계공과	88	83	85
자동차공과	88	88	88
전기공과	94	89	92
전자공과	97	89	93
IT공과	95	83	89
전체공과 평균	92.40	86.40	89.40

○ 학생만족도

- 박장성 한베기술대학은 재학생 대상으로 학교 수업 만족도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 결과는 대학의 만족도 목표치를 상회하여 달성함.

〈표 3-26〉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학생만족도

학년	지체목표(%)	만족도(%)
2016	80	81
2017	80	85
2018	85	90

○ 산학협력

- 총 32개 회사와 MOU를 체결함. (이 중 6개는 한국회사)

○ 기타 추가성과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직훈총국으로부터 모범 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성과(outcome) 달성도

○ 입학생 수

- 대학(2, 3년제 포함)의 입학생 수는 2016년 1,057명, 2017년 927명, 2018년 1,082명으로 매년 1,000명 수준을 유지함.

○ 취업률

- 2016년 89.9%, 2017년 90.1%, 2018년 91.2%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산학연계

- 2013년 베트남에 진출한 CJ 기업과 연계하여 제과제빵학과 개설

○ 기타 추가성과

- 2009년과 2013년 연속으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5년마다 정하는 우수직업훈련학교로 선정. 2018년 베트남 국가주석이 표창하는 1급 노동 훈장 수상

○ 성과(outcome) 달성 요인

- 동 사업은 3차에 걸쳐 추진된 연속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학교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함.
- 1차 사업(1997년~2001년, 500만불)은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목표로 학교 신규 설립 및 학과 개설을 지원하였고, 2차 사업(2007년~2008년, 230만불)은 기능인력 양성 통한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 기여를 목표로 신기술 전수, 신규 실습시설 확충, 교수역량을 강화하여 3년제 대학로의 기반을 확고히 함. 3차 사업(2014년~2019년, 600만불)은 지역경제 발전 및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대학 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대학발전 및 운영에 기여함.
- 또한 1995년부터 2019년까지 일반봉사단원 19명, 드림봉사단 36명, 자문단 1명을 포함 총 62명의 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을 통해 역량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함.
- **(1~3차 사업의 긴밀한 연계성)** 1, 2차 사업 추진 후 개선 필요사항 및 베트남 측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 3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 즉 3차에 걸친 사업이 (1차) 대학설립 - (2차) 학과 교수역량 강화 - (3차) 대학 역량 강화로 각 회차 사업이 긴밀히 연계됨.
- **(성공요인)** 주요 성공요인은 1) 베트남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함께 변화하는 시장의 기술인력 수요를 각 회차 후속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과 커리큘럼을 개정 및 발전시킨 점, 2) 실습실 및 실습 장비 추가지원, 노후장비 개보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 점, 3) 3차 사업에서 대학운영 지속가능성 향

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점, 4) 지속적인 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 등으로 판단됨.

(2) 사업결과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중장기 지속가능성

- 현재 각 지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Hanoi, Quang Ninh, Ca Mau 3개 학교는 MOLISA가 선정한 88개 중점직종학교에 포함되어 정부의 지속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됨. 이에 지속가능성은 높아 보임.
- 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수원국 정부가 요청한 1) 실제 학교 상황에 기반한 커리큘럼 및 교재 업데이트 지원, 2) 교직원 대상 교육훈련, 3) 교육 기자재 유지보수 등의 사항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중장기 지속가능성

- KOICA는 2019-2020 간 사후지원사업을 통해 기자재 보강뿐만 아니라 대학운영발전계획 수립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역량 강화 연수 및 자문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대학발전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동 대학은 1) 높은 초기 입학 지원율, 2) 근처 산업단지 존재, 3) 정부가 선발한 45개 center of excellence에 선정되어 매년 노동보훈사회부 직업훈련총국으로부터 50만불을 2020년까지 지원받게 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지속가능성은 높아 보임.

□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중장기 지속가능성

-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2014년 베트남 내 우수 45개 직업훈련대학을 선정²³⁾하여 향후 5년간 집중 육성 계획을 발표함. 동 대학은 그 중 하나로 선정되어 향후 지속가능한 대학운영과 발전이 기대됨.

2) 사업 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

- 사업 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은 양호함.
-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정도는 적절함.
 - 유무상 사업 공통으로 정량 성과 중 졸업률, 취업률 등 성과는 단순 산출하고 만족도 등 성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함. 한편 정성적 성과는 FGI, 이해관계자 인터뷰, 평가워크숍의 방법으로 측정함. 한편 유상 사업의 경우 무상 사업에 비해 정량적 성과를 강조함.
 - 3개 평가 대상사업의 평가방법론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3-27〉 베트남 직훈 분야 사업효과 측정방법

구분	유상	무상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 지원사업
정량적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산출 (등록률, 졸업률, 취업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 산출(등록률, 졸업률, 취업률 등) ▪ 설문조사(만족도 등) 	
정성적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인터뷰 ▪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인터뷰 ▪ FGI ▪ 평가워크숍 	

- 다만 유무상 사업 공통으로 사업계획서 상에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 및 도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이에 최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론과 도구를 명확히 정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23) Decision No.761/QĐ-TTg, APPROVING "THE HIGH QUALITY VOCATIONAL SCHOOL DEVELOPMENT PROJECT BY 2020" the Prime Minister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의 기관 수행체계 적합성은 우수한 편임.
- 교육 분야 사업의 사업추진체계 구성과 그에 따른 역할 정의는 거의 정형화 되어 있으나 이는 ODA 사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교육 분야 사업 추진 기관역량과 관련해서는 대표 유·무상 사업 기관인 EDCF와 KOICA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인력 규모와 구성, 업무 추진성과, 외부 협력내역 등을 볼 때 충분한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정관리, 위험관리, 성과 담보를 위한 대응적 전략 수립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무소 인력 충원, 성과관리 전담인력 배정, 관련 교육실시 등을 통해 사업 및 성과관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교육 분야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전 단계에서 유관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1) 유무상 원조기관 간의 연계와 협조, 2) 타 공여기관 (Donor)과의 논의와 협력, 3)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4) 베트남 내 개발 협력 분야 활동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활발함.

(1) 기관 사업 수행추진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

□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추진체계

- 동 사업은 차주는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사업실시기관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완공 후 사업 운영기관은 하노이시 및 각각의 지방성과 각 직업기술대학으로 추진체계를 구축함.

○ 이는 차관사업의 특징이 반영된 일반적인 사업추진체계임.

〈표 3-28〉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사업추진체계

역할 구분		기관
차주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사업실시기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inistry of Labor, Invalids and Social Affairs : MOLISA)
사업 시행 기관	컨설턴트	한국기술 교육대학
	시공	해전건설
	기자재	KT-ED-한국폴리텍 대학 컨소시엄
완공 후 사업 운영기관		하노이시 및 각각의 지방성과 각 직업기술대학

□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및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추진체계

- 사업수행 주관기관은 KOICA, 베트남 고용노동부 산하 GDVT이며 사업수행은 사업대상 직업기술대학(응에안성 PPC 산하 한베산업기술대학, 박장성 한베기술대학)이 담당함.
- 실제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ing) 기관을 선정하고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 측 관계기관 및 실무책임자와 상호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함.
- 한국 PMC 및 CM 기관을 선정하고 현지 정부 기관과 사업대상이 되는 학교를 카운터 파트너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무상원조 사업의 일반적인 추진체계를 가짐.

〈표 3-29〉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및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사업 추진체계

역할 구분		기관
한국	원조사업 대외창구 및 사업 총괄	KOICA 본부
	사업시행 전담 및 총괄	KOICA 베트남 사무소

베트남	사업 수행	사업 시행기관(PMC)
	건축 신축 관리	CM
	사업시행 전담 및 총괄	한베산업기술대학
	사업 관련 업무지원	노동보훈사회부
	사업 관련 업무지원 및 대응자금 지원	응에안성 인민위원회 직업훈련총국(GDVT)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 베트남 TVET 분야 유·무상 사업은 사업추진체계 구성과 그에 따른 역할 정의는 거의 정형화 되어 있으며 이는 ODA 사업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
- 사업 추진 기관 역량과 관련하여 대표 유·무상 사업 기관인 EDCF와 KOICA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인력 규모와 구성, 업무 추진 성과, 외부 협력 내역 등을 볼 때 충분한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정관리, 위험관리, 성과 담보를 위한 대응적 전략 수립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 및 성과관리 역량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사업과의 연계 협조체계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

□ 유·무상 협조체계 및 연계 사례

- 유무상 협조체계
 - 베트남에서는 대사관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이를 통해 KOICA와 수출입은행을 비롯한 베트남 ODA 수행 기관들은 사업계획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사업 중복을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²⁴⁾.
- TVET 분야 유무상 연계 사례

- 2016년 유상원조로 지원한 2개 직업훈련대학(탕화 및 팜빈 직업전문대)에 대해 KOICA 사업으로 후속 역량 강화 및 사후 지원을 실시함. 이 같은 연계는 사업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함.

□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체계

- KOICA 차원에서 연 2회 수원총괄기관인 MPI와의 정례협의회를 통해 연간 사업계획, KOICA 전략 및 정책, 사업발굴 지침 등을 공식 공유하고 있으며 비정기 실무 간 업무협의를 수시 시행하여 사업발굴 내용을 조율함.

□ 타 공여 기관(Donor)과의 협조체계 및 협력 사례

- GIZ와 MOU 체결 후 직훈분야 협력
 -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2015년 GIZ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산업계 수요기반 직업훈련기관 운영 및 성과관리(M&E) 역량 강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음.
 - 2015년 GIZ이 지원하는 베트남 정부의 ‘우수 직업훈련기관 지원 사업(The High Quality Vocational School Development Project by 2020)’에 따라 직업훈련대학 성과관리(M&E) 및 CoE(Centre of Excellence)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워크숍 교육에 참여함.
 - 또한 2016년에는 직업훈련총국(GDVT)의 우수 직업훈련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수정계획 중 파일럿 평가단계에 GIZ와 공동 참여함.
- 정기적인 베트남 개발파트너그룹 회의 참석
 -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격월로 개최되는 베트남 개발파트너그룹(DPG)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
 - 동 회의에서 UN, WB, OECD, ADB와 같은 주요 공여 기관뿐 아

24)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면담 (2019.8.26.)

나라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과 같은 타 공여국 정부와 함께 베트남 주요 개발 및 원조 현황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함.

○ 베트남 개발파트너그룹 하위 워킹그룹 참여

-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DPG 하위 16개 분야 및 주제별로 운영되는 분기/반기별 워킹그룹(WG) 회의에 참여하여 KOICA 사업의 중점 분야와 연계되는 교육, 공공행정, 환경 등 분야별 WG 파트너들과 주요 현안 논의 및 정보 교류를 추진 중임.
- 예를 들어, 교육섹터의 경우 베트남 내 직업훈련 분야 WG를 주도하고 있는 독일원조청(GIZ) 베트남 사무소와 MOU 갱신 및 WG를 통한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분야 주요 현안과 공동협력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음.

○ 6 Bank 그룹 참여

- EDCF 베트남 사무소는 2008년부터 6 Bank Group 가입하여 계속 활동 중임.
- 격월에 한 번씩 개최되는 6 Bank Group 미팅에 참여하여 현안, 기존 프로세스 문제점, 예산 배정 이슈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 역시 나눔. 또한 각 기관 사업 포트폴리오를 공유함.

□ 베트남 내 개발 협력 분야 활동 기관들과의 협력 노력

- KOICA 베트남 사무소는 연 1회 민관협력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에서 활동 중인 시민사회단체와 소통함. 2019년 역시 7월에 베트남 국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총괄 관리하는 PACCOM(People's Aid Coordinating Committee)가 참가한 가운데 17개 베트남 활동 시민사회단체들과 종일 간담회를 진행함. 간담회에서는 KOICA 민관협력사업의 제도 개선사항 공유, 사업성과관리 교육, 우수사례 발표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 또한 KOICA 사무소 방문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사무소 방문을 희망하는 다양한 파트너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음. 2018년에는 매년 개최하는 베트남 연수생 동창회인 ‘한-베친선의 밤’ 행사에 코참, 베트남 민간기업 관계자, 베트남 파견 우리사업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네트워킹 장을 제공함.

□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사업과의 연계 협조체계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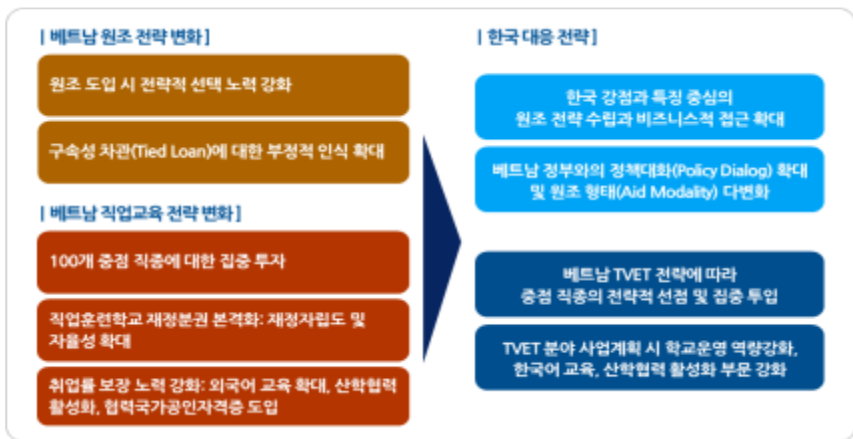
- 베트남의 경우 사업의 기획, 수행, 평가 전 단계에서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이 활발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1) 유무상 원조기관 간의 연계와 협조, 2) 타 공여기관(Donor)과의 논의와 협력, 3) 수원국 정부와의 협조체계 구축, 4) 베트남 내 개발 협력 분야 활동 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활발함.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베트남 원조 및 직업교육 전략변화²⁵⁾에 대응하는 사업기획 필요

〈그림 3-9〉 베트남 원조 및 직업교육 전략변화에 대한 한국 대응 전략



- 베트남 측 원조전략 변화 1. 원조 도입 시 전략적 선택 노력 강화
 - 무분별한 원조 수용을 지양하고 다양한 공여기관 각각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선별하여 꼭 필요한 원조만 받고자 함.

- 대응전략
 - 한국 강점과 특징을 충분히 반영하여 원조전략을 수립하고 비즈니스적 접근(한국의 TVET 사업 브랜딩, 홍보 등)을 강화할 수 있음.

- 베트남 측 원조전략 변화 2. 구속성 차관(Tied Loan)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대

25) 베트남 원조사업을 총괄하는 기획투자부 면담 결과

- 베트남 내부적으로 구속성 차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짐. 구체적으로 구속성 차관의 경우 1) 컨설턴트 비용이 높고, 2) 필요한 비용보다 실제 더 많이 비용이 지출되며, 3) 자국 기업 육성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함²⁶⁾.

○ 대응전략

- 정책 대화(Policy Dialog)를 확대하고 원조형태(Aid Modality)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특히 비구속성 원조 추세에 부응하여 비구속성 원조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비구속성 원조의 1) 외교적 이익과 2) 원조사업 진행 중 이익이 아닌 원조사업 결과부터 취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동시에 구속성 차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확실한 우위 또는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정책 대화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 홍보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적 원조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측 직업전략 변화²⁷⁾와 대응전략

○ 베트남 측 직업전략 변화 1. 중점 직종에 대한 집중 투자

- 100개 중점 직종을 선정하고 해당 직종의 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전국에 88개 중점직종학교를 지정하고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음.
- 현재 중점 직종 중 12개 직종은 호주 직종 표준을 도입하여 인력양성 중. 해당 12개 직종은 호주 직종 표준에 따라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재 역시 개발함. 이후 역량평가도 호주 표준에 따라 진행하

26)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면담 (2019.8.26.)

27) 베트남 직업교육을 총괄하는 직업훈련총국(GDVT, General Department of Vocational Training) 면담 결과

며 이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호주 산업기능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한편 중점 직종 중 22개 직종은 독일 교육과정 도입예정으로 45개가 직업학교가 참여할 계획임.

○ 대응전략

- TVET 분야 사업계획 시 개별사업별로 개설 직종을 선정하는 것과 별개로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 대화를 통해 한국에 강점이 있는 중점 직종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음.

○ 베트남 측 직업전략 변화 2. 직업훈련학교의 재정 분권 본격화: 재정자립도 및 자율성 확대

- 베트남 정부는 점차 기술학교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 예산 투입을 축소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10%, 2025년까지 30%의 직업훈련학교가 재정적으로 자립하여 2030년에는 각 지방에서 1개 직업훈련학교만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목표임.²⁸⁾
- 이를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고한 전반적인 직업훈련제도 개선, 직업학교 규제 완화 등 정책을 추진 예정임.

○ 대응전략

- TVET 분야 사업계획 시 학교운영 컨설팅(관리자 학교운영역량 강화, 운영정책, 학교운영 종합계획 수립 등)을 강화할 수 있음.

○ 베트남 측 직업전략 변화 3. 취업률 보장 노력 강화: 외국어 교육 확대, 산학협력 활성화 등

- 외국어 교육 확대: 이전 정책에서 직업교육 학교의 외국어 교육은

28)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면담 (2019.8.28.)

영어 한 가지였음.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학생이 취업하고 하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영어, 한국어, 일본어, 독일어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학교 교육에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중임. 또한 본래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MOU 체결을 GDVT가 직접 진행하고 있음.
- 협력국가공인자격증 도입: 현재 호주와의 협력 방식과 유사하게 한국 역시 한국 교육과정을 도입한 직업훈련학교에서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국가공인증자격증을 발급해주기를 희망함.²⁹⁾

○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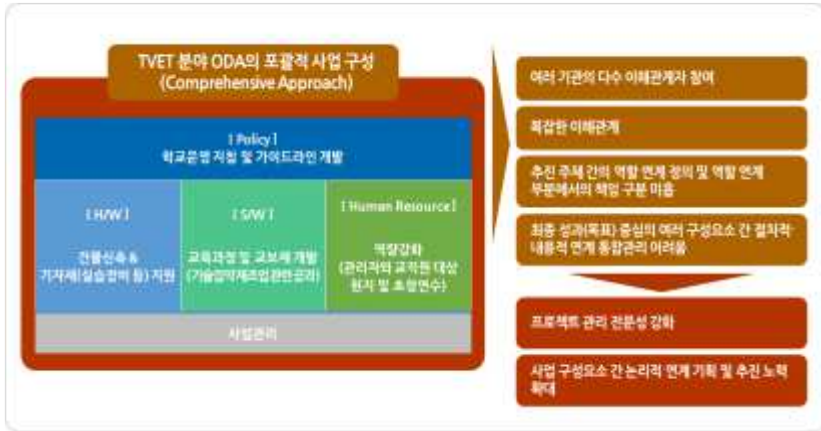
- TVET 분야 사업계획 시 한국어 교육 부분과 산학협력 활성화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

2) 사업운영·기관역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포괄적 사업구성이 가지는 관리부담 해소 노력 강화 필요

29)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면담 (2019.8.28.)

〈그림 3-10〉 베트남 직훈 분야 ODA 사업구성 특징 및 이슈 해결 방안



- 베트남 TVET 분야 ODA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이 건물 신축부터 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 역량 강화, 학교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형태로 구성됨.
- 이러한 포괄적 접근은 앞서 언급했듯이 수원국 환경에서 성과를 담보하기 적절한 사업구성 방식이라고 판단되며 수원국 역시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을 한국 ODA 사업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평가함³⁰⁾.
-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 형태의 사업 구성은 1) 여러 기관의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 2)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이해관계, 3) 추진 주체 간의 역할 정의와 역할 연계 부분에서의 책임 구분 미흡, 4) 사업 추진과정 중 최종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구성요소를 절차적·내용적 연계 확보 및 통합관리의 어려움을 가짐으로써 일정지연, 기타 품질 및 사업관리 이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에 이와 같은 형태 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과 성과관리에 대한 투입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개선방향

30)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 면담 (2019.8.28.)

- TVET 분야의 포괄적 사업구성이 가지는 다양한 이슈 해결을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노력을 강화할 수 있음.
- 1)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 강화, 2) 사업 구성요소 간 논리적 연계 기획 및 추진 노력 확대(사업 구성요소 산출물 간의 인과 관계 분석 강화, 성과 중심의 추진 순서 배열(sequence) 기획, 명확한 역할 연계 정의 및 연계 부분에서의 책임 구분 등)

3) 사업 평가·성과관리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목표에 맞는 적절한 산출 및 성과지표의 선정, 단기 목표와 중장기 목표 간의 논리적 연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 유무상 사업 공통으로 정량 성과 중 졸업률, 취업률 등 성과는 단순 산출하고 만족도 등 성과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함. 또한 정성적 성과는 FGI, 이해관계자 인터뷰, 평가워크숍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음.
- 하지만 유무상 사업 공통으로 사업계획서 상에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 및 도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음. 종료평가보고서에는 평가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론과 도구를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행 중에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시점에 정의한 초기 지표의 경우 지표의 정확한 기술이 보완되어야 함.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지표의 경우 사업계획 시 정의한 초기 지표와 사업 종료 시점의 최종 지표에 차이가 있음.

제3절 물관리/보건위생 분야

1. 사업계획의 적절성

- 물관리 및 보건분야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양호한 수준임
- 베트남 국가발전계획, 분야별 발전전략, 對 베트남 CPS 등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유·무상 사업 모두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의 3대 전략동력 중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인프라·자원개발」 및 「사회·환경개발」과도 상당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상/무상 사업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유상)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은 목표에 따라 지하수 개발 억제, 안정적인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함
 - (무상)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이므로 정수시설 및 지하수 관정 등 사업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함
 - (유무상)투아티엔hue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은 사업의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사사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함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 등을 구성하였

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무상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다소 미흡한 편이며, 무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우수한 편임
-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체로 실현가능한 일정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연계는 유상/무상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유상)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결과적으로 계획대비 사업종료 일정이 3년(36개월) 지연되었고, (유무상)투아티엔hue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은 건설사업에서 17개월 지연되었음. 이러한 결과와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사업계획과 일정의 연계가 아주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터뷰/사업특성을 고려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1)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1)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국가발전계획, 분야별 발전전략, 對 베트남 CPS 등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유·무상 사업 모두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분야의 사업계획은 베트남 개발전략 및 계획의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의 3대 전략동력 중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인프라·자원개발」 및 「사회·환경개발」과도 상당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對 베트남 1기 CPS의 중점분야 「지속가능성장」(환경 및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반영

- 1기 CPS는 ‘환경보호와 녹색성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성장의 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대한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표 3-30〉 1기 CPS 환경 및 녹색성장 분야 추진계획 기본방향

기본 방향	구체적 내용
분야별 프로그램 마련	식수공급 및 위생, 폐기물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 3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타공여 기관과 공동사업 및 지정기여(earmark)등 추진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역량강화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신재생에너지, 산림,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 관련 제도 개선, 정책자문, 인력육성 및 운영관리 대책 마련 등
연계강화	유·무상 사업의 지역별·기능별 역할 및 기 지원시설에 대한 후속지원 연계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

○ 한국의 對 베트남 2기 CPS의 중점분야 「물관리 및 보건위생」을 적극적으로 반영

- 2기 CPS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계획 및 양국 간 금융협력 MOU 및 조정위에서(2015.6) 제시된 개발수요, 한국의 원조역량, 예상재원 규모, 타 공여국과의 원조조화, 분야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물관리 및 보건위생」을 중점 지원 분야로 선정함
- 「물관리 및 보건위생」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역량

강화 및 수자원, 폐기물 관리, 전문병원 설립 등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2)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 유상/무상 사업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유상)호아깁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은 목표에 따라 지하수 개발 억제, 안정적이고 깨끗한 용수공급에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함
 - 호아깁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과도한 지하수 개발 및 지하수면 하강에 따른 지반 침하 현상과 염도 상승 위험에 대비, 지표수 활용 확대를 통해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통안 성 내 지역별 물 수급 불균형 해소와 갈수기 등 비상시 대처를 위한 용수공급체계 확보”임
- (무상)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공급이므로 정수시설 및 지하수 관정 등 사업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함
 -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은 닥락성 부온호현 지역에 지표수와 지하수로 구성된 신규 상수도 시설을 건설하고 기존 상수도 시설과 함께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유무상)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 협력사업은 사업의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사사업과

비교해 볼 때 사업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을 실시함

- 건설된 종합병원은 풍디엔군, 후옹트라군, 팡디엔군의 경계지역에 위치하며, 본 병원 설립 이전 3개의 군에는 군 단위 병원보다 대형 병원이 없어 상위의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투아티엔훼 중앙병원까지 장거리(최대 50km)를 이동해야 하는 등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을 강조함

○ 세부사업의 내용 유·무상 사업 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다르게 나타남

- 유상사업인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은 명확하지 못함. 구체적인 세부사업내용이 취수시설, 정수시설, 가압장, 관로 등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각각의 시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의 내용이 어느 정도 충실하게 제시됨. 취수시설 1곳, 지하수 관정 7곳, 지표수 정수장 1곳, 초청연수, 차량 1대 등 세부사업의 내용은 어느 정도 충실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었다고 판단됨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은 유상사업으로 병원건축(500병상, 부지면적 70,000m²(2.1만평), 연 건축면적 36,000m², 본부건물, 전염방지병동, 식이요법병동, 전염병동, 장례식장 등)과 의료기자재 공급(274종)을 하였으며, 무상사업으로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을 진행 중임

(3)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 등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무상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보통인 편임
 - 유상사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DM과 같은 성과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투입, 활동,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PDM 또는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찾을 수 없음
 - 하지만 유상사업이 금융에 방점을 둔다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31〉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비용항목

(단위:천미불)

구 성		계 획
토 목	취수시설	1,761
	정수시설	8,677
	기압시설	1,859
	관로	11,840
	소계	24,137
건설팅		2,464
Service Charge		31
소계		26,632
예비비		3,366
합계		29,998

- 무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우수한 편임**
 - 무상사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DM을 사용하고 있어 계획단계에서의 구성요소는 상당히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부은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구성요소가 PDM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건설 및 설계, 전문가 파견 및 현지교육, 초청연수, 기자재 조달, 사업관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성요소를 나누어 계획함

〈표 3-32〉 부은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구성요소

Activities(활동)	Input(투입)
1. 설계 및 건설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사전정, 건설, 감리, 준공 등 사양서작성, 입찰, 구매, 설치및하자보수 등 2. 전문가 파견 및 현지교육 전문가업무내역서 작성, 선정, 파견 및 활동 평가 등 시스템 운영 현지인력 교육 3. 초청연수 연수프로그램 작성, 연수자 선정, 초청교육 4. 기자재(차량)조달 5. 사업관리 사업협의, 관리총괄, 평가 등	1. 아측: 대상지에 총450만불 투입 상수도시설구축:348만불 전문가파견: 65만불 초청연수: 8만불 기자재지원: 4만불 사업관리, 예비비 등: 25만불 2. 수원국 측: 자체예산 48만불 투입, 행정 지원 및 일부 상수도 망설치 정수장 부지 제공, 기자재 통관 시 면세지원 주 상수도망에서 각 가정으로 이어지는 세부상수도 망, 계량기 등은 수원국 부담

- 유무상연계사업의 경우, 먼저 유상사업인 종합병원 건설사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DM과 같은 성과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후속사업인 무상사업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로 어떠한 기술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³¹⁾
 - 하지만 유상사업이 금융에 방점을 둔다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무상사업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종료보고서가 도출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음

31) 단,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립사업은 성과평가지표수립*이 제도화되기 전에 신청·승인한 사업인 바, 계획수립 당시 성과관리가 적용되지 않았음

〈표 3-33〉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 비용항목

구 분	계획(A)
총 사 업 비 용	38,601
E D C F 지 원 액	30,862
병 원 건 설	17,212
의 료 기 자 재 공 급	10,575
건 설 텅 서 비 스 등	3,075
베 트 남 예 산	7,739

(4)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대체로 실현가능한 일정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예산변경, 일정변경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100% 산출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연계는 유상/무상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 (유상)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결과적으로 계획대비 사업종료 일정이 3년(36개월) 지연되었음. 이러한 결과와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사업계획과 일정의 연계가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무상)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 단계별 추진일정은 사업추진기간인 3년 동안 분기별로 자세히 제시되어 있음
- (유무상)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의 경우 건설사업은 계획대비 사업종료 일정이 17개월 지연되었음. 가격협상 지연, 건설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의 외부 변수가 작용하였다고 하지만 사업계획과 일정의 연계가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사업수행의 적정성

- 물관리 및 보건분야 사업수행의 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임
 -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은 어느 정도 충실하였다고 판단됨
 - 유상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일정 준수는 다소 미흡하지만, 무상 사업의 경우 대체로 계획 대비 일정 준수는 보통 수준임. 호아칸떼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지연된 81개월이 소요되었고,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은 계획대비 17개월이 지연됨
 - 유·무상 사업 계획대비 산출물은 모두 달성하여 우수함
 - 유·무상 사업 모두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사업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호아칸떼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정수장 위치를 변경, 취수를 위한 저수조의 위치 변경, 도수관로 설치 생략 등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 경우 의료기자재공급의 사업범위를 축소로 건설비 폭등에 대응하는 등 위기관리 정도 및 대응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물관리 및 보건 분야의 유무상 사업은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으로 이에 대한 일정 내 사업완료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계획대비 산출물 도출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유상사업인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 그리고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물가급등으로 건설비용 확대, 사업부지 보상 및 주민이전 등과 같은 난이도 높은 요인들이 발생

1) 사업수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은 어느 정도 충실하였다고 판단됨. 계획대비 일정준수는 유상 사업의 경우 상당한 지연이 있었으나, 계획대비 예산 및 산출물은 유·무상 사업 모두 달성하였음.

○ 유상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일정 준수는 다소 미흡함

-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발효 후 컨설턴트 고용, 본 구매 입찰 및 계약자 선정, 시공 등 사업실시기간은 총 45개월로 계획되었던 것과는 달리 실제 사업실시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지연된 81개월이 소요
-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의 경우도 본구매 단계에서 입찰단계 가격 협상 등으로 약 7개월 지연되었으며, 건설과정에서는 우기시의 공정 지연 및 추수시기(연 2~3모작)의 노동인력 누수 등으로, 기자재 공급과정에서는 기자재 사양 변경 등으로 인해 약 10개월 지연
- 컨설턴트 고용 및 구매계약 체결의 지연이 가장 주된 이유이지만 이 과정에서 지연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리스크 관리도 하지 않음

〈표 3-34〉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계획

구 분		계획일자	실제일자
사업 준비	F/S 착수	'07. 08	'07. 09
	F/S 제출	'07. 12	'08. 02
	심사출장	'08. 07	'08. 08
사업심사 & 승인	지원방침 결정	'08. 09	'08. 10
	차관계약체결일	'09. 08	'09. 08
	차관계약발효일	'09. 12	'09. 12
차관 계약 체결	컨설턴트 고용	'09. 12	'10. 08
	구매계약체결	'11. 03	'12. 08
	최초자금집행일	'10. 09	'10. 11
사업 시행	사업 완공	'13. 09	'16. 04
	최종자금집행	'16. 09	'16. 09
	PCR 제출일	'17. 06	'17. 06

〈표 3-35〉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 계획

구 분	계 획	실 제
심사출장	2006.11	2006.11
지원방침 결정	2007.04	2007.04
차관계약체결	2007.08	2007.08
차관계약발효	2007.12	2007.12
컨설턴트 계약체결	2008.05	2008.03
최초자금집행일	-	2008.04
구매계약체결	2009.03	2009.10
사업완공(개원식)	2011.12	2013.05
최종자금집행일	-	2014.03
완공보고서(초안) 접수	-	2015.03
사업실시기간*	48개월	65개월

- 무상 사업의 경우 대체로 계획 대비 일정 준수는 보통 수준임
 -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지연되었지만 개발협력에서 건설공사는 대부분 다양한 내·외부 환

경적 변수가 발생하므로 2개월 지연은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표 3-36〉 사업기간 변경

공사기간 연장		사업기간 연장	
계획 시 준공일	변경 준공일	계획 시 사업기간	변경사업기간
2013. 1. 10	2013. 3. 10	2012. 12. 29	2013. 3. 10

○ 유·무상 사업 모두 계획예산 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 등 보통 수준임

- (유상)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예산 대비 실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음. 다만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은 계획대비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3-37〉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계획예산

구 성	계 획	실 제	차 이	
토목	취수시설	1,761	1,637	△124
	정수시설	8,677	13,347	+4,670
	가압시설	1,859	-	△1,859
	관로	11,840	10,884	△956
	소계	24,137	25,868	+ 1,731
건설팅	2,464	2,710	+ 246	
Service Charge	31	29	△2	
소계	26,632	28,607	+1,975	
예비비	3,366	1,3913)	△1,975	
합계	29,998	-	-	

- (유상)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 경우, 계획예산 대비 실제 예

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음. 하지만 차관계약 발효이후 베트남 물가 급등(23%)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당초 예상 보다 대폭 인상(57.9%, U\$480/㎡ → U\$758/㎡)됨에 따라 건설비용이 4,244천미불 증가한 반면, 의료기자재공급의 사업범위는 축소(410종 → 274종)되고 그 비용은 3,965천미불 감소되는 등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은 계획대비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3-38〉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 계획예산

구 분	계획(A)	실제(B)	차이(A-B)
총사업비용	38,601	37,918	683
EDCF 지원액	30,862	30,202	660
병원건설	17,212	21,456	-4,244
의료기자재공급	10,575	6,610	3,965
컨설팅서비스 등	3,075	2,136	939
베트남예산	7,739	7,716	23

- (무상)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된 총사업비는 4,056백만 원이었으며 최종 정산금액은 4,090백만 원으로 계획대비 0.8% 초과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resonable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표 3-39〉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원)

구분	당초사업비 (A)	전용금액(B)	변경사업비 (C)	정산금액(D)	반납액 (C-D)
총계	4,056,276,000	4,056,276,000	4,093,731,000	4,090,731,000	3,240,766
타당성 조사 및 실시	144,255,0000	198,395,866	198,395,866	198,395,866	-

구분	당초사업비 (A)	전용금액(B)	변경사업비 (C)	정산금액(D)	반납액 (C-D)
설계					
공사비	3,132,600,000	3,132,600,000	3,132,600,000	3,132,599,985	15
시공감 리비	717,707,500	668,514,094	705,969,094	702,728,343	3,240,751
연수생 초청비	61,713,500	56,766,040	56,766,040	56,766,040	-

○ 유·무상 사업 계획대비 산출물은 모두 달성하여 우수함

- 유상사업인 호아칸떠이 상수도 건설사업 및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모두 계획 대비 사업내용 변경이 있어 변경된 계획대비 산출물은 모두 달성하였음
- 호아칸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의 세부사업 내용에서 취수장 건설(위치변경, 저수조 추가), 정수장 건설(위치변경), 가압장 건설(위치변경), 관로공사(도수관 건설 생략, 송수관로 계획대비 9.8km 연장) 등 변경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산출물은 모두 도출함
-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 경우 계획단계의 세부사업 내용 대비 의료기자재공급의 사업범위가 축소(410종→274종)되는 등 변경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산출물은 모두 도출함
-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업추진 일정은 PMC 선정 단계부터 설계, 시공까지 계획대로 실행되었고, 시공단계에서 민원 발생으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준공일이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민원 보상 이후에는 무리 없이 계획을 추진하였음. 지표수 시설(취수시설: 3000m³, 정수시설: 정수장 1개소), 지하수 시설(관정 7개소: 2,600m³, 관로 60.1km) 등 산출물 목표를 100% 달성

(2)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

□ 유·무상 사업 모두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사업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³²⁾

○ 유·무상 사업 모두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사업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보통수준임

- 유상사업인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된 정수장 사업부지의 토지수용 및 보상이 어려워, 정수장 위치를 변경하였고, 정수장 위치가 급수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함에 따라 가압장 건설을 생략하고, 취수를 위한 저수조의 위치도 정수장에 바로 인접하도록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고, 도수관로 설치도 생략하는 등 위기관리 정도 및 대응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유상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 경우 차관계약 발효 이후 베트남 물가 급등(23%) 등의 영향으로 건설단가가 당초 예상 보다 대폭 인상됨에 따라 건설비용이 대폭 증가 하였지만, 의료기자재공급의 사업범위를 축소하는 등 위기관리 정도 및 대응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지표수 취수 시설 중 Nam Hong취수장에서 진입도로 변경 요구 민원이 발생하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측량 및 설계, 보상협의, 도로포장 등의 공정이 지연되었고, 또한 베트남 측의 요청에 따라 정수장 진입도로 공사가 추가적으로 결정되면서 측량, 설계 및 보상협의, 도로축조, 포장공사 등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32) 리스크 관리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가 필요함

2)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1) 사업의 난이도

□ 물관리 분야의 유무상 사업은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으로 이에 대한 일정 내 사업완료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계획대비 산출물 도출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유상사업인 호아칸떠이 상수도 건설사업과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 그리고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변경, 물가급등으로 건설비용 확대, 사업부지 보상 및 주민이전 등과 같은 난이도 높은 요인들이 발생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물관리 및 보건분야 사업의 타당성은 양호한 수준임

○ 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효과는 산출물이 모두 도출되었고, 이에 기반한 단기성과는 달성하였으므로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함

- 호아칸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상수도 공급으로 지역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였다는 차원에서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인 안전한 식수 접근율 향상 및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이라는 성과를 위한 지표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 그리고 수인성 질환 환자수 및 기생충 감염률 감소를 설정하였으며,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 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

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먼저 유상사업인 종합병원 건설사업은 외연적으로 투아티엔훤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은 내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는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됨

-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통안성 20여개 산업단지의 1000여개 이상 기업에게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건설사업 종료이후 사후관리사업의 지원으로 병원 소속이 지방성에서 보건부로 변경되었고, 인력 충원을 실시하여 임상진료 부서가 증설(13개→18개)되었으며, 진료지원부서·관리행정부서도 확대개편을 실시하는 등 현재 500병상 모두 운영되고 있어 지속가능성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단기성과와 중장기 성과로 구분하여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

○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정도는 보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질의 용수를 공급하여 지역사회 건강에도 공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대한 예산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①접근편리성 강화에 따라 북부지역

주민들의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의료지식 습득기회가 확대와 ②근거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발생이라는 기대효과 등 예산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1) 사업효과성 및 영향력

(1) 계획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 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효과는 산출물이 모두 도출되었고, 이에 기반한 단기성과는 달성하였으므로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함

○ 유상사업인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상수도 공급으로 지역 보건위생을 강화하고,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예방하였다는 차원에서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산업용수 보급률, 1인 1일 급수원 단위 달성, 정수처리 후 용수 수질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20여개 산업단지(전체산업단지 대비 40%)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안정적인 기업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됨. 기존에는 기업마다 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수 우물을 하나씩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었음(통안성 인민위원회 현지조사)
- 또한 덕호아 지역내 6,000가구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10,000가구에 공급할 예정임
- 호아칸띠이 상수도시설이 건설된 통안성 덕호아에서는 수인성 전염병 발병률이 상당히 높았으나, 상수도가 공급되면서부터 기생충 및 장염과 관련된 발병률은 상당히 낮아졌다(통안성 인민위원회 현지조사)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인 안전한 식수 접근을 향상 및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이라는 성과를 위한 지표로 상수도 보급률 확대 그리고 수인성 질환 환자수 및 기생충 감염률 감소를 설정하였으며, 대체로 목표를 달성하였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먼저 유상사업인 종합병원 건설사업은 외연적으로 투아티엔훤성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혜기회 확대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은 내연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다고 볼 수 있는 등 계획 수립 시 예상한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훤성 북부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상 이점으로 인해 1일 평균 외래환자 200여명, 입원환자 20여명이 본 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으로 인하여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의료환자 이송 증가로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17.3월부터 500병상 운영에 대한 보건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500병상 모두 운영되고 있음

(2)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롱안 성에서는 지하수 사용을 금지하는 결정문을 제정 발표('17. 3월)하였으나, 아직도 지하

수를 상당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 결과 파악되었지만 본 사업으로 인해 통안성 20여개 산업단지의 1000여개 이상 기업에게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 정도는 상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운영사인 푸미빈은 상수도 공급을 통한 수익으로 모든 운영 및 금융비용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 확인됨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를 공기법인 DAKWACO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DAKWACO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사업이 종료된 이후 DAKWACO는 자체적으로 관로를 30km 연장하여 상수도 보급률이 20% 이상 증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건설사업 종료이후 사후관리사업의 지원으로 병원 소속이 지방성에서 보건부로 변경

- 병원의 명칭은 기존 투아엔훤 종합병원에서 후에 제2중앙병원으로 변경됨

- 보건부 소속으로 이관 후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으며, 후에중앙병원의 인력 파견을 통한 인력 충원을 실시하여 임상진료 부서가 증설(13개→18개)되었으며, 진료지원부서·관리행정부서도 확대개편을 실시

- 의료인력 확충 및 지역 의료환자 이송 증가로 환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500병상 모두 운영되고 있음

2) 사업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

(1) 사업 효과 측정·도출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단기성과(outcome)와 중장기 성과(impact)로 구분하여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으며,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은 산출물(output)에 대한 자료에만 초점을 두었음
 - 물관리 및 보건 분야의 평가방법론은 정량적 성과지표에 중점을 두고 이에 관한 자료를 설정하고 있으며, 중장기 성과에서도 이용자의 만족도 정도만 측정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성적 지표 설정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즉 물관리 및 보건 분야 사업의 사회적 측면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족함이 있음

(2)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정도는 보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유상사업인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현지조사 결과 지역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여 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질의 용수를 공급하여 지역사회 건강에도 공헌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이에 대한 예산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좋은 수질이 공급되고 있으며, 사용자의 만족도 높은 등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은 보통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사업완료이후 물 사용량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였고, 물 사용의 편의성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는바, 예산효율성은 보통 이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①접근편리성 강화에 따라 북부지역 주민들의 병원 방문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의료지식 습득기회가 확대와 ②근거리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혜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발생이라는 기대효과 등 예산대비 효율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음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물관리 및 보건분야 사업은 기관 수행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은 양호한 수준임

-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호아칸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퐁안 인민위원회와 사업실시기구 겸 완공후 사업 운영기관인 푸미빈 건설투자회사 간의 관계가 좋으며,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됨
-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KOICA-MPI-다락성 인민위원회-부온호현 인민위원회 간의 협력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사업의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투아티엔훼성 인민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아티엔훼 종합병원 투자·건

설 위원회이었지만, 역량부족으로 베트남 보건부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는 기관·사업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노력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1) 기관사업 수행추진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

(1)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통안 인민위원회와 사업실시기구 겸 완공후 사업 운영기관인 푸미빈 건설투자회사(Phu My Vinh Construction & Investment JSC) 간의 관계가 좋으며,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결과 파악됨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베트남 측 시행기관인 다락성 인민위원회 및 부온호현 인민위원회의 협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하지만 산출물 및 목표달성도를 참고하여 볼 때 서로 원만한 협력관계였다고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건설사업 종료이후 사후관리사업의 지원으로 병원 소속이 지방성에서 보건부로 변경되었고, 이후 조직개편, 의료인력 역량 강화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은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2)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사업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노력 정도

□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 호아깐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EDCF-베트남 재무부-롱안성 인민위원회-푸미빈 건설투자회사간의 협력은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판단됨

- 계획대비 산출물도 모두 도출되었으며 건설사업 후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졌다고 판단됨

○ 무상사업인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의 경우 KOICA-MPI-다락성 인민위원회-부온호현 인민위원회 간의 협력은 보통 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계획대비 산출물도 모두 도출되었으며 건설사업 후 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지방공기업이 담당하는 등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졌다고 판단됨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훼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사업의 실행 및 관리를 위하여 투아티엔훼성 인민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아티엔훼 종합병원 투자·건설 위원회이었지만, 역량부족으로 베트남 보건부로 변경되어 결과적으로는 기관·사업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노력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유상사업의 반복적인 사업지연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유상사업의 경우 미리 예견되는 외부환경요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사전타당성 조사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본 사업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조건이 변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사전타당성 조사 시 사업진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측면(토지수용, 보상, 이주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2) 사업운영·기관역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일정지연 방지를 위한 사업운영 노력 필요

- EDCF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사업운영 진도 체크가 가능한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를 실시할 필요
 - 현재 EDCF 사업부서에서는 구매계약체결 후 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사업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며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성과관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유상)호아칸띠어와 (무상)부온호현 상수도 건설 사업을 비교해 보더라도 무상의 사업지연은 2개월, 유상의 사업지연은 60개월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
 - 또한 유상사업의 경우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 컨설턴트 고용과정에서 상당한 일정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EDCF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 수은 내 평가부(팀)의 기능을 확대하여 본사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진도를 체크하거나 각 사업당 자체 M&E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사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음

3) 사업 평가·성과관리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향후 사업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 물관리 및 보건 분야 사업의 개별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장단점을 대외적으로 자세하게 공개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유무상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다음 사업에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음
 -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제4절 교통 분야

1. 사업계획의 적절성

- 교통 분야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양호한 수준임.
- 베트남 국가발전계획, 분야별 발전전략, 對 베트남 CPS 등이 사업 계획에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유·무상 사업 모두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의 3대 전략동력 중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인프라·자원개발」 과도 상당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상/무상 사업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①베트남과 중국간 ‘One Economic Belt, Two Corridor’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동부지역과의 경제개발벨트 구축, ②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③하이퐁 신항만 등 지역개발 추진에 따라 가중되는 교통 혼잡 해소 등 목표가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음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 등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무상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투입, 활동,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PDM 또는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구성 요소를 찾을 수 없음

-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일정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요소가 상당히 있으므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이 합리적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7구간 사업은 3년 9개월(45개월), 10구간은 3년 1개월(37개월) 지연되어 사업계획과 일정의 연계가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다고 판단됨

1)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1)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국가발전계획, 분야별 발전전략, 對 베트남 CPS 등이 사업계획에 잘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는 유·무상 사업 모두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본 분야의 사업계획은 베트남 개발전략 및 계획의 방향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

- 베트남 사회경제 개발전략(SEDS)의 3대 전략동력 중 「인프라 확충», 그리고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의 「인프라·자원개발」 과도 상당한 연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국의 對 베트남 1기 CPS의 중점분야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도로 등 교통인프라)을 적극적으로 반영

- 1기 CPS는 베트남의 열악한 도로여건이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전반의 비용증가와 비효율을 유발하여, 향후 베트남 경제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방향을 설정함

〈표 3-40〉 1기 CPS 도로 인프라 분야 추진계획 기본방향

기본 방향	구체적 내용
도로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의 개발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되, 수출증대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메콩델타 유역과 북부산악지역 등 낙후지역 중점지원 • 고속도로와 국도 개선사업 및 해안도로 연결사업 등을 지원하여 무역활성화 및 경제발전을 위한 운송망 형성 •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BRT(Bus Rapid Transit) 등 현대화된 교통·안전시스템 지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건설 마스터플랜, 도로건설 기술,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등 베트남의 도로교통 분야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 • 단순 초청연수 뿐만 아니라, 베트남 관계자와 개발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및 사업성 검토 등 문제 해결형 연수를 강화 • 도로분야 EDCF 차관사업에 관련 국내 전문가 파견을 포함시켜 프로젝트 사업과 역량강화를 연계

○ 한국의 對 베트남 2기 CPS의 중점분야 중 하나로 「교통분야」를 적극적으로 반영

- 베트남의 교통부문 전략과 연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메트로를 포함한 철도 및 항만 인프라 분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
- 베트남의 공공부채 관리 계획에 맞춰, 교통인프라 부분에서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EDCF 지원을 기반으로 한국기업이 베트남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
- 주요 대도시 및 인근 고속도로 등에 한국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교통체계 및 도로교통 시스템을 지원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 유상/무상 사업 모두에서 대체적으로 사업프로그램의 목표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무상)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은 국별전략 및 호치민 메트로 건설 목표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사업프로그램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임

- 사업 집행계획 및 PDM에 따라 사업 목표가 어느 정도 명확히 제시됨

○ (유상)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동부 광역권 연결도로 중 북서쪽 구간의 총 연장 105.5km 하노이-하이퐁간 고속도로 총 10개 구간 중 하이퐁시 제7구간(9.3km)과 하이퐁시 제10구간(9.117km)을 건설하는 사업임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①베트남과 중국간 'One Economic Belt, Two Corridor' 정책의 일환으로 하이퐁시를 중심으로 중국 남동부지역과의 경제개발벨트 구축, ②베트남 북부지역 경제개발 촉진을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③하이퐁 신항만 등 지역개발 추진에 따라 가증되는 교통 혼잡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목표가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가지고 있음

○ 세부사업의 내용 유·무상 사업 모두에서 대체로 충실하게 나타남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세부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로건설(교량 횡단고가) 및 교차로(교차로, 영업소, 휴게소)에 대한 범위는 대체로 충실하게 제시함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의 경우 세부사업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무엇을 할지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메트로 건설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포함될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대체로 충실하게 제시되고 설명되었다고 판단됨

(3)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 등을 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무상 사업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은 체계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 유상사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DM과 같은 성과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음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투입, 활동, 산출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PDM 또는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구성요소를 찾을 수 없음
- 하지만 유상사업이 금융에 방점을 둔다는 특성을 고려해 보면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41〉 베트남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7 & 10구간) 비용항목

(천USD)

구 성		(제7구간)계획	(제10구간)계획
토목	도로	37,137	59,960
	교량	62,763	39,940
Service Charge		100	100
소계		100,000	100,000
예비비		-	-
합계		100,000	100,000

○ 무상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전타당성 조사의 경우 프로젝트 사업과 달리 사업계획 구성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요사업내용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활동내역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무상사업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투입, 활동, 산출물, 예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PDM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활동내역과 결과물 등에 대한 계획만 제시하고 있음

〈표 3-42〉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구성

성과	Input(투입)	Activities(활동)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	분야별 전문가 투입	PM (18MM) •교통 (30MM), 철도 (36MM) •구조 (24MM), 터널 (16MM) •토질 (9MM), 건축 (15MM) •시스템 (9MM), 열차운영 (3MM) •재무타당성 및 자원 조달계획 (6MM) •환경(이주대책) (3MM) •비용 (8MM), 경제성 (8MM) •법률 (5MM), PAO (18MM)
역량 개발	초청 연수	4과정 27명 (관리자 및 실무자, 4회)
사업수행용 물품 지원	사업수행용 물품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 수원 기관 기증

(4)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 사업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일정을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는 요소가 상당히 있으므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이 다소 합리적 연계되었다고 보임

○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내용 변경, 예산변경, 일정변경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100% 산출물을 도출하였으므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이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연계는 유상/무상 사업인지 여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임

- (유상)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결과적으로 계획대비 사업종료 일정이 7구간 사업은 3년 9개월(45개월), 10구간은 3년 1개월(37개월) 지연되었음. 이러한 결과와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론해 볼 때 사업계획과 일정의 연계가 합리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기는 아주 어렵다고 판단됨

- (무상)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3개월의 사업연장이 있었으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외부환경변화를 고려해 볼 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2. 사업수행의 적정성

- 교통 분야 사업수행의 적정성은 보통 수준임.
-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은 어느 정도 충실하였다고 판단됨.
계획대비 일정준수는 유상 사업의 경우 상당한 지연이 있었으나, 계획대비 예산 및 산출물은 유·무상 사업 모두 달성하였음.
 - 유상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일정 준수는 상당히 지연되어 충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유·무상 사업 모두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사업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보상 및 주민이주 지연, 설계변경 승인절차 소요 등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산출물을 도출하였음. 하지만 상당한 기간의 사업지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함
- 교통분야의 유상 사업은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으로 이에 대한 일정 내 사업완료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계획대비 산출물 도출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아야 할 것임

1) 사업수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은 어느 정도 충실하였다고 판단됨. 계획대비 일정준수는 유상 사업의 경우 상당한 지연이 있었으나, 계획대비 예산 및 산출물은 유·무상 사업 모두 달성하였음.

○ 유상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일정 준수는 상당히 지연되어 충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차관계약 발효 후 구매계약이 2개월 지연되었고, 사업완공까지 각각 45개월(7구간)과 37개월(10구간) 지연되었음
- 구매계약 체결에서 2개월 지연은 국제개발협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지연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완공까지 3년 이상 지연된 것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사업지연을 해결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도 없었다고 판단됨

〈표 3-43〉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일정

구 분		제7구간		제10구간	
		계획일자	실제일자	계획일자	실제일자
사업 시행	구매계약체결	2008. 10	2008. 12	2009. 05	2009. 07
	최초자금집행일	2009. 02	2009. 02	2009. 08	2009. 08
	완공증명서 발급	-	2015. 09	-	2015. 12
	사업 완공	2011. 12	2015. 09	2012. 11	2015. 12
	최종자금집행	-	2017. 06	-	미정
	PCR 제출일	-	2018. 12	-	2018. 12

- 무상 사업의 경우 대체로 계획 대비 일정을 준수하여 어느 정도 충실하였다고 판단됨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3개월의 사업연장이 있었으나 개발협력에서 다양한 내·외부 환경적 변수가 발생하므로 3개월 지연은 acceptable한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음
- 유·무상 사업 모두 계획예산 대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유상)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예산 대비 실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되었음. 다만 사업 계획 자체가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은 계획대비 매우 충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3-44〉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계획예산

(천USD)

구 성		제7구간			제10구간		
		계획(A)	실제(B)	차이(B-A)	계획(A)	실제(B)	차이(B-A)
토목	도로	37,137	49,442	12,305	59,960	52,987	△6,973
	교량	62,763	49,831	△12,932	39,940	35,296	△4,644
Service Charge		100	99	△1	100	88	△12
소계		100,000	99,372	△628	100,000	88,371	△11,629
예비비		-	-	-	-	-	-
합계		100,000	99,372	△628	100,000	88,371	△11,629

- (무상)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계획예산 대비 실제 집행금액은 파악할 수 없으나, F/S 수행내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통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유·무상 사업 계획대비 산출물은 모두 달성하여 매우 충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모두 계획대비 산출물은 모두 달성하였음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계획단계의 세부사업 내용에서 제7구간에서 노면폭 일부 축소(35m → 33m), 횡단고가 1개 추가 등과 같이 사업내용의 변경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산출물은 모두 도출함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모든 산출물을 도출하였음

(2)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

- 유·무상 사업 모두 대내외 상황변화에 대응하고 사업리스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적절하였다고 판단됨³³⁾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보상 및 주민이주 지연, 설계변경 승인절차 소요 등 다양한 상황변화에 대응하여 산출물을 도출하였음. 하지만 상당한 기간의 사업지연이 있었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함.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진행 중 특별한 리스크가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리스크가 관리되었는지에 대한 활동은 파악이 되지 않음

33) 하지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추가 보완자료가 필요함

2)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1) 사업의 난이도

- 교통분야의 유상 사업은 다양한 외부 환경변화가 발생하는 건설사업으로 이에 대한 일정 내 사업완료는 매우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계획 대비 산출물 도출 측면에서는 보통 수준의 난이도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변경, 사업 부지 보상 및 주민이전 등과 같은 난이도 높은 요인들이 발생함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라는 측면에서 건설사업 대비 난이도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임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교통 분야 사업의 사업결과의 타당성은 보통 수준임.
- 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효과는 산출물이 모두 도출되었고, 이에 기반한 단기성과는 달성하였으므로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하노이와 하이퐁 이동시간이 기존 126분에서 57분으로 감소하였으며, 7구간의 이동시간은 목표로 하였던 4.7분보다 0.4분 감소한 4.3분으로 확인되었고, 10구간의 경우 목표로 하였던 4.6분보다 0.3분 감소한 4.3분으로 감소하였음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인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공사에 필요한 장래교통수요 예측, 사회환경조사, 기본설계, 후속사업 연계계획 등과 같은 산출물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 달성하였다

고 보아야 할 것임.

- ○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는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어느 정도의 규모(총 385명의 인력)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VIDIFI)도 181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지속가능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됨
-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교통분야의 평가방법론은 정량적 성과지표만을 설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음
-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정도는 보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을 것이며,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는 측면과 베트남의 산업성장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예산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1) 사업효과성 및 영향력

(1) 계획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 계획 수립 시 예상 사업효과는 산출물이 모두 도출되었고, 이에 기반한 단기성과는 달성하였으므로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함
- 유사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교통혼잡 해소를 통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상한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고 판단됨.

- 단기성과로 하노이와 하이퐁 이동시간이 기존 126분에서 57분으로 감소하였으며, 7구간의 이동시간은 목표로 하였던 4.7분보다 0.4분 감소한 4.3분으로 확인되었고, 10구간의 경우 목표하였던 4.6분보다 0.3분 감소한 4.3분으로 감소하였음
- 다만 단기성과 목표였던 구간 교통량 증가정도와 차량운영비용 감소에 대한 지표는 측정불가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의 단기성과를 단 2개의 지표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사업목표인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공사에 필요한 장래교통수요 예측, 사회환경조사, 기본설계, 후속사업 연계계획 등과 같은 산출물을 도출하였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사업효과를 달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지만 본 타당성 조사의 결과물이 활용되는 시점이 결과물 도출 시점과 차이가 있어 실제 활용가능성 측면(본 사업이 시작되기 전 타당성 조사를 다시 업데이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보통이라고 판단됨

(2)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정도는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의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Hai Phong Expressway Operation and Management One Member Co., Ltd)이 어느 정도의 규모(총 385명의 인력)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VIDIFI Highwa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nterprises)도 181명의 기술 인

력을 보유하고 있어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지속가능성은 우수한 편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확보에 대한 판단은 베트남 정부의 운영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가능성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임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현재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구간 본 사업의 실시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현 시점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도출된 산출물의 활용여부는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됨

2) 사업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

(1) 사업 효과 측정·도출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 사업효과 측정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은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단기성과(outcome)와 중장기 성과(impact)로 구분하여 설정한 후 이에 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함

- 교통분야의 평가방법론은 주로 정량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사후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측면의 성과도 측정함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사전타당성 조사라는 측면에서도 PDM에 따라 Output/Outcome 수준에서의 검증지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정도는 보통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함

- 유상사업인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하였을 것이며, 교통혼잡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는 측면과 베트남의 산업성장 속도를 고려하였을 때 어느 정도 예산 효율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무상사업인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본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산출물을 도출하였지만, 현 시점에서 본 사업이 수행되고 있지 못하며, 향후 타당성 조사를 보완해야 할 개선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효율성은 보통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임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교통 분야 사업은 기관 수행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은 보통 수준임.

-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KOICA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그리고 호치민시정부 도시철도국(MAUR)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추진체계의 역할과 역량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 계획대비 산출물도 모두 도출되었으며 건설사업 후 도로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구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1) 기관사업 수행추진체계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

(1)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유상사업의 특성상 한국수출입은행이 차관을 제공하고 베트남이 사업을 발주하여 건설, 운영, 관리를 하므로 이에 대한 추진체계의 역할과 역량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Hai Phong Expressway Operation and Management One Member Co., Ltd)이 어느 정도의 규모(총 385명의 인력)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며,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VIDIFI Highway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Enterprises)도 181명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KOICA와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그리고 호치민시정부 도시철도국(MAUR)이 참여하여 이에 대한 추진체계의 역할과 역량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초청연수를 통해 메트로 운영 및 건설에 대한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호치민시정부 도시철도국(MAUR)은 현재 호치민 메트로 1호선 공사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추진체계라고 보아야 할 것임

(2)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사업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노력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은 어느 정도 노력하였다고 판단됨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경우 EDCF-베트남 재무부-베트남 인프라개발투자회사(Vietnam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vestment and Finance JVC; VIDIFI) 간의 협력은 보통 정도로 판단됨

- 계획대비 산출물도 모두 도출되었으며 건설사업 후 도로도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조체제는 어느 정도 구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유상사업으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여 무상사업인 사전타당성 조사사업과 유상사업의 연계의 노력정도는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베트남 정부의 정책변화와 너무 많은 메트로 건설사업이 계획 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보통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5. 소결: 쟁점 및 시사점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유상사업의 반복적인 사업지연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필요

- 유상사업의 경우 미리 예견되는 외부환경요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사전타당성 조사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이후 본 사업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토지수용 및 보상에 대한 조건이 변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사전타당성 조사 시 사업진도를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보다는 사회적 측면(토지수용, 보상, 이주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사업 계획에 반영)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운영·기관역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운영 노력 필요

-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보더라도 35개월 이상의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등 유상사업의 체계적인 성과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 EDCF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금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자체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지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임
 - 수은 내 평가부(팀)의 기능을 확대하여 본사 차원에서 세부적으로 사업의 진도를 체크하거나 각 사업당 자체 M&E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사업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음

□ 유무상 사업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

- 유무상 사업연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사업 계획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
 -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유상사업으로 바로 연계되지 못하여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도출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유상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개연성이 높음. 사전타당성의 결과물 도출시점과 유상사업에서 도출된 결과물 사용 시점간의 시차가 길어서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조사내용을 업데이트 할 가능성이 높음
 - 유무상 연계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계사업 발굴 시부터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

3) 사업 평가·성과관리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정확한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다양화 필요

- 유상원조사사업에서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사회적 측면의 성과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
 - 유상사업의 경우 정량지표 위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경제적 측면의 성과만을 측정하는 사업이 대부분임
 - 유상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건설이 그 지역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회적 성과지표 발굴과 이에 대한 자료 축적 등 방법론의 개선이 필요함

□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환류하여 향후 사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 마련이 필요

- 교통 분야 사업의 개별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장단점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을 계획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유무상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다음 사업에 반영되는지 알 수가 없음
-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

제5절 민관협력

1. 사업계획의 적절성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이 우수한 편임.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의 1기 기타분야인 농촌개발, 2기 중점분야인 물관리/보건위생 분야 사업이며, 민관협력 및 민간기업과 협력강화 방식으로 이행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한 국별전략과 연계성이 높은 편임.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문제분석을 통해 상위목표와 하위목표간 연계성을 갖추도록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산출과 성과목표의 수준이 맞지 않아 목표체계성은 보통수준임.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목표에 맞게 복합적으로 구성요소가 설정하고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등 요소를 강조하고 있어 구성요소 적절성은 우수한 편임.
 - 단 사업규모에 비해 사업요소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집행과정에서 구성요소를 추가한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함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중요한 구성요소별로 활동을 세분화하여 일정을 실현가능하게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사업계획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성은 우수한 편임.

1)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1)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의 일관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국별전략과 일관성 평가

- 국별전략 1기 시 발굴된 사업으로 1기 전략의 중점분야는 녹색성장/환경, 기술직업훈련, 교통(도로), 기타분야는 공공행정, 의료보건 등이었음. 중점분야와 별도로 새마을운동을 비롯하여 농촌개발사업을 국별전략에서 다루고 있음. 따라서 국별전략과의 연계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2기 CPS에서 이행전략 중 하나로 민관협력,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국별전략과 사업계획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중 신농촌개발전략(2008)에서 농민소득 증대를 주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동사업을 통해 다투언성 팜응마을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수원국의 국가발전전략에 기여할 수 있음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국별전략 일관성 평가

- 국별전략 2기 물보건위생 분야에 해당함. 그러나 소규모 민관협력 사업으로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대 베트남 CPS 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아님. 베트남은 중진국으로 진입하여 모자보건과 같은 1차 보건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은 상황이 아님.
- 그러나 2기 CPS에서 이행전략 중 하나로 민관협력, 민간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본 사업은 혁신적 개발협력을 추구하는 최근 개발원조 동향에 부합하는 사업임.

(2) 사업프로그램의 목표 체계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목표체계성 평가

- 본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농촌 빈곤감소로 이를 위해 문제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함.
- 최종 목표는 (1)농촌 자생력 강화, (2)농업소득 증대라는 최종목표를 설정하고, (1) 농촌자생력 강화의 하위목표를 농민조직 운영, 마을시설 개선, 주민 사기 고취, (2)농업소득증대의 하위목표는 농산물 판매소득 증대, 인당 농업 생산성 향상 등으로 설정하여 계획서상의 사업목표를 체계적으로 구성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목표 체계성 평가

- 휴대용 무선초음파 진단기를 보급하여 베트남 지역사회 의 모자보건을 포함한 1차 보건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임 목표임. 이를 위해 모바일 초음파 기기 보급, 활용교육, 지역주민 검진 등으로 사업을 구성하고 각각의 목표를 설정함.
- 그러나 이는 산출(output) 단위의 목표이고, 성과(outcome) 단위의 목표인 지역사회 모자보건 지표는 목표치로 설정하지 않음. 산출물로 설정한 검진 데이터의 수, 이를 활용하여 보건의 향상된 사례/혹은 지표 등을 성과(outcome) 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표체계성이 미흡함.

(3) 사업계획 구성요소의 적절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업 구성요소 평가

- 2가지 사업의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목표에 맞게 복합적으로 구성요소가 설정되었으나 다만 220만 USD 사업에 사업구성요소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음.
- (1)농촌자생력 강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①마을 자치역량 강화, ②마을 생활환경 개선을 구성요소로 설정함
- (2)농업소득 증대 목표 달성을 위해서 ③농업생산성 증대, ④CJ고추작물 계약재배, ⑤협동조합설립 등을 사업 요소로 설정함.
- 사업집행 단계에서 사업 구성요소를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단계부터 적절하게 사업을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현장에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요소를 추가함.
 - 또한 협동조합 설립은 사업계획에는 없으나 사업집행과정에서 추가된 활동임. 농기계뱅크 운영, 소액금융 운영, 공동작업장 및 농산물 가공소 운영 등을 위해 협동조합을 설립함
- 또한 협동조합 설립의 경우 농업소득 증대와 더불어 농촌자생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구성요소이나 농업소득증대 목표의 하위 활동으로 구성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사업 구성요소 평가

- 사업구성요소는 모바일 초음파 기기 보급, 보건소 일반의 대상 초음파 수련과정 운영, 실제 기기활용 등 기자재지원과 역량강화로 구성하고

실제 활용되는 것까지를 사업구성요소로 적절하게 설정함.

- (1) 모바일 초음파 기기 보급의 계획 상으로 홍화현 총 21개 보건소 중 9~10개 보건소에 공급계획. 108 군병원 국경지역 군보건소 10개소에 기기 보급 계획을 설정하는 등 구체적 활동계획을 수립함
- (2) 보건소 일반의 대상 초음파 수련과정 운영(2회, 각 3개월), 기존 교육수로 의료진 대상 추가 기기사용 교육(1주일 기간) 등으로 실현가능한 활동계획을 수립함.
- (3) 기기활용: 산모 대상 4회 산전검사, 일반인 대상 간검사 등으로 사후 활용까지 고려한 활동계획을 수립함.

(4)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일정 합리성 평가

- 총 사업기간을 2014-2017년 3년으로 사업일정을 구성함. 중요한 구성요소별로 활동을 세분화하여 일정을 실현가능하게 수립함.
- 다만 사업요소가 세분화되어 있고 지역개발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기간연장을 통해 3년 4개월 집행함.
- 사후관리,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활동까지 고려하면 사업기간이 더 길게 설정되었어야 하는데 이를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계획과 일정의 합리적 연계는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일정 합리성 평가

- CTS 프로그램 중에서 SEED2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1년 기간 사업으로 형성됨. 현황과약, 기기보급, 교육, 검진 등 단계별로 적절하게 사업 일정을 기획함.
- 또한 기획한 일정대로 사업을 집행하여 사업내용과 일정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됨

2. 사업수행의 적절성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충실성은 양호함.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계획 대비 일정 준수, 예산 집행율은 보통수준이나 계획대비 산출물을 초과달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편으로 평가됨.
 -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일정 4개월 지연, 휴대용 초음파기기 보급사업은 예산집행율 70%임.
 - 그러나 두 사업 모두 산출물은 목표 대비 초과달성하였음. 다만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수확량 증대라는 산출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활동을 추가로 실시했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변화 대응은 우수한 편임.
 -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집행과정에서 변수들이 발생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함.

- 휴대용 초음파기기 보급사업은 사업초기 문제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계획 단계 시 고려하지 못한 활동을 추가로 실시함.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사업특징상 난이도가 보통 또는 난이도가 낮은 수준인 사업이지만 계획대비 충실하게 수행하고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는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1) 사업수행의 충실성

(1) 사업계획 대비 사업수행 실적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 사업계획 대비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으나 일정은 4개월 지연됨. 산출물 지표는 대체로 달성하였으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수확량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성과를 고려하여 사업수행 충실은 우수한 편으로 평가함.

○ (일정) 최초 집행계획에는 2014.5~2017.4(36개월)로 계획되었으나 실제로는 4개월 연장함.

○ (예산) 총사업비 234만불을 KOICA/CJ 각각 115만불씩 100%집행함. 추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천만원(약4만불)을 집행함.

○ (산출물 달성도) 산출물(output)은 총 15개 지표로 측정하였으며 대체

로 100% 달성하고 일부는 초과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수확량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마을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발전기금 운영의 산출물 목표치 초과달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CJ 수요작물 계약재배 산출물도 가구수는 목표를 초과달성함.
- 하지만 수확량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사업수행 충실성 평가

- 사업계획 대비 일정을 준수하였으나 예산집행율은 70%로 저조함. 사업의 산출물을 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했다는 점에서 사업수행의 충실성은 우수한 편임
- (일정) 계획대로 1년 내에 사업을 완료함
- (예산) 사업비 총 4억원 중 2억 8천만원 사용하여 집행율이 70%로 예산집행율은 저조함.
- (산출물 달성도) 산출물은 기기를 보급한 보건소의 수, 교육받은 의료인 수, 혜택받은 환자의 수 등의 주요지표를 모두 달성함.
 - 첫째, 총 30개 보건소에 공급하여 산출물 목표를 초과달성함. 최종 결과보고서에서는 전체 20개 보건소에 다 보급하여 보건소 10개 공급계획보다 초과달성함. 광찌성 흥화현 20개 보건소에 휴대용 초음파 모바일 기기 공급. 108 군병원 기기 10개 보급(총 30개 보건소).
 - 둘째, 교육받은 의료인의 수는 초음파 교육 51명, 지역사회보건요원 306인으로 목표치를 달성함.
 - 셋째, 환자의 수는 서버에 데이터로 저장된 활용건수를 확인한 결

과, 초음파 진료데이터가 총 3,000건으로 높은 활용도를 보임.

(2)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정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상황변화 대응 적정성 평가

- 수원기관과 PMU(사업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운영위원회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면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함.
- 의사소통 효율화를 위해서 주요 담당 소통채널을 통해 의사소통을 정확히 함. 시기별 현안 대응을 위한 이해관계자 워크숍 실시.
- 사업 예산 증액, K-Water 사업참여, 사업기간 변경, 사업계획 변경 등 상황변화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면서 적절히 사업을 운영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상황변화 대응 적정성 평가

- 현지 의료진의 기술사용 과정에서 초기 단계에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이를 극복함.
 - 스마트 기기 사용 미숙, 애플리케이션 오류로 종료, 의료진의 낮은 의료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지어 매뉴얼 작성 및 반복된 교육을 실시함.
- 또한 초음파를 사용한 검진에 대해 주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의료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성패의 관건이었기 때문에 지역보건사회 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방문 등을 강화하여 검진을 활성화하도록 독려함.

- 활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바일 기기 활용 검진 비율을 높이고, 보건요원 대상 컴피티션을 통해 활용율을 높이고자 노력함.

2) 사업성과 달성의 난이도

(1) 사업의 난이도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사업성과달성 난이도 평가

- 본 사업은 민관협력 프로젝트 사업이자 농촌개발 분야 사업으로 복잡한 사업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난이도가 중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계획대비 적정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여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사업성과달성 난이도 평가

- 본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이자 개도국 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는 사업. 그러나 계획대비 사업집행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목표를 적정하게 달성한 것으로 보여 보통수준으로 평가함.

3. 사업결과의 타당성

-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업결과 타당성은 양호함.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업효과 발생 정도를 볼 때, 사업계획 대비 목표는 달성하였지만 성과목표 중 일부만을 달성하였고, 국민편익 증진이 사업지역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함.
 -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자치역량강화 성과목표는 달성했으나 농가소득 증대 목표는 달성하지 못함. 해당지역 내에서의 사업만족도와 국민편익 증진효과는 높으나 전체 국민편익증진에 기여하는 유형의 사업은 아님..
 - 휴대용 초음파기기 지원사업은 성과목표인 1차 보건지표의 향상수준 정도를 보고하지 않음. 향후 비즈니스 기회창출이 가능하여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추적평가가 필요.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종료 이후 사업지 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즈니스 기회창출이라는 점에서 성과가 보고되지 않아서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함.
 -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사업종료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후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성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 휴대용 초음파기기 지원사업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나라 할 수 있으나 종료평가 시점에서 보고되지 않아 추적평가 필요.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업효과 측정을 위해 과학적 방법론, 계량지표를 활용한 점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이 우수하나 종료

평가 시점에서 적절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업 효과 측정 및 도출과정의 합리성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

-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 사업은 PDM을 잘 구성하고 성과지표를 추적관리하여 종료평가 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적절하게 실시함
- 휴대용 초음파기기 지원사업은 무작위실험으로 효과 입증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종료평가 시 데이터 활용하여 활용율을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함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value for money) 정도는 파급력이 약한 지방에서 1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개발효과성과 시장확장성 측면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여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함

1) 사업효과성 및 영향력

(1) 계획수립시 예상한 사업효과 발생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 (성과(outcome)) 본 사업의 성과(outcome)는 농촌 자생력 확대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농가소득 증대 성과목표는 기한 내에 달성여부를 측정하지 못함.
 - 마을자치역량 지표를 구성하여 측정한 결과 기준치 2.76, 최종 결과 3.84로 목표치 3.5를 초과달성함.
 - 하지만 농가소득의 경우 정확한 소득자료에 기반하여 측정하지는 못함. 또한 종료평가에 따르면 사업종료 이후 CJ 계약제배에 참여하는 농가수가 줄어들고(33가구-)31가구, 제배 면적 감소(12.5ha-)11.1ha)하였음.

- 하지만 사업 종료 이후 2018년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목표를 달성했을 것으로 추정하나 추후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함.

○ (사업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을 것으로 추정됨.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수민족에게 농업기술 습득할 기회 등을 제공한 점 등에 근거할 때 주민 만족도는 높ی 평가됨

○ (국민편익증진) 팟응 마을 2개 지역 농업소득 향상, 농촌마을 자생력 강화 등을 통해 해당지역 수혜자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됨. 다만 사업규모가 작아서 주변 지역까지 보다 넓은 의미에서 국민 편익이 증진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나 해당지역의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함.

○ (기대/파급효과 및 영향력) 2017년 사업 종료 이후, 2018년 CJ에 고춧가루를 판매하여 약 5백만동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등 농가소득 증대라는 측면에서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있음. 본 사업 지역 외에 인근 지역에서 2개 마을이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것이 사업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 (성과(outcome)) 본 사업의 성과(outcome) 지역주민 모자보건을 포함한 1차 보건지표 향상이나 종료평가 시점에서 이에 대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기기 활용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동 사업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종료평가 시점에서는 사용율이 그다지 높지 않아서 모자보건 지

표 등 1차 보건지표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추가적으로 지켜
봐야 함

- (국민편익 증진) 광찌성 지역 주민들에 대해 초음파 검진기회가 확대됨
으로 인해 향후 조기발견, 전원조치를 통한 치료 등의 국민편익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됨.
- (기대/파급효과 및 영향력) 본 사업의 파급효과는 이 사업의 실행기관
인 힐세리온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판단할 수 있으나 향후 추적평가
가 필요함.
 - 1년의 기간만으로 판단하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업기간을 전
후하여 사업지 이외 기관 등에 휴대용초음파 기기를 납품하고 계약
이 성사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2) 사업의 산출 및 결과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종료평가에 따르면 사업종료 이후 CJ 계약제배에 참여하
는 농가수가 줄어들고(33가구-)31가구), 제배 면적 감소
(12.5ha-)11.1ha). 그러나 참여가구는 줄어도 생산량은 증대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생산성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사업종료 이후 문화활동 및 마을자치조직별 소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아 마을회관 활용도는 낮은 편이라고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사후관리 등을 활발히 하고 있는 점은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됨.

○ 협동조합 설립이 사업 운영과정에서 추가됨. 그러나 종료평가에 따르면 협동조합 운영계획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바 있음.

○ 사업종료 이후에 마을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후관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성과의 증장기적 지속가능성은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지속가능성 평가

○ (지속가능성) 본 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된 모바일 초음파 검진기기를 보급한 후 이후 베트남 정부, 국제기구, INGO 등에서 사용하도록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라고 하나라 할 수 있음.

○ 종료평가보고서 상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종료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지 않음

○ 베트남 현지에서 한솔베트남과 3년간 500대 규모 계약 체결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을 발판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나 종료시점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각되지는 않아 추적평가가 필요함.

2) 사업효과 측정·도출 과정의 합리성

(1) 사업 효과 측정·도출을 위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론 적용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효과측정 합리성 평가

- (사업효과측정 방법론) PDM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사업 주요 지표를 관리한 점이 우수함.
- 별도의 성과관리팀(국민대)의 협력을 통해 성과지표를 추적관리하고 적절한 계량 지표를 제시함.
- 종료보고서 및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효과를 측정하고, 정성평가를 통해 개선방안 등을 잘 제시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효과측정 합리성 평가

- (사업효과측정 방법론) 사업계획서상에서는 마을 선정 시 무작위 추출을 통해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성과를 측정하겠다고 함. 실제 사업 수행 후에는 홍화현 내 모든 보건소에 공급이 이뤄짐에 따라 대조군과 비교하지는 않음.
- 다만 진료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여 산출물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줌. IRB 신청,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협업을 통한 효과성 평가 등을 계획하였으나 종료보고서상으로만 보자면 심도 깊은 연구는 제시되고 있지 않음

(2) 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평가

-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fM) 효율성 측면에서 투입 대비 산출은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효과성/형평성에 대해서는 소수민족 지역에 대해 투자한 점이 형평성 차원에서는 VfM 달성에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효과성 측면에서는 이로 인해 소득증대 효과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소수민족 지역에서 사업을 하여 이들의 농업기술 습득 능력이 기대와는 달리 빠른 속도로 향상되지 않아서 효과성과 형평성이 배치되는 점이 있음.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예산대비 효율성 평가

- (사업예산 대비 효율성 정도/VfM) 투입 대비 산출(효율성) 측면에서보자면 베트남의 특성상 기초의료기관(primary level health center)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음. 또한 국가적으로 베트남 정부가 정책화하여 기초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없음. 따라서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확장성을 가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시장확장성 측면에서 한 지역(광찌성)에 마케팅해서 베트남 의료기기 전체 시장에 접근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음. 4억원의 가치에 비해서 향후 기대 편익이 크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정확한 추정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

4.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기관 수행체계의 적합성은 우수한 편임.
-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원국 및 공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적절히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함.
- 협조체제 구축 및 추진 노력 정도 측면에서 CSV(공유가치창출) 대표 사업으로서 개발과 기업활동을 연계한 점이 우수하며, 베트남 내의 사업지 이외 다른 지역, 아프리카 시장 진출 사업과 연계 노력 등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함.

1) 기관사업 수행추진체제 및 업무지원의 적합성

(1)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추진체제 평가

- (사업추진체제 역할) 운영위원회(KOICA-CJ-닌투언성 인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종합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함.
- KOICA, CJ 외에도 수자원공사가 참여함. 베트남측에서는 농업농촌개발부가 관여하는 가운데, 사업관리기구(PMU)에 닌투언성, 럽선면인민위원회 등이 참여함.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적절히 구성함.
- (사업추진체제역량 적합성) CJ는 민간기업으로서 사업을 기획하여 완료하기 까지 책임성 있게 사업을 완수함. CJ 가 전문성과 노하우를 사

업에 반영하였으며, 현장에 POM를 설치하여 주민과 교류하며 마을주민의 참여를 독려함.

- KOICA 베트남 사무소 및 본부 역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며 적절하게 리스크를 관리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추진체계 평가

- (사업추진체계 역할) KOICA-힐세리온-꽝찌성 홍화현 인민위원회 협업 체계 구축함

- 본 사업의 관계기관이 베트남 보건부, 꽝찌성 인민위원회, 홍화현 인민위원회, 지역 보건센터, 홍화현 지역보건소, 병원, 마을단위 보건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함.

- 복잡한 지역 내 정부기관과 보건당국 역학관계를 극복하고 홍화현 지역보건소 내에 현지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사업 집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적절하게 구축함.

- (사업추진체계역량 적합성) 힐세리온은 모바일 초음파 기기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으로 적정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

- 또한 KOICA는 CTS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필요한 행정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지원을 적절히 함.

(2)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사업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노력 정도

□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협조체계 구축 노력 평가

○ (관련 기관 사업협조체계 구축) 한국측 KOICA-CJ-K Water, 베트남 측 농업부 및 지역인민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함. 대표적인 민관 협력사업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로 무상원조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 특히 CSV(공유가치창출) 대표 사업으로서 개발과 기업활동을 연계한 점이 우수함.

□ CTS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협조체계 구축 및 사업연계 노력 평가

○ (관련 기관 사업협조체계 구축) KOICA-힐세리온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민관협력으로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함. 힐세리온과 KOTRA가 협력하여 베트남 현지 의료기기 총판시장을 조사하고 접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

○ (사업연계) 사업기간 내에 본 사업 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다른 병원(Bach Mai) 기증, 팡찌성 행복프로그램에 기기 공급(4대), 아프리카 5개국 글로벌협력의사에게 기기보급 등 다른 사업과 연계,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함

5. 소결 및 시사점

1) 사업계획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베트남에서 실시한 민관협력사업들은 사업목표에 맞게 복합적으로 구성요소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우수함. 그러나 민관협력사업 특성 상 사업비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에 비해 사업구성요소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 사업요소가 세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현실적인 사업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운영·기관역량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베트남에서 실시한 민관협력사업들은 수원기관과 PMU(사업관리기구)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하면서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우수함.
- 사업현장에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면서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수혜자들과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절하게 대응함
- 사업추진체계의 역할 및 역량의 적합성 측면에서 수원국 및 공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적절히 구성하였다는 점은 다른 사업의 교훈으로 삼을만함.

3) 사업 평가·성과관리 관련 쟁점 및 시사점

- 민관협력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은 다른 프로젝트 사업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작은 편임. 하노이, 호치민 등 중심도시가 아니라 파급력이 약한 지방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1개 지역만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개발효과성과 시장확장성 측면의 영향력이 낮을 수 있음.
- 1차 사업이 성공한 경우에 이를 확장(scale-up)하여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 사업, 혹은 보다 큰 사업비를 투자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확

대한다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개발효과성은 물론이고 시장진출 가능성 (marketability)도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므로 사업 종료 이후라도 계속해서 추적조사를 통해 성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

제 6절 소결: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결과정보³⁴⁾

1. 공공행정분야


□ 종합결과

공공행정분야	사업명	우수 (91~100)	양호 (81~90)	보통 (71~80)	미흡 (70이하)
양호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				
	베트남 토지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지원사업				

□ 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종합

구분	평가	시사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양호 	- 전반적으로 수원국 발전전략과 연계성이 높고 사업요소를 종합적으로 구성함 - 그러나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의 경우 국별전략과 사업목표간 직접적 연계성이 떨어짐
사업수행의 적정성	양호 	- 계획대비 산출물을 달성하였으며 수원국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을 적절히 변경하여 집행함
사업결과의 타당성	양호 	- 지속가능성 및 향후 기대효과가 높으나 아직 국민편익 증진 가시화정도가 낮음 - 토지정보종합관리시스템 사업은 파일럿 사업으로 직접적인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 효과는 미미(현재 2단계 사업 발굴되어 진행 중)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양호	- 국내 관련부처 및 전문기관이 사업을 수행하여

34) Performance Information Board

		시행기관 자체의 역량은 갖추었으나 수원국 및 국내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에서 개선이 필요함
--	---	---

공공행정분야 우수점/미흡점





<p>(우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연수원역량강화 사업은 1차 사업- 2차 사업-사후관리사업- 3차 사업으로 연계실시하고, 토지 정보종합시스템 개발지원사업은 1차-2차 사업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프로그램형 원조사업을 실시하여 사업성과를 확보함 ○ 공공행정분야 성과가 장기적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베트남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ODA 사업에도 참고할 수 있음 <p>(미흡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표의 성과-산출-활동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목표가 추상적이며, 성과 및 산출 목표의 수준이 혼재된 점 등 목표체계성 미흡한 점은 개선이 필요함. ○ 공공행정 분야 사업의 특징상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 효과가 사업 종료 이후 상당기간 이후에 발생하므로 기대효과 대비하여 국민편익이 실제 증진되도록 계속해서 성과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통해 사업성과 타당성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교육/직업훈련 분야

종합결과

교육분야	사업명	우수 (91~100)	양호 (81~90)	보통 (71~80)	미흡 (70이하)
<p style="color: green; font-weight: bold;">우수</p>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베트남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설립사업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 (1~3차)				

□ 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종합

구분	평가	시사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표가 CPS 및 국별전략과 일관되고, 사업 구성요소 역시 수원국 상황에 적합하게 기획됨. - 다만 사업계획 내 단기-중기-장기 성과 간의 논리적 연계가 미흡함.
사업수행의 적정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은 계획대비 많이 지연되었으나 현지 상황에 대응하여 사업 내용 및 목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산출물을 모두 달성함.
사업결과의 타당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 지역 한베직업기술대학 사업 중 하노이 대학은 목표한 성과(outcome)를 대부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원국 정부, 학교 리더십 및 교직원, 학생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음. 특히 직업훈련기관 핵심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졸업생 수와 취업률이 매우 높게 나옴. - 박장성 한베기술대학, 한베산업기술대학 등은 학교 부근에 산업단지가 있고 노동보훈사회로부터 우수 대학 중 하나로 선정된 후 매년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어 지속가능성 높음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업들은 유상 사업 및 무상사업의 정형화된 사업추진체계를 가짐 - KOICA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인력 규모와 구성, 업무 추진성과, 외부 협력내역 등을 볼 때 충분한 사업 추진 역량을 가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일정관리, 위험관리, 성과 담보를 위한 대응적 전략 수립 측면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사업 및 성과관리 역량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 EDCF 베트남 사무소의 경우 국가 채무관리를 강화한 베트남 수원체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 역량 강화가 요구됨.

□ 교육분야 우수점/미흡점

(우수점)

1. 사업의 적절성

-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은 베트남의 국가개발전략 및 한국의 국가협력전략과의 일관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전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개발환경과 현장 Needs까지 마련되어 있음.
- 이에 베트남 TVET 분야 ODA 사업은 국가전략과의 일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국의 전략 달성에 실질적 기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업임.

2. 사업의 성과

-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은 1) 예산의 규모, 2) 자원의 연속성, 3) 사업 대상지 및 대상기관 선정의 적절성 확보를 통해 목표한 성과(outcome)를 대부분 달성함. 무엇보다 직업훈련기관 핵심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졸업생 수와 취업률이 매우 높게 나옴.
- 특히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3차에 걸쳐 추진된 연속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을 한 번에 투입하지 않고 학교 성장 과정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함.
 - 구체적으로 1, 2차 사업 추진 후 개선 필요사항 및 베트남 측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 3차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 즉 3차에 걸친 사업이 (1차) 대학설립 - (2차) 학과·교수역량 강화 - (3차) 대학 역량 강화로 각 회차 사업간 긴밀히 연계됨.
 - 또한 1) 베트남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함께 변화하는 시장의 기술인력 수요를 각 회차 후속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학과 커리큘럼을 개정 및 발전시킨 점, 2) 실습실 및 실습 장비 추가지원, 노후장비 개보수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 점, 3) 3차 사업에서 대학운영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점, 4) 지속적인 봉사단 및 자문단 파견 등은 동 사업의 주요한 성과달성 요인임.
- 한편 한국 유무상 원조사업으로 건립된 직업기술대학들이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선정한 우수 기술대학으로 선정되어 베트남 정부지원을 받게됨에 따라 향후 지속가능한 대학운영과 발전이 기대 됨.

(미흡점)

1.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베트남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의 경우 유무상 형태와 관계없이 대부분 사업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됨. 이에 더욱 합리적으로 사업계획 내용과 일정을 기획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ODA 사업에서 건물 신축과 기자재 구매는 그 조달과 입찰, 실제 활동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연이 발생함. 이에 해당 요소를 포함하는 사업의 경우 일정을 보수적으로 계획할 수 있음.

○ 베트남 교육(직업훈련) 분야 사업은 대부분 건물 신축부터 기자재 지원, 교육과정 및 교보재 개발, 역량 강화, 학교운영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까지 직업훈련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comprehensive) 형태로 구성됨. 이는 수원국 상황에서 성과를 담보하기에는 적절하나 필연적으로 다수 이해관계자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구성요소 간 시간적·내용적 연계 확보의 어려움을 가짐으로써 일정지연, 기타 품질 및 사업관리 이슈를 발생시킴. 이에 1)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 강화, 2) 사업 구성요소 간 논리적 연계 기획 및 추진 노력 확대(사업 구성요소 산출물 간의 인과 관계 분석 강화(성과 중심의 추진 순서 배열(sequence) 기획, 명확한 역할 연계 정의 및 연계 부분에서의 책임 구분 등) 노력이 요구됨.

3. 물관리 보건위생 분야

□ 종합결과

물관리 보건위생 분야	사업명	우수 (91~100)	양호 (81~90)	보통 (71~80)	미흡 (70이하)
양호 	베트남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투아티엔hue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 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종합

구분	평가	시사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양호 ●	- 수원국 발전전략과 연계성은 높으나, 사업요소를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하고 있음
사업수행의 적정성	양호 ●	- 계획대비 산출물은 달성하였으나 수원국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적절히 변경하였다고 판단됨
사업결과의 타당성	양호 ●	- 지속가능성 및 향후 기대효과는 높은 편이지만 국민편의 증진하였다는 가시화정도는 낮음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양호 ●	- 사업수행업체, 시행기관 및 수원기관의 협조체계는 양호한 수준에서 구축됨

□ 물관리/보건위생 분야 우수점/미흡점

<p>(우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아끼띠이 상수도 건설사업의 경우 롱안 성 20여개 산업단지(전체산업단지 대비 40%)에 안정적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덕호아 지역내 6,000가구에 양질의 물을 공급하고 있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의 사업성적을 달성해 나아가고 있음 ○ 유무상연계사업인 투아티엔훤 종합병원 건설사업과 중부지역병원 사후관리 기술협력사업 경우, 건설사업 직후 역량부족으로 500병상 중 200병상만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베트남 보건부로 주체가 변경되고 사후관리사업이 실시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의 사업성적을 달성해 나아가고 있음 <p>(미흡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상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를 사업변경, 보상지연 등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4. 교통분야

교통분야	사업명	우수 (91~100)	양호 (81~90)	보통 (71~80)	미흡 (70이하)
보통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7, 10구간)				

□ 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 종합

구분	평가	시사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양호 	- 수원국 발전전략과 연계성은 높으나, 사업요소를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구성하고 있음
사업수행의 적정성	보통 	- 계획대비 산출물은 달성하였으나 수원국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을 다소 적절히 변경하였다고 판단됨
사업결과의 타당성	보통 	- 지속가능성 및 향후 기대효과는 높은 편이지만 국민편익 증진하였다는 가시화정도는 낮음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보통 	- 사업수행업체, 시행기관 및 수원기관의 협조체계는 보통 수준에서 구축됨

□ 교통분야 우수점/미흡점

(우수점)

-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의 경우 이동시간 단축 등 교통체증 해소에 실질적 성과를 보이며 경제적 측면에서 베트남 국민에 실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됨

(미흡점)

- 유상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렇게 지연되는 사유를 사업변경, 보상지연 등만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의 경우 본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산출물을 도출하였지만, 바로 유상 사업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본 사업이 시작될 경우 대규모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조사를 하여야 하는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예산효율성이 낮음

5. 민관협력

□ 종합결과

교육분야	사업명	우수 (91~100)	양호 (81~90)	보통 (71~80)	미흡 (70이하)
양호 	베트남 농촌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새마을사업				
	휴대용 초음파 활용 1차 보건 증진사업				

□ 평과결과 시사점 종합

구분	평가	시사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별전략 이행전략 중 민관협력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며 합리적 사업계획을 수립함 - 민간기업과 협력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므로 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설정
사업수행의 적정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대비 산출물 목표를 달성하고 상황변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제도화함 - 휴대용 초음파 활용 사업은 계획대비 산출물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예산집행률이 낮음

사업결과의 타당성	양호 	- 사업성과 달성 및 수원국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하였으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
기관수행 체계의 적합성	우수 	- 민간기업이 개발협력에 참여하여 공유가치를 창출(CSV)하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개발과 기업활동을 연계한 점이 우수 - 민간기업의 개발도상국 시장진출 등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함

□ 민관협력 우수점/미흡점

(우수점)

- 국별전략 이행전략 중 민관협력강화, 민간기업과 협력강화 전략방향에 기여하는 사업들로서 베트남 수원환경변화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민관협력 방식 사업이 확대될 필요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구성요소를 적절하게 설정하고 일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함
- 사업추진체계 역할 및 역량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기업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적절히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함.
- 개발과 기업활동을 연계한 점이 우수하며, 베트남 내의 사업지 이외 다른 지역, 아프리카 시장 진출 사업과 연계 노력 등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 우수함.

(미흡점)

- 목표체계성 미흡하여 산출-성과-최종목표간 연계를 위한 보완이 필요함.
- 사업성과는 달성하였으나 사업 이후 마을의 자체적 사업운영, 비즈니스 기회 창출 등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완 노력이 필요함

제4장 베트남 ODA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전략 · 계획 관련 개선방안

1. 베트남 국가협력전략(CPS) 3기 전략방향 및 중점분야 제언

-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3기 수립 시 중소기업 도약을 위한 개발수요에 대응하여 중점분야로 고급기술인적자원 육성, 과학기술이전 등을 제안
- 베트남 정부는 2021-2030 사회발전전략(SEDS)을 수립 중이며 이에 맞춰 ODA 전략도 새롭게 수립할 예정임.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MICs)로 진입하고자 노력중이며 발전단계에 따라 한국측의 중점지원분야도 변화 필요
- 베트남의 변화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4-1〉 베트남 개발수요 변화와 대응방향

베트남 개발수요 변화	대응방향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MIC) 도약을 위한 경제성장 강조 및 외국인직접투자 선호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이전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 수요 증대 ●경제발전을 위한 인프라 건설 수요 급증 ●경제 및 사회변화를 위한 제도 및 거버넌스 개선 요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ODA 이외 민간재원 투자 희망. 민간기업 진출과 ODA 연계방안 수립 필요 ●고등교육 및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ODA 사업 필요 ●도로, 철도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나 유상원조는 지양 정책에 대해 대응 필요 ●한국의 제도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며 제도이전 및 기술협력 수요 대응 필요

- 취약지역,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
- 도시화 부작용해소를 위한 수자원관리, 주거시설 안정화 필요성 증대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 증가

- 산악지대(소수민족 거주지) 등에 대한 무상 원조, 지방정부와의 ODA 추진 필요
- 상하수도 관리, 주택 개발 등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필요한 수요 지원 필요
- 기후변화에 적응 및 대응하는 정책 및 제도 도입에 대해 지원 필요

○ 특히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무상원조 지원분야는 정부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인적자원개발, 보건, 농촌개발, 유상원조 지원분야는 인프라, 농촌개발 및 관개사업, 도시개발(그린시티, 스마트시티, 다이나믹 시티 등), 기후변화 대응 등임.

○ 중소득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급기술을 가진 인적자원 육성, 과학기술이전 등이 필요하므로 3기 국가협력전략에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베트남 수원국 원조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필요

○ 베트남이 지원받는 ODA는 유상원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국도 유상원조의 비율이 70%에 달함. 그러나 최근 베트남에서 차관 운용 및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유상원조 사업을 제한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

- 유상원조 승인절차가 강화되면서 신규 차관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유상원조 지원 시 사업승인 가능성 등 고려

○ 또한 베트남 정부 내에서 구속성차관(tied loa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컨설팅 비용, 행정비용 등 거래비용이 많고, 자국기업 육성정책에 반한다는 인식이 있음. 따라서 원조형태 다변화 전략이 필요.

- 구속성 차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확실한 우위 또는 강점을 가진 분야를 정책 대화를 통해 베트남 정부에 설득 필요

- 베트남 ODA 수원 여건변화와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필요

2. 국가협력전략의 목표체계성, 예측가능성 개선 방안

- 현재 국가협력전략 목표가 비체계적이고 예측불가능함
 - 3기 CPS 내에 목표체계도를 제시했으나 목표체계성이 미비함. 부문별 목표와 상위 목표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함.
 -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분야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의 CPS는 베트남 국가발전전략(SEDP, SEDS) 성과 목표와 연계성 제시가 부족함.
 -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한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함
 - World Bank, 미국 USAID 등은 전략의 성과목표를 궁극적으로 베트남의 사회개발전략(SEDS)의 개발계획 세부 목표와 일치시키고 있고, 목표별로 해당되는 원조를 프로그램, 자문서비스 등 사업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4-2〉 World Bank 베트남 국가협력전략목표와 베트남 사회개발전략 체계성, 일관성 예

Pillar 1: Competitiveness
Sub-pillar 1.1: Economic Management and Business Environment
SEDS Goal 1: Improve Market Institutions in Accordance with a Socialist Oriented Market

Economy, Ensure Macroeconomic Stability, and Effectively Mobilize and Utilize Resources
Outcome 1. Maintain Sound macroeconomic framework
Outcome 2. Improved Public Financial management:
Sub-pillar 1.2: Quality and Efficiency of Infrastructure Services
SEDS Goal 5: Quickly Develop Infrastructures, Especially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Outcome 6 b: Improved Efficiency in electricity in selected areas
Outcome 7. Improved Efficiency in the water sector in selected areas
Sub-pillar 1.3: Capacity for Innovation and Value Addition
SEDS Goal 3: Comprehensively Develop Agriculture Towards Modernit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SEDS Goal 4: Strongly Develop Service Industries, Especially Services That Offer High Value, Great Potentials and Enhanced Competitiveness
SEDS Goal 9: Improve Quality of Human Resource, Reform Comprehensively, and Rapidly Develop in Education and Training
Outcome 9: Increase in scientific innovation
Outcome 10: Sustainable increase in value added in farming in selected areas

- 따라서 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에는 목표체계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첫째, 목표 수립 시 베트남의 사회개발전략(SEDS 2021-2030)과 우리나라 전략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함. 중점분야별 세부목표와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조정.
 - 둘째, 전략에 따른 실행계획이 예측가능하게 설정되어야 함. 전략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예산이 동시에 제시되어야 함.

3. 국가협력전략의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고도화 방안

- 국가단위 ODA 성과관리를 위해서 국별전략의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되고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도 제시되어야 함.
- 2기 전략에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result framework)를 포함했지만

완성도가 떨어지고, 국가협력전략 M&E 과정에 대한 방안도 추상적으로 제시됨.

- 국별협력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에 대해서도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World Bank, 미국 USAID 등의 국가협력전략은 전략목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 뿐만 아니라 상세한 기초선과 최종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의 내용도 함께 제시함.

〈표 4-3〉 World Bank 베트남 국가협력 전략 목표 및 성과지표 예

중점분야 1, 포용적 성장과 민간부문 참여 (Enable Inclusive Growth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세부목표 2. 민간부문 및 농업 비즈니스 개발 (Promote private sector and agri-business development)	
국별협력전략 세부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CPF Objective Indicators	세계은행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금융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line: 0 (2017) - Target: 5,000 (2022) ● 국내 공급자로부터 구매액(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line: 23.5 million (2014) - Target: 107.5 million (2018) ● Sustainable Agriculture Transformation Project의 지원을 받는 쌀/커피 경작지의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seline: 0 (2015) - Target: 150,000 ha for rice (2020) - Target: 50,000 ha for coffee (2020) 	<p>차관</p> <p>Vietnam Livestock Competitiveness & Food Safety Project (P090723)</p> <p>Sustainable Agriculture Transformation Project (P145055)</p> <p>Vietnam Inclusive Innovation Project (P121643)</p> <p>정책지원</p> <p>Enhancing Enterprise Competitiveness & SME Linkage (P161702)</p> <p>Vietnam Development Report 2016: Transforming Vietnamese Agriculture</p>

- 따라서 3기 전략 수립 시에는 성과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정량적 목표치로 제시하고, 현황과약 후 기초선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임.

4. 사업계획 개선방안

□ 중점분야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사업계획 개선을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공공행정 분야) 베트남은 제도구축 및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과 무상원조를 통한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다른 공여국에 비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향후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거버넌스 분야 및 제도개선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방 및 소외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 (교육/직업훈련 분야) 베트남은 100여개 중점 직종을 선정하고 전국 88개 중점직종학교를 지정하여 해당 직종의 기술인력을 집중 양성. 현재 중점 직종 중 12개 직종은 호주 직종 표준을 도입하여 인력양성 중이며 중점 직종 중 22개 직종은 독일 교육과정 도입예정.

○ 따라서 TVET 분야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할 때, 개별사업별로 개설 직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강점이 있는 중점 직종을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사업발굴 필요.

□ 수원국 분담사항 지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계획에 포함할 필요

○ 베트남은 수원국 분담사항에 대한 예산 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대부분의 사업에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제2절 사업운영 및 시행기관의 역량 관련 개선방안

1. 단계별 사업 연계하여 프로그램 원조와 유사하도록 실시

-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프로그램 원조로 운영
 - 우리나라의 ODA 는 프로그램 원조는 거의 전문한 가운데 대부분의 ODA 사업이 대부분 프로젝트형 사업을 실시되고 있음.
 - 본 평가의 대상이 되었던 베트남 법원연수원역량강화사업, 한-베 직업 훈련사업 등은 1차 사업에 그치지 않고 3차 사업까지 연계하여 실시하면서 사실상 프로그램 원조와 같이 운영함.
 - 프로그램 원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단년도 예산시스템 등 구조적 이유로 단기간 내 실시가 어렵다면, 최소한 동일 주제로 유사사업들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
 - 또한 프로젝트 사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사업 연계, 봉사단 및 자문관 파견과 연계 등 다양한 원조 수단들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은 타 사업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음.

2. 유무상연계사업 연계방안 및 융합성과도출 노력 필요

- 유무상연계사업 연계 기준 및 융합성과지표 제시 필요
 - 최근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무상연계사업에 대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어떻게(HOW)’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 유무상 연계사업이 실질적으로 화학적 반응을 낼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무상 F/S, 유상 인프라 구축이 대표적인 유무상연계 유형인데 베트남 교통분야 사업에서 기대와는 달리 연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유무상연계에 대한 적합한 방법론 제시가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융합사업 발굴 시에 동일사업에 대한 단계별 지원을 유무상연계로 하던가, 동일주제/동일지역에서 사업을 연계하도록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유무상연계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함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최근 융합사업 발굴 및 집행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행 사업계획서, 성과지표에서 융복합 시너지를 확인할 수 없음. 단순히 기관별로 분업화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아닌 여러 기관들이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융합성과에 대해 별도의 성과목표와 지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함.

3. 한국의 원조사업 모델(포괄적 사업요소) 장점 극대화 개선방안

- 포괄적 사업요소로 구성된 사업의 효율화 노력 필요
 - 한국이 베트남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사업들의 사업구성요소를 보면 ‘인프라+역량강화+컨설팅+전문가 파견’ 등 포괄적(comprehensive) 사업구성요소를 망라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베트남 수원총괄기관과 해당부처 등은 포괄적 요소로 사업

을 구성하는 한국의 특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업구성요소간 연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고비용저효율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포괄적 형태의 사업 구성은 필연적으로 여러 기관의 다수 이해관계자 참여하므로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함. 추진주체간의 역할과 책임 구분 미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종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여러 구성요소를 절차적·내용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 실제 이와 같은 이슈 발생으로 사업현장에서는 일정지연, 품질 저하 등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복합적인 사업요소를 가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 강화, 사업 구성요소 간 논리적 연계 기획, 사업 구성요소 산출물 간의 인과관계 분석 강화, 성과 중심의 추진순서 배열(sequence),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역할 정의 및 주체간 책임 구분 등의 노력이 필요함

제3절 평가 및 성과관리 관련 개선방안

1. 성과지표(산출[목표달성도] 및 결과[효과·영향] 지표 포함)의 체계적 구성 필요

- 대부분의 사업들이 활동-산출(목표달성도)-결과(효과·영향) 지표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상위수준의 목표 및 성과지표와 하위수준의 목표 및 성과지표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사업계획 문건들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상에서 정량적·정성적 평가방법 및 도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

있음.

- 비록 종료평가보고서에는 평가방법이 기술되어 있지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평가방법론과 도구를 명확히 정의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수행 중에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시점에 산출 및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지표의 정확한 기술과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
- 성과관리의 체계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ODA사업에 적합한 성과지표 개발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에 대한 대표성 높은 핵심내용을 성과지표로 설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능하면 산출지표보다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 둘째, 성과목표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방법(방식)을 명확하게 설명·기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성과지표는 해당 ODA 사업에 대한 기관(부서) 및 사업담당자의 자기노력에 대한 성과(결과)이어야 하며, 가급적 목표와 성과(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 또한 성과지표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자료의 타당성과 신뢰성 즉, '성과정보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예를 들어, 성과지표가 만족도 조사 결과인 경우, 설문항목의 적절성, 설문대상 표본 구성 등 측정방식이 객관적임을 성과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음.

2. 성과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 대부분의 사업들은 평가와 성과관리가 혼재되어 있음. 사업종료 이후 결과를 평가하는 것과 별개로 그러한 성과에 도달하기 위한 성과관리 활동은 사실상 부재함
- 전략-사업목표-사업관리-성과-평가 등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되는 것이 필요함.
- 먼저 해당 ODA 사업의 전략 달성을 위해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화해야 하고, 이를 하위 ODA 세부추진과제와 유기적 연관성을 확보해야 함.
 - 이를 통해 관련 ODA 전략을 ODA 추진기관(실시기관 포함)과 성과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연계해야 함.
 - 또한 관련 ODA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각 ODA 세부추진과제 별로 얼마나 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지를 성과관리 차원에서 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결국 해당 ODA 사업의 미션과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지표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
- 효율적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차원에서 ODA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원국 특성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ODA 사업의 전략과 세부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성과관리화 하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임.
 - 특히 성과관리 시행계획이 매우 중요하며, 그 세부내용에 사업별 핵심추진방향, 전략목표(또는 성과목표) 정립, 이에 따른 핵심성과지표, 환류(피드백)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ODA 국가협력전략(CPS) 고도화 차원에서 정부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내용을 CPS 및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반영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성과 중심의 모니터링을 산출물(output) 위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ODA 사업 효과(outcome)에 초점을 맞춘 성과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도 중요함.
- ODA 사업에 대한 과정모니터링 및 결과모니터링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과(평가)보고서 작성도 운영현황을 나열·기술하는 방식보다는 ODA 사업의 핵심성과(산출물 및 효과·결과 차원) 위주로 심층분석하고, 그 성과 도출근거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3.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필요

- 사업의 평가결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유사한 주제의 다음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개별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의 장단점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다음 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계획시 참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시행기관들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미흡한 사업으로 판단되면 국조실에서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이처럼 ODA 평가결과의 공개 및 효율적인 환류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국무조정실에 ‘ODA 유상·무상사업 통합 성과정

보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관련 ODA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차기 계획 및 운영내용에 반영할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ODA 환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성과환류 워크숍(코이카 및 EDCF 등)’의 주기적 개최·운영을 통해 ODA 사업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ODA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ODA 수원국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ODA 프로그램 발굴 토대를 이룬 성과환류 워크숍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임.

제5장 결론: 정책제언

제1절 정책제언 요약

□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기반한 정책제언 요약

-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장에서 제언을 도출하였음. 이를 다시 한 번 요약하며 제언의 실행을 담당할 부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제언 1. 3기 국가협력전략 방향 및 중점분야 제언

- 3기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중소기업(MICs) 도약을 원하는 베트남 국가발전계획의 방향에 맞춰 국가협력전략 수립
- 3기 중점분야 선정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할 사항
 - 공공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유상원조 지양하는 베트남 전략변화에 대응
 - 고등교육 및 고급기술인적자원 육성, 과학기술 이전에 대한 수요 대응
 - 정책 및 제도이전에 대한 기술협력 수요 대응
 - 지방정부, 소외지역(산악지대, 소수민족 거주지 등)에 대한 무상원조 대응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제도도입 지원

- 무상원조 지원분야는 정부역량강화 및 제도개선, 인적자원개발, 보건, 농촌개발 등에서 한국의 지원을 희망
- 유상원조 지원분야는 인프라, 농촌개발 및 관개사업, 도시개발(그린시티, 스마트시티, 다이나믹시티 등),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한국의 지원을 희망

○ 담당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기재부

□ 제언 2. 베트남의 유상원조 지양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최근 베트남에서 차관 운용 및 국가부채 관리를 위해 유상원조 사업을 제한하고 있고, 구속성차관(tied loa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베트남 ODA 수원 여건변화와 민간자본 유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ODA와 민간재원투자(FDI), 민간기업의 진출과 연계,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필요

○ 신남방정책으로 향후 ASEAN 국가에 대한 원조 총액이 늘어날 예정인 바, 이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

○ 담당부처: 기재부, EDCF

□ 제언 3. 국가협력전략 성과틀(result framework) 및 성과지표 개선

○ 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베트남의 사회개발전략(SEDS 2021-2030) 중점분야별 세부목표와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의 목표가 일치되도록 조정

- 베트남 사회개발전략의 성과지표와 3기 국가협력전략의 성과지표의 일관성 확보
- 국가협력전략 성과지표의 기초선 및 목표치 정량지표로 제시
- 담당부처: 국무조정실

□ 제언 4. 국별 프로그램형 원조 지향

- 대부분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형 원조로 전환 필요
- 단기적으로는 동일 주제로 유사사업들을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예. 베트남 법원연수원역량강화사업, 한-베 직업훈련사업 등은 1차 사업에 그치지 않고 3차 사업까지 연계하여 실시하면서 사실상 프로그램 원조와 같이 운영함
- 담당부처: 외교부, 기획재정부

□ 제언 5. 유무상연계 방안에 대한 기준 및 융합성과지표 구체화

- 유무상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연계 기준, 방안, 성과관리 계획이 미흡하여 유무상연계사업의 성과 불확실
- 단순히 기관별로 분업화된 목표와 성과지표가 아닌 여러 기관들이 함께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때 기대되는 융합성과에 대해 별도의 성과목

표와 지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함.

○ 담당부처: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 제언 6. 프로젝트 형 원조의 포괄적 사업구성요소 효율적 운영

○ 한국의 프로젝트 형 ODA 사업은 인프라+역량강화+컨설팅+전문가 파견' 등 포괄적(comprehensive) 사업구성요소를 망라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시행기관들은 복합적인 사업요소를 가진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기획 및 집행역량 강화 필요

- 프로젝트 관리 전문성 강화, 사업 구성요소 간 논리적 연계 기획, 사업 구성요소 산출물 간의 인과관계 분석 강화, 성과 중심의 추진순서 배열(sequence), 이해관계자 간 명확한 역할 정의 및 주체간 책임 구분 등의 노력이 필요

○ 담당부처: KOICA, EDCF 및 시행기관 전체

□ 제언 7. 사업의 산출 및 성과지표 체계적 구성 및 성과관리 활동 강화

○ 사업계획 시점에 산출 및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지표의 정확한 기술과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보완

○ 사업의 활동-산출(output)-성과(outcome) 지표를 올바르게 사용. 상위수준의 목표 및 성과지표와 하위수준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개선

- 사업의 평가결과가 다음 단계의 사업이나 유사 주제 다른 사업에 반영 되도록 학습 위주의 환류 체계 강화
- 담당부처: KOICA, EDCF 및 시행기관 전체

□ 제언 8. 국별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체계화

- ‘ODA 유상·무상사업 통합 성과정보 공개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운영
- ‘성과환류 워크숍(코이카 및 EDCF 등)’의 주기적 개최·운영
- 담당부처: 국무조정실

제2절 국별평가 개선방안³⁵⁾

□ 국별평가 개선 필요성

- OECD/DAC 가입 10년이 경과하면서 개발협력 분야는 예산과 참여기관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양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루었음. 이제는 이에 더하여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그동안 ODA 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대해 강조함에 따라 평가 분야에서도 사업단위의 평가는 개선이 이루어졌음. 앞으로는 분야별 평가, 주제별 평가, 국가단위 평가 등 상위평가에 대한 개선을 모색해야 할 시기임.
- 이에 본 연구는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를 통해 국가단위 평가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시도하였음. 실제로 국별평가를 실시한 경험에 기반하여 향후 국별평가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평가목표 명확화

□ 국별평가 개념 명확화: 국별 프로그램 평가

- 첫째, 국가단위 ODA 평가인 국별평가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국제사회에서 ‘국별평가’는 평가목적에 따라 국별전략평가

35) 국별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은 김은주·이환성(2018), 「ODA 국별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연구」의 정책대안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재정리하였음.

(Country Strategy Evaluation, CSE), 국별프로그램평가(Country Program Evaluation, CPE), 국별원조평가(Country Assistance Evaluation, CAE)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음.

-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국별평가는 국가단위로 설정한 전략에 따라 실제로 실시한 프로그램들의 적절성,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음.
- 앞서 말한 세 가지 개념 중 국별프로그램평가(CPE)가 현실적으로 실시 가능한 국별평가임.
- 세계은행과 같이 한 국가에 많은 지원을 하는 경우는 단지 국가단위 프로그램 평가에서 더 나아가 실제 그 나라의 거시경제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나 분야별 발전에 기여한 정도까지 평가하는 국별원조평가(CAE)를 실시하기도 함.
- 하지만 대부분의 공여국과 공여기관들은 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광범위하게 평가하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국별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는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음.

○ 따라서 앞으로 상위평가 수준에서 국별평가를 실시할 때 국별프로그램평가(CPE)의 개념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국별평가 목적 명확화

- 둘째, 국별평가의 목적이 명확해야 평가 자체의 타당성이 확보되고 평가결과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실시하는 국별평가는 국가단위로 설정한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원조가 실시되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나아가 차기 국가협력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고 있음.

-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협력전략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국별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도 차기 국가협력전략에서 반영해야 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이유 때문임.
 -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이름으로 전략 자체의 변경 필요성에 대해 조사하는 별도의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주로 대외환경의 변화나 수원국 상화변화 등을 조사하여 전략의 변경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국가단위로 ODA 사업 종합평가를 통해서 국별프로그램이 잘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 이와 같이 분리해서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국가협력전략과 국별 ODA 종합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임.
- 국가협력전략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와 동시에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ODA 사업이 일관성 있게 실시되어 그 결과 수원국의 발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는지 개발효과성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여 두 가지 평가가 종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통합평가 매뉴얼 개정 제안

- 현재는 통합평가매뉴얼 중에서 국별평가에 대한 개념을 “국별 평가는 특정 협력대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로 포괄적이고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음(국무조정실 통합평가 매뉴얼).
- 또한 평가 목표에 대해서도 “국별 평가는 주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국가협력전략 등 국별전략 및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정도와 국가협력전략이 동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차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및 협력대상국과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국무조정실 통합

평가 매뉴얼).

- 평가소위는 매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중간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협력전략 및 중점협력국 조정 등에 반영한다”로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음(국무조정실 통합평가 매뉴얼).
- 따라서 국별평가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통합평가매뉴얼을 개정할 것을 제안함.
 - 국별평가의 목표를 “국별평가는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집행과정 적절성 및 성과의 개발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로 개정할 것을 제안함.
 - 또한 평가목표도 세분화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이 국가협력전략 등 국별전략 및 협력대상국의 개발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여 교훈을 도출한다.
 - 둘째, 국가협력전략이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개발효과성을 평가하여 성과를 점검한다.
 - 셋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차기 국가협력전략 수립과 중점협력국 조정 및 협력대상국과의 정책협의(policy dialogue)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함.

□ 3기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프로그램 원조로 전략목표 명확화

- 또한 국별평가를 수행할 때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평가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에 따라 목표체계를 설정하여 평가목표를 명확히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국가협력전략에 따른 대목표-중점분야별 중목표-개발협력 프로그램별 소목표 등을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
-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은 프로그램형 원조라기보다는 여전히 프로젝트 사업들을 총합하는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 이와 같은 목표체계를 작성하여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음.
- 이번에 실시한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목표체계도 설정을 시도하였음. 그러나 목표의 준위가 불일치하고 프로젝트 사업들이 프로그램형 원조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개별 기관들의 수요에 따라 기획되고 집행되고 있는 현실 때문에 실제 이를 적용하기 어려웠음.
- 따라서 3기 국가협력전략을 구성할 때는 이와 같은 한계를 고려하여 목표체계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단위의 원조를 실시하도록 전략을 구성해야 함.
 - 대목표-중목표-소목표 설정이 가능하도록 전략을 구성한다면 국별 평가 역시 이에 입각하여 평가 시행 전에 목표체계도 설정이 가능할 것임.

2. 평가절차 표준화

- 국별평가 절차 수립하여 안정적 평가 운영 필요

- 국별평가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평가절차를 안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국별평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상위평가가 제3자 평가 방식으로 외부기관에게 연구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의 역량에 따라 평가방법론이 달라지고 평가의 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평가를 위한 세부절차를 표준화하여 국별평가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

□ 전체 평가절차 확립 필요.

- 평가기획에서부터 평가실시, 평가종료 이후 평가결과 심의 및 공표까지 전 단계에서 실시해야 할 과업을 명확히 하여야 함
 - 외부 기관이 참여하여 평가를 할지라도 전체적인 국별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 표준화.
- 평가기획, 평가실시, 평가종료, 평가결과 심의 및 공표 등 4단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평가기획 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평가목표를 정의하고 평가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특히 국별평가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 수가 많으므로 대표적인 사업들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주무부처(외교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대표사업을 선정하도록 함.
 - 현재 통합평가 추진체계에서 평가소위가 평가를 결정하며 사무국인 국무조정실이 이를 시행하고, 이 과정에서 평가협조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시행기관들과 협조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과정

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평가추진체계 내에서 참여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원활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기획 단계에서부터 체계를 잡는 것이 필요함.

○ 둘째, 평가실시 단계에서는 사전 문헌조사 등을 통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 때 평가프레임워크와 평가기준 등을 확정하여 국무조정실, 평가협조기관인 외교부, 기획재정부 그리고 기타 시행기관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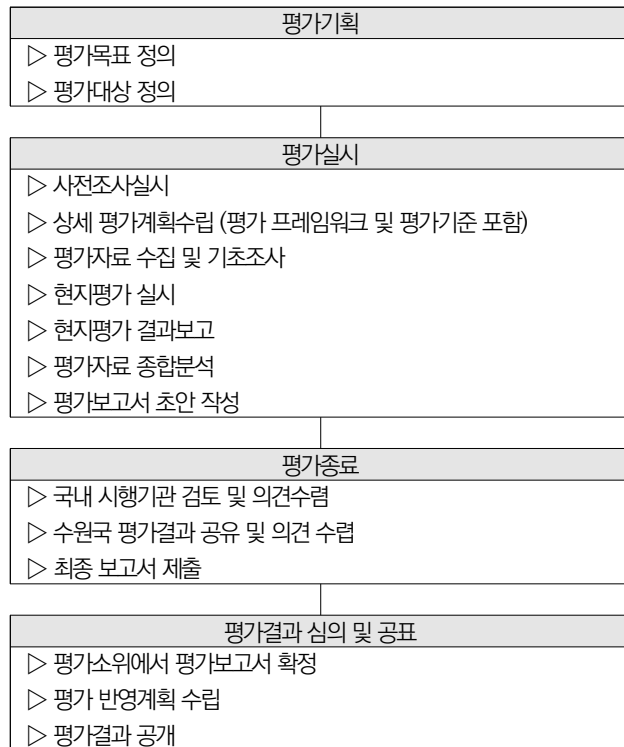
- 이에 기반하여 평가자료를 수집하고 기초조사를 실시한 뒤 현지평가를 실시한다. 현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셋째, 평가종료 단계에서는 평가협조기관인 정부부처들의 협조를 받아 피평가기관인 시행기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평가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고려하여 평가결과서 최종안을 확정함.
- 국별평가가 보다 고도화된다면 향후에는 평가종료 단계에서 수원국에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본 베트남 ODA 사업 종합평가의 경우 2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주고 정부부처와 시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이 때 다른 부처들의 정책평가, 정부업무평가 방식에 준하여 이의제기 절차나 내용에 대한 서식을 확정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이와 같이 향후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도 표준절차를 확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평가결과가 확정되면 이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원회에 보고하여 평가보고서를 확정함.
 - 이후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결과를 관련 기관, 수원국,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의 책무성을 높일 수 있음.

〈그림 5-1〉 단계별 평가 수행절차(안)



*출처:김은주·이환성(2018: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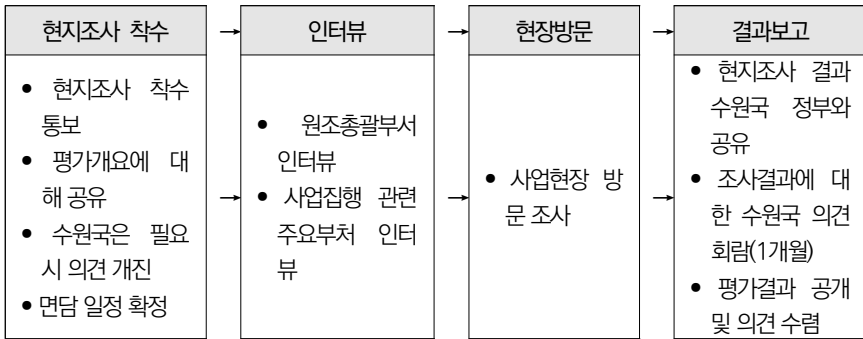
□ 현지조사에 대한 절차 확립.

- 지금까지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국별평가를 비롯하여 시행기관인 KOICA 차원에서 실시한 국별평가 등은 현지 조사가 최대 10일 내외

로 진행되어 현지조사를 충실하게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수원국의 원조총괄부처나 주요 시행기관들과 협의 또한 외부기관이 수행함으로써 인해 정부 대 정부의 협의나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어려움이 있었음.
- 다른 공여기관들의 사례를 보면 현지조사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원국이 평가과정에 대해 예측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참고하여 현지조사 단계별 실행방안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안함.

〈그림 5-2〉 현지조사 단계별 실행방안



*출처:김은주·이환성(2018:366)

□ 평가자료 확보를 위한 주관기관, 시행기관들의 의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체계화.

-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에서 상위평가로서 국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은 다양한 시행기관들이 실시하여 평가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무부처인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KOICA와 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집행하고 있음. 또한 기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들도 직접 ODA 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 이로 인해서 평가의 시작단계에서부터 자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내실있는 평가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평가소위원회와 사무국인 국무조정실의 평가권한을 명확히 하고 관련부처와의 협조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함.

○ 평가협조기관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는 평가소위원회의 요청에 응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성실하게 협조해야 함.

○ 특히 평가의 기본이 되는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대한 보장하여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ODA 사업 자료 DB 구축 필요

○ 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관리의 기본이 되는 자료들을 DB로 구축하여 공유하도록 하여 평가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 독일의 사례를 보면 ODA 사업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5개 부처들이 프로젝트 및 사업정보에 접근하여 기대되는 산출물을 살펴보고 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김은주·이환성, 2018).

- 독일 역시 개발협력 전담부처인 연방경제개발협력부(BMZ)이외에

도 개발원조에 참여하는 부처들이 많아지면서 국회에 상시적으로 ODA사업을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업이 통합적으로 DB로 관리된다면 평가를 위한 자료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3. 평가결과 환류 체계화

□ 국별평가결과의 국별전략 반영 필요

- ODA 평가를 실시하는 이유는 이후 수행할 유사사업에 필요한 교훈을 도출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습하는 데 있음.
- 국별평가는 특히 상위평가로서 국가단위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반영하도록 해야 함. 또한 한 국가에서 많은 시행기관들이 참여하여 원조사업을 하는 만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실제 사업과 전략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국별평가 결과의 이해관계자 공유

- 평가결과 환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평가결과를 공유하여 시행기관의 사업추진 시 반영하도록 해야 함.
- 가능하면 수원국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보고서를 수원국과 공유하여 한국과 새로운 국별협력전략 수립이나 신규사업 발굴 시 수원국도 이

를 반영하도록 해야 함.

- 이와 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먼저 평가절차 표준화 방안에서 제안했듯이 평가기획과 평가종료 단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함.
- 예를 들어, ADB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보고서 초안이 나온 이후 7단계에서 거쳐 보고서 회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함(김은주·이환성, 2018).
 - ADB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독립평가부서가 국별평가를 수행하는데,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집행부서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수궁하고 도출된 제언을 실제 집행가능한 제언으로 합의하여 평가결과보고서를 마무리함.
- 이와 같이 국별평가 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제언이 실제 ODA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와 시행기관에서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기획재정부 간에 합의를 통해서 시행기관들이 실제로 실행가능한 대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평가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음.
- 실행가능한 제언을 제안할 때 평가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어 환류될 수 있음.

□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 성과관리 계획 설정

-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협력전략 수립 시에 평가 및 환류까지 염두해

돈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협력전략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상향식(bottom-up)으로 총합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따라 다른 부처와 시행기관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전략 본연의 기능을 해야 함.
- 전략수립 단계에서부터 성과관리 계획으로서 결과틀(result framework)이 보다 충실하게 설정되어야 함.
 - 전략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보다 상위의 성과로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는 협력대상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틀이 되어야 함
- 이와 같이 국별협력전략과 국별평가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첫 단계인 국별협력전략이 제대로 수립될 때 국별평가의 환류가 가능할 것임.

□ 평가결과 집행 여부 비율 산정하여 공개

- 국제기구들은 평가보고서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여 평가 결과 도출된 제언이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계하는 경우도 있음.
 - 예를 들어, 평가보고서에서 10개의 제언을 제안하면 이 중 실현가능한 제언을 실행. 가령 10개 중 5개의 제언이 실제 집행되었다고 하면 50%가 환류된 것임. 이와 같이 평가결과의 환류 비율을 계산하여 매년 공표하기도 함.
 - 이것이 가능하려면 평가결과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기관별로 평가결과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실제로 많은 국제기구들은 이와 같이 사업부서의 대응을 기록하고 평가

결과 환류정도를 추적 관리하는 평가권고사항 추적관리시스템 (Management Action Record System: MARS)을 갖추고 있음(김은주·이환성, 2018).

- 앞으로 국무조정실이 상위평가를 담당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추적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결과가 실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6). 베트남국가협력전략.
- 김은주이환성(2018), ODA 국별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연구, 한국 행정연구원
- 베트남 사무소 (2016). 타원조 기관 섹터별 베트남 원조 전략 조사: 도시개발, 농촌개발, 에너지, 환경(기후변화), 교통분야
- 외교부 (2017). 베트남 개황.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호치민한국지상사협의회 (2019). 2018년 베트남 및 한-베 수출입 동향.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 매뉴얼」

<국외문헌>

-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 (2017). Statistical summary book of Viet Nam.
- IMF(2019). VIETNAM 2019 ARTICLE IV CONSULTATION—PRESS RELEASE; STAFF REPORT; AND STATEMENT BY THE EXECUTIVE DIRECTOR FOR VIETNAM.
- JICA (2013). Japan's ODA: Rolling Plan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 KOICA (2017). 베트남 ODA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전략.
-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2016). The Five-Year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2016-2020.

The World Bank Group (2017). Country Partnership Framework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the Period FY18-FY22. Vietnam Government. Vietnam' s Socio-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Period Of 2011-2020.

<웹사이트>

베트남 기획투자부 (<http://www.mpi.gov.vn/en/Pages/default.aspx>)

베트남 세관총국

(<https://www.customs.gov.vn/Lists/EnglishStatistics/Default.aspx?language=en-US>)

통계청 KOSI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AQ201&vw_cd=M_T_RTITLE&list_id=OTIT_WDITIT_Y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A7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 Nam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783)

GIZ (<https://www.giz.de/en/worldwide/357.html>)

KOTRA 하노이 무역관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72560>

OECD Stats

http://www.odakorea.go.kr/ODAPage_2018/cate02/L03_S02.jsp

https://public.tableau.com/views/Climate-relateddevelopmentfinance-RP/CDF-Recipient?:embed=y&:display_count=no&%3AshowVizHome=no%20#3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

UNDP (<http://hdr.undp.org/en/data>)

Worldbank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I.POV.NAHC?end=2012&locations=VN&start=2012&view=chart>)

부록 1. CPS 4대 중점분야 지원방향에 따른 사업 분류(mapping)

1	공공행정 분야 지원방향
---	--------------

- 경제-사회-환경개발 및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법치 시스템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
- 취약계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행정 역량 강화 지원

○ 2016-2018 사업 중 CPS 중점목표에 해당하는 사업 분류

주제		사업명
사법행정	무상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사업('13-'17/954만불)
	무상	베트남 법관연수 선진화 지원사업('08-'12/300만불)
	무상	사법의 공정성과 사법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파트너십
치안	무상	베트남에 입법 및 사법제도 개발 관련 WFK-중장기자문단 파견
	무상	베트남 경찰대 전자도서관 구축사업('14-'17/230만불)
	무상	베트남 과학수사역량 강화사업
	무상	해양경찰의 해상치안 행정역량강화 (2015)
전자정부	무상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법제 및 기술 역량강화
	무상	개도국 고용서비스(PES) 전산망 구축 지원(베트남)
	무상	베트남 민간부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정보시스템 구축사업('18-'21/550만불)
	무상	(2015 KSP 시스템컨설팅) 베트남 온라인 자산관리시스템 개발 지원
	무상	(2016/17 KSP 역량강화연수) 베트남 온라인 자산처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
	유상	정부통합데이터센터 건립사업

2	교육 분야 지원방향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 산업국가에 적합한 각 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원 ▪ 과학기술 분야 고등교육 기관 설립 |
|---|

주제		사업명
TVET	무상	베트남 다량 IT전문인력 양성 사업
	무상	베트남 빈곤계층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보육환경 구축 (2016-2018/1,300백만원/PPP/국제연꽃마을)
	무상	베트남 서비스 특화 교육을 통한 여성인력 양성 직업훈련 교육 사업 (2016-2017/378백만원/아시아나항공/굿피플)
	무상	베트남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2015-2016/327백만원 /PPP/한국여학사협회)
	무상	베트남 저소득층 여성의 직업훈련교육 및 모자보건 교육(2017-2019/337백만원/한베문화교류센터)
	무상	베트남 중부고원 소수민족 청소년 직업대학 향상사업('13-'17/500만불)
	무상	베트남 청소년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기술 교육(2015-2018/2,300백만원/현대건설/현대자동차/플랜한국위원회)
	유상	5개 지역 한베 직업기술대학 건립사업
	유상	꽝빈성 직업전문대학 개선사업(소액차관)
	유상	베트남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유상	탕화성 탕하시 직업기술대학 개선사업
	유상	하띤성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소액차관)
	유상	베트남 지아라이성 아운파 중등직업학교 개선사업
과학기술분야 고등교육 기관 설립	무상	베트남 하노이 개방대학교 개선사업('14-'17/300만불)
	무상	베트남 한베 과학기술연구원(V-KIST) 설립지원 사업('14-'18/3,500만불)
	무상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3차지원사업('14-'17/600만불)
	무상	베트남 한베 친선 IT 대학 4년제 승격지원사업('13-'19/520만불)

3	교통 분야 지원방향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분야(도로 및 철도) 정책 및 관리역량강화 ▪ 철도(메트로 포함) 분야 협력 확대 ▪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 주요 교통망 건설 지원 |
|--|

주제		사업명
교통분야 정책 및 관리 역량	무상	베트남 고속도로 관리 및 제도 역량강화 사업('15-'17/150만불)
	무상	베트남 교통분야 DEEP 사업('15-'19/500만불)
	무상	(2015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PPP 노선 선정지원
	무상	(18/19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Ⅲ) 베트남 다낭 도시철도개발 관련 계획 및 운영
	무상	(2016-17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운영유지 지원 계획 수립
	무상	저탄소 대중교통 정책 및 운영기술(2018)
	유상	호치민-쑹롱 고속도로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철도	무상	베트남 하노이 도시철도 8호선 건설 예비타당성조사(Pre-F/S) 사업 ('18-'20/400만불)
	무상	베트남 호치민시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 사업('15-'17/500만불)
	유상	케넷 철도 개량사업
도로	유상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1차 사업
	유상	GMS 남부해안 연결도로사업 2차 사업
	유상	중부지역 연결도로 건설사업
	유상	면반~년짜도로 건설사업
	유상	락지아 우회도로 건설사업
	유상	밤콩교량 접속도로 건설사업
	유상	로메~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유상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유상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10구간)
	교량	유상
유상		노후 교량 개보수사업(2차)
유상		밤콩 교량 건설사업
유상		빈틴 교량 건설사업
유상		틴홍 교량 건설사업
유상		흥하 교량 건설사업

4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지원방향

-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및 질병 관리 역량 강화
- 농촌종합개발 지원을 통한 기초보건위생 증진 지원
- 주요 대도시 상하수도 및 산업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보건서비스 강화 지원

주제		사업명
물관리	무상	석사학위-수자원관리 역량강화('17~'19)
	유상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
상하수도	무상	(베트남) 까오방 마을 상수도 구축 사업
	무상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비소정수설비 개발
	무상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상하수도 관리 역량강화
	무상	베트남 부온호현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09~'12/450만불)
	유상	롱수엔시 하수처리사업
	유상	목짜우 상하수도 건설사업
	유상	비엠티 하수도 건설사업
	유상	티엔탄 상수도사업(2차)
	유상	호아간띠이 상수도 건설사업
	유상	호아빈 상수도 건설사업
	유상	흥엔시 폐수처리사업
	폐기물 처리	무상
무상		(2016-17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베트남 고체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유상		닌빈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유상		하이퐁 고체폐기물 처리사업
기초보건 위생	무상	하이즈영성 탕하현 탕안면 기초보건 위생시설 및 인식개선 구축사업 (2014-2016/281백만원)
	무상	베트남 탕화성 중등학교 보건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무상	베트남 의료시설 건립운영 유무상연계사업
전문병원 설립	유상	베트남 엔바이 종합병원 건립사업
	유상	베트남 하이퐁 종합병원 건립사업
	유상	베트남 투안티엔hue 종합병원 건립사업

부록 2. 현지조사 질문지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I. Purpose of Meeting

The meeting aims to form a foundation upon which to conduct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Vietnam ODA, to verify whether ODA aid projects have been executed according to the strategic objectives of Korea's Second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6-2020 (hereafter CPS).

In addition, we intend to evaluate whether ODA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We would like to draw lessons for the next Vietnam CPS, and consider recent changes in development needs and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Vietnam.

Therefore, we plan interview the MPI who oversees Vietnam'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scuss how Korea's aid projects have contributed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Furthermore, we hope to ask the strengths of Korean aid agencies, any areas for improvement, and future contributions to be made to the futur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Vietnam.

II. Questionnaire

1. Contributions made through Korea's ODA program/projects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1) Korea's Second Vietnam CPS designated transportation, water and sanitation, education, and public administration as the 4 main focus areas of its aid program. Do you believe contributions were made to

the development of each of the four focus areas?

2) Could you tell us that there are any representative aid projects from the four focus areas tha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If so, why?

3) Could you tell us more specifically about output/outcome/impact of aid programme/projects of Korea that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4) Which of the four focus areas contributed the most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5) What would be the sectors that should be added, or changed in future CPS, besides the four areas?

2.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for Korean aid agencies

1) (Project Planning-Relevance) Are Korean aid agencies planning aid projects that are consistent with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s well as Korea's CPS? What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relevance?

2) (Project Implementation-Efficiency, Effectiveness) Are Korean aid agencies efficiently executing aid projects? What should be improved to improv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3) (Project Implementation-Relevance/Partnership) Do Korean aid agencies respect the ownership of MPI and partner organizations to build effective partnerships? What should be improved to establish stronger partnerships?

4) (Project Performance-Sustainability) Are the performances of Korean aid agencies sustainable after each aid project ends? What should be improved to enhance sustainability?

5) Overall, what are the main strengths of Korean aid agencies in

managing aid projects? What would be the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6) Overall, What would be the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for planning and implementation?

7) Overall, What would be the areas for future improvement for cooperation with aid agencies and Government of Vietnam?

3. Future changes to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1) During the last 10 years since 2010, how much Korean aid programme/projects hav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national development plan or its implementation?

2) What are the main strategic directions of Vietnam's national development plan after 2020?

3) Compared to previous national development plans, will there be any major changes to the plans after 2020? What are the priority areas? What are the most critical development needs?

4) Considering the strategic advantages of Korea, what fields and programs would you like to see in the next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 대한민국 대사관, KOICA 베트남 사무소, EDCF 하노이 사무소

1. 2기 CPS(2016-2020) 베트남 ODA 프로젝트, 프로그램 현황 소개
2. 2기 CPS 기간(또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각 기관별 베트남 ODA 의 전략적 방향성은 무엇인가?
3. 수원국 국가발전전략,우리정부의 국별협력전략과 적절성 및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4. CPS 1기(2011-2015), 2기(2016-2020) 등의 내용에 비춰볼 때, 귀 기관의 활동이 대 베트남 국가협력전략 달성, 베트남 국가발전전략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5. 수원국 정부와 정책대화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주기, 방식 등)
6. 수원국 분야별 공여국 회의에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다른 공여국 및 개발협력파트너들과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7. 베트남 내에 우리나라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많은 기관들이 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조조화를 위한 조정은 어떻게 하는가?
8. 국내 행위자 중 공공부문 이외 민간부문(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9. 수원국 특성을 고려할 때 사업기획, 집행, 평가 시 특이사항은? 수원국 정부의 주인의식, 집행 시 효율성, 원조조화 등을 위한 노력은 충분한가?
10. 베트남 국가발전전략을 고려할 때, 차기 CPS 수립 시 어떤 점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중점분야에 대한 제언이 있다면? 향후 지원방향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상기 질문은 공통질문이며, 기관 특성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 및 면담을 추가로 진행함

□ 현지조사 대상 사업 수행기관 대상 질문지

1. (Project Planning) Do the project objectives reflect the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of Vietnam?
2. (Project Planning) Do you think that the project plans were specific and feasible for implementation?
3. (Project Implementation) After the project plans were established, were the plans amended after the project was officially launched? Did the changes reflect the actual needs during the launch period?
4. (Project Implementation) Was the project budget and schedule executed according to project plans?
5. (Project Implementation) Were there any delays or unexpected changes made during project implementation? If so, what were the main causes and were they appropriately addressed? What would be the areas for improvement, if needed?
6. (Project Outcome) Did the project in question enhance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people of Vietnam?
7. (Project Outcome) To what extent was the organization of the recipient country satisfied with the project outcome?
8. (Project Outcome) What additional measure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ject in question? What would be the main areas for improvement?

※ 상기 질문은 공통질문이며,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요청 및 면담질문을 추가로 작성하여 질문함.

※ 또한 사법연수원 졸업자 수혜자 그룹 FGI, 직업훈련 성과 분석을 위한 수혜자 설문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함.